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誌: 1967年 3月23日 登録番号: 第 4-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誌: 1979年 5月31日 毎月1回発行 通巻 第123号

1979 5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 建築士

1979. 5

目 次

協会記事	2
會員動向	3
會員動向	4
■ 特輯	建築士業務의 当面問題
建築士業務의 当面問題	姜 奉 辰 5
建築作品活動과 法的制約	安 仁 模 8
建築士報酬의 虛와實	崔 昌 食 12
地方會員의 特殊事情	閔 榮 基 16
地方建築士가 가지는 問題點과 解決策	尹 榮 在 17
建築審議와 建築士業務	尹 鳳 源 19
建築士事務所의 運營과 稅制	李 承 文 21
建築審議와 建築士業務	安 煥 培 24
監理業務와 問題點	金 正 湜 26
WALTER GROPIUS 와 國際主義建築	金 熙 春 28
建築士의 建築創作風土改善策(2)	梁 元 求 33
小都市開發을 위한 適正生活圈 形成에 관하여	盧 椿 熙 41

□ 會員作品	47
--------	----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正澈
委員 吳昌熙
" 尹道限
" 尹鳳源
" 尹太鉉
" 李璟會
" 李文輔
" 李廷德
" 洪性穆

이승언(원일건축)	백영기(동림건축)
이영일(삼송건축)	오응석(신조건축)
김충득(구리사 건축)	김효일(원건축)
김봉훈(진신건축)	김관룡(서울합동건축)

建築月間情報	64
海外作品紹介	69
建築許可統計	89

發行人兼 編輯人・金斗燮 / 登錄番号・第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9年 5月31日 / 通卷 第123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電話：73-9491~2

印刷人：郭得龍(三文印刷所) 中区 乙支路3街

電話：265-4558

일손돕기운동

지난 6/1일 본협 임직원 및 서울지부 임직원 그리고 경기도 지부 임직원이 경기도 지부에서 합류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권씨농가의 논 약 2000평을 일사불란한 솜씨로 모내기를 마쳤다.

이날 서투른 솜씨였지만 현지 농민들의 시선을 받으며 제각기 거머리 타도를 곁들인, 싸우면서 일하는 실감을 만끽하였다.

— 수원 권씨농가에서 —



자연보호캠페인

지난 5/26일 임직원 및 서울시지부 임직원 일동은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는 뜻과 새마음을 가다듬는 참된 자세로 경기도 공능유원지로 출동 오물줍기와 환경정화에 하루를 보냈다.



韓・日建築士懇談会

지난 17일 일본 가고시마 건축사 34명이 본협을 내방 서울의 시가지 및 고궁을 돌아보고 본협 임원들과 간담을 가졌다.

이 날 일본 건축사들이 질문에 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여 오므로서 간담은 시작되었다.

질문의 요지 :

1. 건축사법 및 건축법규
2. 건축사 시험 자격 취득문제
3. 일조건, 문제
4. 건축사 시험제도.

5. 지진 및 태풍에서 오는 구조처리문제

6. 보수요율 및 ~~정당~~ 문제

등 현업이 안고 있는 제반사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있어 본협 김두섭 회장 및 임원진이 질문에 응해 소상히 답변하므로써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으며 특히 이번 간담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홍사철 박사께서 한국건축 전반에 걸쳐 소상하게 또 권위있는 설명을 가하므로써 양측은 부담없고 화기에 찬 간담을 시종일관 진행하여 양국 건축사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경기지부 전임회원

會 員 動 靜

성명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면허번호	원일
유기조	범진종합 건축설계	안양시 호계동 742-1	2-0486	147	2-881	4.30

부산지부 전임회원

배종원	한영건축 설계사무소	부산지구 부전동 395-21	3-6786	128	2-1224	4.30
-----	------------	-----------------	--------	-----	--------	------

경북지부 전임회원

이광용	중앙건축 연구소	김천시 평화동 245-83		4259	1-935	5.11
-----	----------	----------------	--	------	-------	------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울
성 명 : 이 정 남
명 칭 : 부강종합건축
소 재 지 : 관악구 방배동93-1
전 화 : 51-1464
면허번호 : 1-1277
등록번호 : 1-6
월 일 : 3.13



본 적 : 서울
성 명 : 최 점 상
명 칭 : 현대 건축연구소
소 재 지 : 강남구 천호동410-197
전 화 :
면허번호 : 2-1399
등록번호 : 17
월 일 : 4.17

전북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전북
성 명 : 양 재 연
명 칭 : 대아대흥건축연구소
소 재 지 : 전주시 서노송동614-26
전 화 : 3-0804
면허번호 : 2-646
등록번호 : 211
월 일 : 4.30



본 적 : 전북
성 명 : 박 응 서
명 칭 : 대아대흥건축연구소
소 재 지 : 전주시 서노송동614-26
전 화 : 3-0804
면허번호 : 2-1122
등록번호 : 211
월 일 : 4.30



전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전남
성 명 : 이 하 중
명 칭 : 한일대양건축사무소
소 재 지 :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152
전 화 :
면허번호 : 2-1319
등록번호 : 232
월 일 : 4.30



경기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충 남
성 명 : 이 중 훈
명 칭 : 범진종합 건축설계
소 재 지 : 안양시 호계동 742-1
전 화 : 2-0486
면허번호 : 147
월 일 : 4.30



부산지부 신입회원

본 적 : 부산
성 명 : 김 홍 원
명 칭 : 건축설계 三宇
소 재 지 : 북구 구포동1186-22
전 화 : 92-4807
면허번호 : 125
등록번호 : 120
월 일 : 4.30



訂 正

會誌「建築士」 1978年度12월호
1978年度, 第3回 臨時總會開催 記事中 第3回를 第4
回로 訂正합니다.

建築士業務의 当面問題

姜 奉 辰

建築士가 行하는 業務의 內容은 建築士法 第19條에,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關한 業務」와, 「建築物의 調査 또는 鑑定에 關한 業務」 및 「建築에 關한 節次履行代理業務」등을 行 할수 있도록 明確하게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法令上의 用語定義面에서 볼때는, 建築士業務에 對한 概念과 範圍가 뚜렷 하게 規定 되어 있으므로, 建築士가 業務를 遂行 하는데 있어, 別다른 問題가 있을 것 같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建築士業務만큼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가 많은 業種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本來 建築이란 그 自體가, 衣食住란 人間生活의 三大要素의 하나일뿐 아니라, 經濟性을 隨伴하는, 人間生活에 直結되는 많은 利害行爲의 하나이기 때문에, 恒常 많은 問題點들이 惹起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果然 建築士가 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 어떠한 問題點들이 있는가를 간추려 보건데는, 大概 이를 세가지 類形으로 分類 할수 있다.

그 하나는 「協會發足當時의 草創期부터 오늘까지 累積되어 온 問題」로서, 아직까지 完全한 解決을 보지 못한 것으로, 例를 들면, 「建築士報酬基準 現實化 問題」, 「所得標準率引下問題」, 「二重職, 名義貸與根絶에 關한 問題」, 「設計費의 Dumping防止에 關한 問題」, 「工事監理上 責任限界에 關한 問題」, 「設計用役 人札參加禁止에 關한 問題」等等을 들수 있고,

둘째는, 「現時점에 當面한 問題」로서,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것으로, 例를 들면, 「建築物의 建築抑制措置 解除에 關한 問題」, 「建築審議制度 改善에 關한 問題」등을 들수 있고,

셋째로, 「將來發生이 豫想되는 問題」로서, 미리 이에 對한 對備策을 講求 해야 할 것으로, 例를 들면, 「凶告申告制의 廢止 또는 事後申告로 變更하는 問題」, 「大學教授는 學問研究上 建築設計業務를 可能토록 해야 한다라는 問題」, 「Engineering 會社에서 建築士를 僱傭 하면 모든 建築設計를 可能토록 하는 問題」등을 豫見 할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問題들은 建築士들에게는 直接皮膚로 느낄수 있는 問題로서, 早速하고 円滿하게 解決 될것이 바람직 한 일 이지만, 建築士: 個個人이 解決 해 나가기란 거의 不可能한 問題들 이기 때문에, 建築士協會가 主動 해서, 事案의 緩急을 가려, 急한 當面問題부터 하나씩 解決 해 나갈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어려운 問題들을 總網羅해서, 그 本質을 究明하고, 이에 對한 對策을 講求한 다는 것은 至難工事이기 때문에, 筆者는 다만 上記 例示한 問題點들中에서 몇가지만 들어, 所信을 披瀝해 보고저 한다.

“建築物의 建築抑制措置解除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建築資材 特히 鉄筋과 시멘트의 物動計劃의 差跌로 因하여, 政府當局에서 建築抑制措置를 取한 일은 過去에도 例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

建設部에서는, 經濟長官會議決定事項으로, 지난해 5月 22日, 建築物의 建築抑制措置를 發表한 以來, 오늘날까지 繼續 建築을 規制하고 있으며, 紙上報導에 따르면, 今年 下半期에나 解除할 方針 이라고 한다.

도리켜 보건데, 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인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사이에, 우리나라 建築界는, 大單位 高層建物과 多樣化한 各種建築物의 建築이, 史上 類例없는 好況속에서, 一大建築Boom이 일어나, 鉄筋을 비롯한 시멘트 其他 重要原資材의 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하여, 價格이 昂騰하고 資材의 求得이 困難해지자, 經濟企劃院에서는, 2次經濟開發計劃事業과 官需用建築物의 計劃推進에 差跌이 올것을 憂慮하고, 1969年度에 서울地域에 限해서 不要不急 하고 奢侈性을 띤 民需用 建築物 抑制를 發表해서 建築界에 큰 衝擊을 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建築抑制措置를 取한 嚆矢이다.

그러나 이 措置는 法的根據가 없는 行政措置란 점을 들어, 當時 建築士協會가 對政府折衷을 벌인 結果, 얼마안가서 有耶無耶로 끝난 일이 있었다.

그 後, 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인 1975年度에는, 繼續的인 建築Boom으로, 建築資材代의 昂騰이 모든 物價上昇의 要因이 된다고 判斷하여, 政府에서는 서울, 釜山, 太邱, 光州等 大都市에 物價抑制策의 하나로, 高層

建物を奢侈性建物 및 不要不急한 民間建築物의 建築을 抑制措置 할 것 을 發表 하였다.

이번 措置는, 그동안 改正된 建築法 第44條 ②項에 根據를 둔 抑制措置였기 때문에, 相當期間 繼續된 結果, 社会全般에 걸쳐 景氣가 沈滯되어, 社会的으로 輿論이 沸騰해지자 政府에서는 “景氣의 浮揚”이란 名分으로 이를 解除 한바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建築抑制가 解除되면서부터는 民間建築活動이 活潑하게 再開 되었으며 所謂 “Apart”景氣가 일어나 機投Boom이 京鄕各地에 蔓延되어 住宅建設業者들은 Apart 建設에 熱을 올리는 데 餘念이 없는 데다가 政府에서 推進하는 農村住宅改良事業 및 聚落構造改善事業과 雪上加霜으로 裡里災害復旧事業 등이 겹쳐, Cement, 鉄筋, 内装材等 建設資材의 需要가 急増하여 絶對量이 不足함에 이르자, 1978年 5月22日에 建設部에서는 「建築活動의 急激한 増加에 따른 資材의 需給不均衡을 予防하고자」라는 目的아래 全国的으로 70坪以上の 住宅과 國家, 地方自治團體의 庁舎는 勿論 大規模 民間建築物의 大部分을 抑制措置 한다고 發表 했다가 70坪 住宅은 上流層의 住宅에 該當할뿐 아니라 機投만을 助長하는 Apart를 抑制對象에서 除外 한것은 不合理 하다는 批判이 藉藉 하자 建設部에서는 6月26日자로 이를 修正發表 한바 있거니와 그 修正된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오늘 現在까지 施行되고 있는 것이다.

即 抑制措置의 目的을 「建築活動의 急激한 増加에 따른 資材의 需給 不均衡을 予防하고 低所得層의 住宅과 工場 建築에 必要한 資材를 于先 供給할수 있도록 하고자」로 變更하고 內容도 70坪以上住宅을 40坪以上住宅으로 面積을 낮추고, 새로 45坪以上の Apart를 抑制對象建物에 넣기로 追加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抑制措置로 말미암아 建築業者들은 對象建物은 勿論, 對象除外建物까지 建築을 保留하게 되어 近一年間 建築活動이 沈滯에 빠진 結果 建築士는 業務가 中斷되어 休廢業하는 者가 続出하고 生業에 큰 威脅을 받게 되었다. 4月末現在의 統計에 依하면 서울市内 建築許可件數는 지난해 同期에 比해 48%로 激減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臨機應變의으로 抑制와 解除가 되풀이 되는 政策은 止揚하고 보다 根本的인 對策을 講求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長期的인 眼目으로 物動需給計劃을 正確하게 세워서, 이에따라 生産施設을 拡充하는 路 밖에 없을 것이다.

報導에 依하면 政府에서는 国内消費量을 確保하기 爲해 Cement의 輸出을 全面禁止한 結果 現在 남아 돌아가는 狀態라고 하므로, 建築士 協會는 關係當局과 折衷해서 하루라도 빨리 解除 하도록 努力 해야 할 것이다.

“建築審議制度 改善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서울, 釜山, 大邱等 大都市에서는 建築法 第44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都市美觀을 爲한 建築計劃을 審査하기 爲하여 建築委員會를 두고 있다.

建築委員會가 設置된 以來 數年동안, 建築士는 委員會가 決定 한대로 順應해 왔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建築士들의 不平不滿도 大端했었다. 그 主된 理由를 보면, 圖書審議에 있어 建築士의 作家의 創作力이 輕視당하고 委員의 主觀的 意見에 左右되어 設計圖書의 修正變更과 返戻가 頻繁하다는 點과, 建築에 關한 法令에 適當하게 設計된 것이라도 隨時로 變更되는 條例와 方針에 어긋난다는 理由로 返戻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審議用 提出圖書의 種類와 數量이 過多하다는 點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서울市의 경우는 提出書類의 種類가 14種이며, 提出圖書數量은 16部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作成하는데만 相當한 時間과 努力과 費用이 消費 되기 때문에, 建築士業務中에서 가장 큰 苦痛거리가 되어 있다.

이에 對한 對策으로서는, 「審査對象建物의 範圍를 大幅縮少하고, 「審査基準을 法の 테두리內에서 定하도록 하며, 「審査委員의 數를 5人~7人程度로 減縮하고, 「提出圖書의 種類도 最少限으로 줄이고, 「提出圖書의 數量도 3部程度로 줄이도록」하는 方向으로, 建築法 施行令에 明文化 하도록 改正을 推進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建築士報酬基準 現實化問題에 對하여”

現在 使用되고 있는 報酬基準은 設計監理料率表로 되어 設計費와 監理費가 한가지로 묶여 있고, 設計費와 監理費의 比率은 7:3으로 되어 있어 監理費는 設計費의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低廉하여 完全한 監理業務를 遂行하기 困難했으며 이것이 不實監理의 素因이 되어 왔었다. 그러므로 設計費와 監理費는 料率이 分離되어야 하며, 監理料率은 最少限度 設計料率의 80%以上으로 策定되어야 하고 이렇게 改正 하므로써 從來의 監理拋棄나 忌避性向에서 벗어나 名實兼全한 工事監理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料率表의 種別도 5種에서 7種으로 늘려야 하며 建築物의 種類도 더중 細分化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種別配定도 合理的으로 再調整 되어야 할 것이다.

實積會費算出基準表는 設計費Dumping의 要因이 되었고 現實工事費와 너무나 큰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改正해야 할 것이다.

“所得標準率引下問題에 對하여”

所得標準率이란 稅務當局에서 無記帳者에 對하여 推計

課稅 할 경우에 總收入 金額에서 必要經費를 뺀 것을 所得金額으로 하여 이를 總收入金額에 對한 百分率로 나타내는 것으로 現在 建築士業에 對한 所得標準率은 27% 이다.

이 所得標準率은 建築士協會創立當時에 比하면 많이 引下 되었으나 아직 까지도 實地所得에 比하여 過大 한 것이 다. 過去에는 稅務當局에서 認識하기를 建築士業이란 鉛筆과 종이만 있으면 다 되는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協會創立當時의 所得標準率은 無慮 52%나 되었던 것을 建築士協會가 稅務當局에 꾸준히 說得한 結果 52→47%→42 →37%→34%等과 같이 段階的으로 引下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建築士業務에 있어 主要한 經費를 들어 보면, 測量費, 地質檢査費, 構造計算費, 電氣, 衛生, 暖房, 冷房, 空氣調和設備等의 設備設計費, 透視圖製作費, 模型製作費等의 外注用役費와 人件費, 事務室賃借料 및 其他 經營費等 莫大한 經費가 所要되는 까닭에 所得標準率은 18% 정도 引下 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技術業務이면서도 科技硯에 登錄된 技術用役業체의 所得標準率이 20%인 것에 比하면 建築士에 對한 所得標準率은 마땅히 引下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建築士는 可能限 誠實히 稅務會計에 맞도록 記帳을 해서 推計課稅를 當하지 말고 根拠課稅로 實査를 받도록 各自가 努力 하는것 만이 最上의 方法일 것이다.

“二重職, 名義貸与 根絶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建築士業務中에서 恒常 物議를 일으키면서도 完全히 一掃되지 못 하고 있는 問題中의 하나이다.

그 理由는 陰性的이고 知能的이며 建築士가 陰으로 陽으로 介在 되어 있기 때문이다.

二重職이란 職場에 勤務하면서 建築士 事務所를 하는 者를 말 하며 過去에는 相當히 많았으나 요즘에는 많이 陶太 되었다. 그 代身 巧妙한 方法으로 이루어지는 名義貸与는 아직까지 行해지고 있으며 그 類形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形態가 있다. 卽,

1. 職場에 勤務하고 있는者가 말아서 行한 設計를 謝礼金을 받고 建築士自身이 設計한것 처럼 偽裝하여 圖書申告를 하는 名義貸与行爲.

2. 職場에 勤務하는者가 謝礼金을 받고 無免許者에 事務所를 經營하도록 名義를 貸与해주는 行爲.

3. “Engineering”이나 財閥級大會社를 設置場所로 하여 事務所開設登録을 하고 俸給을 받으면서 所屬된 会社業務에 屬한 設計를 한것을 建築士自身の 業務로 한것 처럼 偽裝하여 圖書申告를 하는 名義貸与行爲.

4. 建築士가 資本主에 雇傭當하여 資本主가 設置한 事務所에서 月給을 받으면서 建築士自身이 直營한것 처럼 偽裝하고 圖書申告를 하는 名義貸与行爲.

5. 從前의 規定에 依한 2級建築士가 業務限界範圍를 超過해서 行한 設計를 謝礼金을 받고 建築士自身이 한것 처럼 圖書申告를 하는 名義貸与行爲.

6. 單獨事務所開設建築士가 合同事務所가 아니면 할 수없는 設計를 行한 것을 謝礼金을 받고 合同事務所에서 한것처럼 偽裝하여 圖書申告를 하는 名義貸与行爲.

위와 같이 여러가지 形態로 巧妙하게 法網을 避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名義貸与行爲는 建築士業務의 穢的存在이며 建築士의 羞恥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對한 對策으로서는 오로지 建築士 自身の 良識과 人格 그리고 尊法精神에 달려 있거니와 어디까지나 違法行爲에는 틀림 없으니 만큼 建築士가 相互監視摘發하여 建築士協會나 關係當局에 告發 할 수 밖에 別다른 道理는 없을 것이다.

위의 論及한 몇가지 問題點 外에도 여러가지 問題가 남아 있으나 紙面關係로 너 以上 穿鑿할것을 省略 하거니와 앞으로 發生 될 可能性을 排除할수 없는 問題로서 前記한 「圖書申告制의 廢止」또는 「事前申告를 事後申告로 變更」하는 問題라든가 「大學教授는 學問研究上 建築設計業務를 可能토록해야 한다」라든가 하는 問題는 充分히 出現 될것아 予想 된다.

왜냐 하면 圖書申告制는 法理論上으로는 論理에 窮하는 바가 없지 않고 오로지 建築士協會에만 有利한 規定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또 「大學教授의 設計可能性」与否問題에 對하여도 過去에 文教部長官 某氏는 文教部 所管 建築設計는 可及의 大學教授에 委囑토록 하라는 指示를 部內關係公務員에게 내린 일이 있었을뿐 아니라, 日本에서는 大學教授들이 「建築設計實務를 하지않고서는 學生들에게 完全한 教育을 서킬수 없으며, 日進月步하는 建築工學을 實務面에 應用한다는 것은 學問研究上 絶對必要하다」라고 主張하기도 한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가 發生된것에 對備해서 建築士協會는 미리 미리 研究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國寶建設團 代表

建築作品 活動과 法的制約

安 仁 模

“建築士”編輯部에서 上記題目의 主題로 筆者에게 記述 依頼가 있어서 붓을 드는데 與題의 概念이 언뜻보기에 쉬이 잡힐것 같지만 實인즉 너무 包括的이어서 困惑을 느끼면서도 題名이 뜻하는 바 오늘날 우리들 建築士들이 當面한 問題로서 看過할 수 없는 建築士들의 苦衷이 서린 重要な 대목이 가로 걸쳐있기에 所見을 陳述코저 한다. 題名の 脈幹을 크게 나누어서 建築作品活動¹ + 法的制約²으로 2個區分할 수 있으며 1. 建築作品活動이란 그야말로 建築士法에서 規定할 登錄 建築들의 特權이며 또한 그에 따르는 責任이 묶인 課題라 할 수 있다.

위 句節에서 “建築”을 떼어버리면 단지 “作品活動”으로서 恰似 文,工芸部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創作을 비롯한 作品活動으로 더러는 그才質의 優秀함을 認定받아서 世上에 頭角을 나타내며 겹쳐서 그 作品活動의 結果이 훌륭한 것이면 作家의 名聲을 더 높여준다. 이 경우의 作品은 더러는 註文者가 있지만 大概의 경우는 別다른 註文者가 없더라도 作家 스스로가 対象을 設定하여서 專念으로 그 作品을 完成하여 展示 또는 其他方法으로 世上에 알리면 成功, 失敗間에 그 作品의 優劣審判은 關係世人의 眼目과 与論으로 歸結지어진다. 敷衍하면 特別한 註文者 없이도 (勿論 註文者가 있을 때도 있지만) 作品活動은 作家 스스로가 作品對象設定하여 天授의 才質과 不屈의 努力에서 얻은 熟練과 確固한 信念 및 着實한 實行으로 遂行할 수 있다. 例컨대 文芸部門의 詩, 小說, 戲曲, 音樂部分의 作曲, 演奏, 書畫部門에서 書芸, 繪畫, 彫刻部門에서 彫刻等等 다같이 共通의 与件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建築作品이란 建築의 實物完成까지 考慮한다면 거의 100%가 註文者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것이 實情이다. 따라서 建築作品의 所有權이란 註文者와의 契約에서 (創案된 設計圖畫의 所有權마저도 註文者의 歸屬으로 넘어가고 다만 創作著作權이란가를 얼마만큼 行使하는지도 難堪한 事情임이 現實이다.) 저절로 喪失된다. 다

시 말하면 建築作品이란 거의가 註文者가 있어야만 이루어지고, 建築作品은 그 作家에게서보면 所有權 또는 創作著作權마저도 “完全내것”(作家所屬)이랄수 없는 것이 嚴格한 意味에서의 分析이 되겠다. 그러나 創作 著作權은 國家에서 또는 社會에서 建築作家에게로 明確하게 歸屬시켜 주는 確實한 制度와 그 權利行使를 當然히 建築作家가 發揮할 수 있도록 保護하여 주어야할 것이다. 主題의 “建築作品活動과 法的制約”이란 이미 法的制約以前에 이렇듯 至難한 環境下에서 建築作品活動을 하여야 하는 宿命을 안고 있다. 그런데 建築作家란 다른分野의 作家와는 달리, 註文者없이 作家活動을 한다는것은 (建築實物의 實現이 作家의 經濟能力으로 自己住宅한채 좁은 이루어진다손치더라도 다시 繼續되는 作品活動을 한다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 우리들의 形便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惹起되는 問題는 作品對象을 求하는 일로서 註文者찾기, 또는 註文者誘引이라는 課題에 부닥친다. 따라서 建築士들 間에는, 註文者誘引을 둘러싸고, 必然적으로 競争이 誘發되며, 競争이 붙는 곳에는 自然히 競売現象이 나타남은 資本經濟構造社會에서는 當然한 狀況이겠지만, 問題는 建築士가, 지켜야할 倫理規約과 官認까지 얻은 建築士業務報酬率에 對한 違反行爲에 있다. 一般商界에서 가끔 빚어지는 物品投売와도 같이 이른바 “덤핑”을, 서로를 論難은 하면서도 작고 크고의 差異는 있을지 언정 아예, 한번도 報酬料率을 낮춰서, 한일은 없다고 斷言할 建築士가 果然 몇 사람이나 될까? 바로 이것이 建築士들간의 苦惱이며 建築士協會의 解決을 못보는 年來의 宿題로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말한바 建築作家가 他分野의 作家와는 特異한 性格을 띤 作品活動을 하여야 하기에, 그러한 作家의 業務限界와 作家의 資格을 法的으로 規制한 것이 建築士法 및 同施行令이며 建築士의 品位向上과 質的向上을 目標로 同法規는 公布實施되고 있으며, 建築士業務 곧 建築作品活動은 免許를

얼은 建築士가 事務所登録을 同法令節次에 따라 마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註文者 있어야 成立이 되는 그 対象作品은 많은 種類의 用途別로 分類되었지만 그 代表的인 것을 든다면 첫째 國民의 住居를 위한 容器로서, 다음은 國民의 事業活動(個人, 團體 및 國家에 이르기 까지)을 收容하는 容器로서의 建築일 것이다. 이와같은 目的을 지닌 것이기에 建築作品活動이란 그 対象作品 곧 “建築”의 質的向上과 危害防止 및 安寧秩序를 위하여 國家에서는 建築法을 爲始하여 여러가지의 關係法規(都市計画法 消防法等)를 制定公布하여 實施하고 있어서 作家自身 및 作品 対象物에서 安靑으로 法的制約을 받는 作品活動이 아닐 수 없다. 다시 強調하면 建築作品活動이란 免許를 얻은 建築士가 法的節次의 事務所登録을 마친 다음 每作品마다 모든 關係法規의 制約을 適用시키면서 遂行시키는 活動인 것이다. 建築作品活動이 지령 및 制約을 받는 相對法規은 建築法, 都市計画法 및 建築士法等으로 5, 16前까지는 우리의 것이 못되는 日政時 및 美軍政時를 거쳐서 日政時것을 踏襲適用하던 것을(그나마 建築士法은 日政時에도 없었음) 5, 16革命最高會議에서 史上 처음으로 純粹 우리의 것이 오늘에 있도록 制定公布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建築士法이어야 말로 大韓民國에서 “建築士”가 무엇이며 또 文字 그대로 建築에 關係되는 무슨 職種名인데 무엇을 하는 職種名稱인지를 모르던 時期에 新規制定公布된 法規로서,

오늘의 全國土에서 國家의 繁榮發展된 影像을 視覺感取할 수 있도록 하여준 母胎役割의 法令인 것이다. 그로 인하여 建築士가 생겨났고 오늘의 建築士協會가 저렇듯 세워져서 이 나라의 全建築士를 包容(事務所登録開設者)하여 會員으로 삼고 있음은 言할 필요 없겠다. 1963년 12월 16일은 建築士法最初制定公布한 날로 建築士라면 누구나 잊혀지지 않는 感激의 날인 것이다. 同法制定公布當時는 國家의 形便이 5, 16革命을 겪은지 3年째의 年末로서 國土의 外形모습이 4.19革命以後의 國論의 分裂, 學園騷亂으로 學風의 健全한 定着을 볼 수 없었고 政治不安定속에서의 經濟沈滯의 連續에서 오는 國民生計의 威脅속에서 허덕이던 5.16直前の 餘波를 안고있던 때여서 京鄕間에 建設의 貌襲이란 보잘것 없었던 때였다. 5.16以後 2年半 동안의 當時의 革命最高會議에서의 國家社會全般에 걸친 各分野의 基本法의 起草審議事業은 바깥에서 보는 國民의 눈으로서도 그 不退轉의 努力과 勇氣 그리고 오직 國家中興을 實現시키려는 誠實과, 슬기를 때때로의 經過發表된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 各種法律의 制定公布를 볼 적마다의 當時의 國民의 한 사람으로 느꼈던 感懷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1963년 12월 16일은 最高會議解體의 날로 記憶되는 때 바로 이날 公布된 法律中の 하나로 “建築士法”이 包含되어 있으니 建築作品活動에 關係되는 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난 一二年間에 同法 및 同施行令의 改正이 있었으나 最初公布當時의

同法原文은 別로 遜色이 없는 完璧한 것임을 外國人의 눈을 거쳐서 評判하는 말에서도 看取할 수 있었다. 回顧하면 當時의 建設部長·次官을 비롯하여 同部內, 關係公務員의 建築作品活動에 對한 先見之明과 誠實한 努力 및 슬기의 充滿이 同法起草에서 公布까지의 根幹을 이루었고, 民間인 우리들 分野에서, 大韓建築士協會의 初代會長이었던 故金舞河先生을 爲始한 斯界 및 學界의 先覺建築人 여러분들의 協贊 및 諮問에 應答奉仕한 官民相助 協力의 結實이며 또한 아무리 그러한 좋은 法律이라도 聰明한 立法機關과 英明한 指導者의 判斷 없이는 制定公布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오늘의 우리들이 推抑하는 大統領

이 바로 그때의 最高會議議長이셨음을 想起하면 그분의 英明은 建築作品活動이라는 分野에도 벌써, 이미 細心한 觀審속에 번쩍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萬一 그때(1963년 12월 12日)에 “建築士法”이 어떤 理由로 制定을 또는 審議를(不必要 또는 時期尚早 등의 理由) 廢棄 當하여 公布를 보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形便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아찔한 따름이다. 이와같이 建築士들에게도 歷史의 이따할 同法公布로부터 歲月은 흐르고 흘러서 今年 1979년 12월 16日이면 滿16週年의 年輪을 그린다. 同法에 依한 建築士가, 資格試驗等을 거쳐서 第1 회로 輩出되기는 1975년 초여름의 일이었다. 같은해의 10月下旬에 同法에 依한 “大韓建築士協會”가 發起를 거쳐 創立總會를 가졌었다. 今年 10月로 滿14年이 되겠다. 바꾸어 말하면 建築作品活動을 法的制約下에서 遂行하여온지 滿14年이 된다는 뜻이 된다. 위에서 말한바 法的制約이란 國家가 附與한 職名인 建築士의 使命으로 自身의 品位保全을 지닌 채로 建築作品을 하되 作品對象亦是 모든 關係法規를 適用시키는 制約下에서 活動한다는 말이 되겠다. 이같은 점으로 들어서는 制約에서 制裁로 連結되는 相關 函數觀念과 聽取語感의 切迫에서 오는 拘束感으로 그렇게 좋은 말은 못 된다. 또한 制約이란 語意內容이 制約과 制裁가 因緣이 안 닿는 것도 아니다. 制約을 疏忽하 相對하면 制裁의 輪迴를 感受하게 된다. 建築士의 行動處身은 살어름을 달고 거닐듯 操心이 앞서는 일이라 하겠다. 자칫 萎縮에 휘말려 意氣銷沈마져 招來하기도 쉽다.

이러한 現象은 近間 一, 二年사이의 建築士業務不誠實理由로 여러 同僚會員들의 業務停止措置의 經驗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것이 몇 個月이라는 短期의 것이라도 建築士業務가 各個人의 生業인 까닭에 그被害는 莫甚한 것이다. 近年과 같이 繼續되는 建築沈滯속에서 一한 建築士를 除外하고는 大概가 같은 事情인 줄 알지만 다른 收入源의 事業이라곤 都是, 모르는 建築들로서는 呼訴할 데 없는 딱한 事情이 아닐 수 없다.

“建築士”란 그 壯한 이름을 뽐낼 程度의 內容이 담기기도 하였을 터인즉 周邊의 社會氣風은 對建築士理念에 著

蕎하다. 作品受注에서부터 그 報酬率을 에누리式 去來로 要請하며 또 応한다. 患者가 病院에가서 診療料治療費를 어느만큼이나 에누리 하여보나? 因戚關係나 特殊한 知面 關係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없는에누리去來로 請求出額數 그대를 꼬박꼬박치루어야한다. 建築士들이 報酬率適用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弱勢에 놓여진 位置에 머물고 있다.

이 風土는 過去14年間 建築士自身들이 毅然한 姿勢를 取하지 못하고 建築作品으로서의 対象으로가야한 商品去來로서의 “일거리로 看做하고 建築設計乃至監理業務를 受任하는 行為에 서슴없이 加擔한 꼴이 아니겠는가?

社會에서는 依例히 建築設計料率은 한낱 誇張된 基準이며 얼마든지 建築士個人과의 接觸에서 깎아내릴 수 있다고 豪言할 수는 現況으로 물고 왔다. 建築士業務 報酬率을 固守한다는 것은 곧 建築士의 品位保全을 固守하는 것이다. 이것은 建築士個人個人이 한결같이 合心하여 建築士法에서 所期하는 建築士의 品位保全이 唯一의 “삶의 길”임을 銘心할 때 業務受任에서 報酬率을 論議適用함에 굳굳하게 原則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設使 業務受任을 못하더라도 모든 建築士들이 한사람 빠짐없이 그렇게만 한다면 畢竟은 저어醫師들이 病院에서 医療報酬를 제대로 받게 될 것이다. 勿論 報酬를 제대로 받는일은

그 만큼 作品活動에 精進하게 되고 作品다운 作品을 만드는데 精力을 쏟게 된다. 요즘같은 不況의 때가 아니라 數年前까지의 全盛期에서 그렇게만 하였더라면 京郷間의 그 모든 建築物들을 제값 報酬로 作品活動遂行하여 都市는 좀더 정성어린 建物들로 세워놓은 그 많은 建物이란 容納이 안되었을 것이다. 勿論 “집장사”가 세워놓은 집도 훌륭한 것이 없지는 않으나 大概의 경우 같은돈을 들이고도 稚拙스런 外貌가 자랑이나하듯 集團으로 櫛比하게 세워져서 동리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問題는 “집장사”들이 企圖하고 建設하는 그 建物들도 만듯이 建築士의 손을 거쳤을 터인데 그러한 꼴이고, 數三年內 各地域의 該當官公庁에 建築審議 또는 美觀審議機構를 두어서 많은 會員들이 어찌다가 美觀審議에 붙어야 할 建築業務受任 件으로 드나든 뒷이야기로 審議基準도 曖昧한 터에 數三次의 審議通過 아닌 反還을 당하고서 “무엇이 어떻게 그르다”는

說明도 없다면서 울분을 못참아하던 여러會員同志들의 얼굴이 明滅하면서 그뒤에도 저렇게 “집장사”들의 建築物이 세워졌으니 그것은 그것들 審議對象에서 除外되는 範疇에 드는 것으로 믿어서, 그만두고 그뒤의 오늘에는 會員의 便宜를 爲하여 協會의 理事 또는 會員도 上記審議機構의 委員으로 委嘱되었다 한다. 會員作品의 審議에서 會員들의 与論이 反映되는 便宜 있기를 바란다. 지난해는 우리 建築士들에게는 “建築士”法 最初公布當時에 버금가는 event를 맞았었다. 建築士法改正에 따른 施行令의 改正으

로서 그동안의 建設部의 違大한 對建築士行政計劃의 發現으로 보아서 그 間의 勞苦와 對建築士關心에 敬意를 表한다. 다만 時期가 建築不況期가 繼續되는데 同改正內容에 対処하여야할 建築士들이 許多한 難關을 생각하면, Shoching moment 가 아닐 수 없다. 同令의 建築士品位 向上이라는 前提(?)下에 一定規模以上の 事務室 面積確保, 補助員確保, 電話確保 等은 昨年の 暴騰한 物價에 뒤따른 事務室賃賃料가 오름대로오른 이때에 100萬 人口以上 都市에서의 3人以上 合同事務所에 60m²以上 單一 建物の 內로 限定한 規定에 따라서 具備設定하려니 建築沈滯期의 不況에다 雪上加霜의 苦役이 아닐 수 없다. 勿論 餘裕滿滿한 會員들은 오히려 快哉를 부를 좋은 契期랄 수 있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길을 걸어온 同人들인데 暫間 그렇게 생각하는 筆者가 오히려 그분들의 人格을 冒瀆하는 淺薄한 思慮가 아닌가 하고 금방 두려워진다. 어쨌든 建築士法 및 同令改正에 따른 免許証更新을 거의 끝마치었고 事務所登錄更新은 지난 4월 6일이 法定定期日로 많은會員들이 建築士事務所更新登錄은 하였으면서도 住宅은 꼭 合同事務所라야만 事務處理할 수 있는데도 合同事務所構成이 一齊히 進行 되었는지는 아직 筆者로서는 알길이 없다. 3人合同進行은 앞으로도 繼續될 것으로 予見하면서 여기 筆者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그동안 改正內容의 趣旨를 여러機會에 聽取하여오면서도, 理解는 하면서 首肯이 안가는 것은 住宅建築許可에서 3人連署의 責任으로만이 可能하도록 된것은 그보다 훨씬큰 他種類建物は(勿論 上位限界 適用도 있는 20層以上에 30,000m²以上 및 (特殊建築物로서 延面積 15,000m² 以上은) 亦是 合同事務所라야만 할수 있음도 있음의 事務所가 아니더라도 從前과 같이 可能하다. 比肩하면 住宅工事의 非違建築을 預防하는 方法으로서는 한方法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큰 他 種類建物は 單獨事務所에서도 할수 있다는의 但書에서 아무리 하여도 矛盾 같지만 하다. 筆者뿐만이 아닌 많은 會員들의 생각이 同一한것이기에 펼치는 것이고,

앞으로의 善処補完이 있든지, 筆者들 包含한 많은會員들의 생각하는 그矛盾이 根源의으로 틀림이 없다면 위의 住宅과 큰 建物の 転倒 適用의 責任連署制度는 改正 또는 住宅만의 連署責任制度는 再考矯正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20層未滿의 一定規模 以下の 建築 許可에서는 合同아닌 單獨事務所로도 좋고 住宅만은 合同事務所라야만 할수 있다는 말은 建築作家로서 그作品 対象의 重要性보다, 그 作品対象이 아닌 作品所有主의 다루기 힘든 것을 重要視한 듯한 것은 매우 理致에 어긋 난다고 본다. 建築物이 住宅은 住宅으로서는 重要的 것이나 아무리 하여도 큰 建物쪽이 작은 建物보다 災害가 發生하거나 其他建物の諸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 그 被害의 程度는 큰 쪽이 할수록 크기에 比例된 慘狀이 더할 것은 말할것도 없다. 勿論 그동안의 建築行政에서 住宅工事遵法施工

에 相當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事實이지만 一個 建築士가 自己 個人 作品에도 一一히 點檢 觀察한다는 것은 精誠 忍耐 時間이 必要한 것인데 合同 事務所 同僚 建築士의 作品마저 (서울의 경우는 本人 除外 二人) 一一히 같은 努力을 들이며, 같이 責任을 진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現實은 매우 어려우며 자칫 禍端 누르기에 흐르기 쉬우며 그 結果는 制裁의 覺悟를 하여야 하는 冷酷한 現實앞에서 몸서리칠 뿐이다. 이런 狀況 下에서는 建築의 本來 象徴인 “平和”와 “真美”일진대 作家의 姿勢도 法 앞의 畏怖보다, 創作 專念과 真美 造成에 平和스럽고 喜悅滿腔의 餘裕를 가질 수 있는 寡困氣가 絶對 必要한 것이기에 愚見을 펴 보았다. 國民으로서 遵法을 하여야 함은 猥褻되히 지어 “소크라테스”의 飲毒 服從의 心情을 간직 하면서 敢히 毒을 비쳐

보았다. 建築 作品 活動과 法的 制約을 새로운 覺悟로 다짐하면서 “建築士”의 至純한 마음가짐과 処身으로 作品 活動을 한다면 法的 制約은 오히려 轉禍爲福格으로 建築士의 品位는 勿論 權能마저 드높여줄것이며 建築士 分野는 그 作品對象 爭奪에서 讓步로 하면 장사꾼스런 바쁜 日程에서 解放되어 研究를 爲한 思索과 作品 專念에 時間을 바칠수 있는 藝術家로서의 “삶”과 또한 思索과 建築士가 建築作家 本來의 天職에 喜悅을 느끼며 일한 만치의 報酬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風土로 變化될 것이며 그러한 條件에서 다루어진 建築 作品은 珠玉과 같은 것들로서 아름답고, 쓸모 있고 哲學이 담긴 建築物들이 이나라 錦水 江山 곳곳에 調和 있게 세워져서 内外에 자랑할수 있고 後世에 驚異와 稱頌의 象徴으로 남겨지게 될것이다.

삼봉건축 대표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녹지의 황폐화,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염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建築士 報酬의 虚와实

崔 昌 奎

建築士의 報酬라는 問題는 $1+1=2$ 라는 初等数学의 으로 풀이할 性質의 것이 못된다. $1+1=0$ 도 되고 $1+1=10$ 도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報酬라고 한다면 그 對象이 될 業務가 있어야 겠고 그 業務가 職業的인 것이나 商業的인 것이나 또는 創意的인 것이나 規定되고 始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에 말한 規定의 結果 如何에 따라서 報酬가 될는지 代價가 될는지 謝禮가 되든지 間에 그 名稱을 設定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問題가 正式으로 規定화된 것은 그리 오랜일은 아니다. 約20年前 韓國建築家協會가 創作의 報酬表를 作成해서 會員間에 나마 適用토록 해야 겠다는 必要에 따라 世界先進國의 例를 調査해서(일본, 영국, 佛蘭西, 독일)等 當時의 우리나라의 物價나 社會의 狀況에 알맞게 作成해서 會員間에 協力해서 實踐하기로 約束한바 있다.

勿論 이 料率表는 建築創作 依頼者에게 받을 代價의 下限線을 規定한데 不過한 것이고 그 以上の 것은 無限으로 依頼主와의 相互同意에 依한다는 것은 常識적으로 되어있었고 當時政府의 該當官庁이나 또는 社會에 關聯된 어떠한 範疇도 制度도 없었든에 이었기 때문에 官이 發注하는 建築設計가 있을 때는 늘 말성이 일어나곤 한 것이었다. 例를 들면 某官庁에서 建築設計가 있어 家協會員이 그 依頼를 받으면 官이 一方的으로 根拠도 없이 얼마에 해라 하는 式이어서 家協이 自律적으로 制作한 報酬表를 提示하고 要求하면 반듯이 이 表를 누가 認定할 수 있는가? 라고 反問하고 認定하지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官이 提示한 金額도 各樣各色이어서 그것도 누가 認定할 수 있는거라고 反論하고 甚至於是 政府該當機關에서 그러한 規定하나도 制定 못하고 家協이 制定 한것도 認定못한다면 어찌할 것이냐는 등의 論難이 雙方에서 오가고 했다.

多幸히도 約10年前 建築士協이 創立되고는 그래도 主務部長官의 認可란 活字가 찍힌 建築士 報酬料率表가 制定되어 이 問題가 若干의 整理段階에 오른듯 했다.

허나 이 料率表도 數次의 改正을 거쳤고 또 會員들의 競争으로 因한 “덤핑”과 官이나 團體의 獨善的인 見解로서 그대로 實踐은 되지 못했으면서도 그래도 어느 程度의 輪廓은 잡혀갔고 近者에 와서는 主務官署의 告示로 되어 이를 違反하면 違法이라는 線까지 왔다는 것은 不幸中 多幸한 일이라 해야 하겠다.

現즉 告示된 이 料率表도 100% 實行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고 그 理由는 許多하겠지만, 原初的으로 建築創作設計라는 業務의 本質이 너무도 多樣復難하다는 데에 起因함이 큰 것이고 會員간의 情実이나 競争또는 官이나 企業體의 獨善이나 沒理解等等 數 많은 狀況속에서 現行報酬料率의 定立이 잘 안되는 데에서 몇가지 項目別로 그 問題點을 찾아 볼까 하는 것이다.

첫째, 建築設計를 創作으로 認定하느냐?

序頭에 말 한바와 같이 建築設計行爲를 行政業務로 取扱한다면 當然히 報酬라고 해야 겠고, 建築設計가 商행위라고 한다면 마땅히 代金이라고 稱해야 겠고 創作活動이라고 한다면 謝禮라고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에 現行報酬料率 告示表는 그 內容이 模糊하다, 創作이라고 認定하는 것도 같고 行政業務로 取扱 받는 것도 같은 印象이다. 이런 模糊한 點이 即 問題를 일으키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만 같다.

이 料率表를 作成할 때에는 (前記 家協表가 基幹이 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努力과 調査와 意見과 時間이 消費되어서 또 複雑한 節次와 交渉을 거쳐서 告示에 까지 이르게 된것도 事實이지만 이런 雜産의 玉童子를 現社會가 認定하기에 인색한데서 問題가 되고 있다.

勿論 建築設計自体가 複雑하다는데 起因도 되겠지만 建築士의 日當이나 事務室의 運營費나 消耗品의 多寡等の 原面計算을 들먹이든지 圖面枚數나 附帶書類의 種類나 部數云云한다는지 總工事費의 內訳에 設備機械類의 價格을 除減한다든지 特히 計劃設計와 基本設計의 限界의 不透明이라든지 監理나 許可手續의 包含 与否等等的數 많은 複雑한 問題들을 結附시켜서 問題를 더욱 難解하게 하는 따

위나 또는 우리 經濟法規에 創作 隨意契約法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入札을 시킨다든지 如何間 創作이라고 認識 못하는에서 일어나는 副作用들이 바로 이 問題를 社會問題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萬一創作業務라고 認定한다면 上記諸問題들은 自動적으로 解消될 것인데도 不拘하고 創作이란 概念조차도 갖지 못하는 데서 入札이나 下限線이니 行政代理니 等等의 問題를 提起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創作이라고 認定만 한다면은 函面枚數나 附帶書類의 部數나 하물며 入札 따위는 생각조차 할 必要가 없을 것이고, 業務의 原価 計算이니 獨寡占云云 등이 있을수가 없어질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웃 日本에서 國會議員 몇몇이 建築設計가 獨寡占行爲라고 들먹인지 오래되고 이를 法制化 하려고 長期間 努力했지만 그 結果를 못 본 것은 日本社會가 建築設計 행위를 創作으로 認定하고 있다는 證據이기도 하며 부럽기만한 일이라 하겠다. 繪畫나 彫刻이나 文學에서 入札이나 料率이 있었는가 그림의 크기로 價格을 定한 일이 있었는가 小説이나 詩가 그 長短으로 價值가 決定된 일이 이 地球上 어느 나라에 있었는가? 反問하고 싶은 心境이다.

우리는 嚴然히 該當 主務長官의 告示로 된 料率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會員自身들이나 社會가 이를 지키지 않는 데는 어떤 理由가 있을까?

둘째, 會員自身の 姿勢와 専門性과 誠實性은 어떤가? 우리는 自省 없이는 이 問題를 解決할 方途가 없다. 우리 會員들이 設計에 臨하는 姿勢나 態度다, 専門職으로서의 誠實性과 否가 어떤 時間이 지난後 社會나 依頼主에게서 信賴感과 尊敬과 權威를 認定 받을때 料率表 따위는 問題가 안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社會는 한마디로 權威意識에 찬 社會라고도 할수 있다. 權威란 그部門에 있어서는 追從을 不許하는 程度까지는 불가드라도 情力과 誠實度 如何에 따라서는 補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會員들의 零細性에서 社會의 經濟意識構造에 따라 競争이 따라오고 競争에 따라 “넙핑”이 따르고 “넙핑”에 따라 不誠實이 오고, 不信이 오고, 이어서 멸시라는 図式은 人間共通의 常道이다.

이러한 社會의 鉄則을 打開했을때는 信賴와 尊敬과 權威가 따른다는 것과 이때 下限線을 規定한 料率表는 問題外가 되고 依頼主와의 相互合意에 따라 報酬는 代價는 謝禮는 그各自에 拘得없이 自己의 權益은 옹호될 것은 明若觀火 한 일이 되겠으나 여기에 時間과 過程과 手段이 必要되는 것이므로 短時日間의 掘速으로 不可能한 難事中的의 難事인 것이다.

셋째, 우리에게 著作權法은 어떤 作用을 하는 것인가? 우리 社會에 著作權法이 嚴存하고 있다. 卽 建築設計行爲가 創作이라고 前提하고 이 법은 우리에게 比重있게 作用하고 있는 것인데 事實上 우리는 그 內容을 잘 모르고 있다.

建國以後 日帝時의 著作權法이 存続해 오다가 近者 文公部에서 改正 作業을 해서 定立시켜져 있다. 무릇 創作業務에 있어서 그 作品의 著作權은 永久히 作家에게 있다는 骨字의 법이다.

廣義의 著作權이란 그 作家의 人格權도 包含되기 때문에 買賣나 讓渡를 하고 싶어도 人格까지 買賣나 讓渡 할 수 없는에서 永久히 作家에게 있다는 것이고 依頼主나 要求者에겐 一回에 限한 使用權을 換価한다는 것이지 著作權마저 준것은 아니라는 것이 明記되어 있다. 바로 이 著作權法의 發動은 우리의 創作設計의 報酬와도 關聯시켜야 마땅한 것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建築設計自体가 다른 文化藝術의 作品들과 그 性格內容이 若干判異한 것은 事實이나 創作이라는 大意에는 變함이 없는限 이 법의 該當條項이 告示된 報酬料率表에 明記되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建築設計가 創作業務라는 것을 確認시키는 方法이고 確証시키므로써 本問題의 難解를 解消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것들여서 懸賞設計의 境偶에는 絶對的인 保護를 받을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의 立法趣旨나 精神은 創作을 振作시키고 保護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設計의 附帶業務를 一括시켜야만 하는가?

前述한바와 같이 建築設計에는 基本設計 計劃, 本設計의 三段階의 過程이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附帶的인 業務 또한 無觀 못할 程度로 複雜하고, 多樣하다, 卽 監理 問題 許可代行問題 工事費結算問題, 各種工學的인 計算問題 등 難解의 問題들이 設計와 同一視되고 一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에서, 外國의 例를 들 必要도 없거니와, 現社會가 專門分業化되어가고 있는 此際에 唯獨建築設計만이 萬能의 業務가 될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附帶的인 業務들을 區別해서 該當事項別 料率을 定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特히 監理에 對한 問題는 더욱 区分되어야 할 것이며 監理業務限界의 確立이 先決되어야만 하겠다. 社會는 監理와 監督을 混同하고 있다. 이에 對한 確固한 限界가 없으므로 해서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각己立場에 따라 見解가 달라지므로 해서 더욱 混線은 자야하고 있다.

이 問題야 말로 早速히 設計業務와 分離시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許可代行問題 亦是 그러하다. 卽 現行의 許可書類는 建築主名義로 提出케 되는 것을 建築主가 代行하는데 設計報酬에 一括시키므로써 許可는 當然히 建築主가 매는 것으로 常識化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行政代官에 屬하는 業務이지 創作業務와는 關係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先進外國의 例를 들 必要조차 없는 性質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官, 民의 設計報酬에 대한 意識은?

官이나 社會는 自己들의 立場에서 獨善的이고 一方的인 境遇가 많다 假令 確固한 告示料率이 發表된 直後(아마도 78年度)某地方에서 일어난 陳情騷動을 記憶하고 있다. 社會의 모든 物價가 上昇하고 있는때에 設計 料率이 引上되자 陳情沙汰가 일어난 것은 웬일인가, 이 裏面에는 理由나 要因은 많겠지만, 直接的으로는 建築士란 規定된 돈만 주면 自己들이 해달라는데로 해주는, 萬能의 專門職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 것이다. 이때까지 적은 金額으로도 해주든 것을 一朝에 引上된 料率을 固執해서 “덤핑”을 안하니 陳情騷動이 일어 날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무릇 官主導型의 우리 社會에서는 官이 制定한 規定이나 率先實行할때 비로서 民은 自動적으로 따라갈 줄 믿는 것이다. 더우기 民은 目前의 利에만 置重하고 時間이 經過後의 實質的인 利에는 어두운 傾向이 있다. 量과 質, 過程과 結果, 手段과 方法 書式과 節次等의 複合的인 事件의 判別한 時間과 余裕가 없는 社會實情에서 理解는 가지만 窮局의 으로는 損害를 본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같다.

여섯째, 總工事費의 算定은 누가 하는가? 設計報酬料率의 基本은 總工事費額에 依하여 이 總工事費額의 100分率을 곱하면 報酬額이 算出된다. 따라서 總工事費額의 多寡는 即 報酬額에 直結되는데 大概의 境遇 工事子算이 決定되고 設計가 着手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予想額이고 設計 完了後 建築士가 그 設計圖에 依해 積算한 最終額이 實質的인 總工事費가 되는 것이 當然한데 우리 設計도 完了되기 前에 設計契約書에 予想工事費 總額이나 料率 100分率을 곱해서 金額을 明記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으나 原則적으로 본다면 契約書에도 百分率로 明記하고 總工事費가 算定된 다음 金額을 清算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先進外國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建築士와 建築主間에 問題가 되는 것은 設計契約書에 予想金額을 記入하고 設計完了後 總工事費가 決定되면 計算이 맞지 않은 境遇가 許多하고 또는 途中에 變更이나 追加가 있을 때는 問題가 이러나게 마련이다. 萬一 百分率로만 한다면 그런 것에 拘碍됨이 없이 整算할수가 있다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現行 우리 社會에서는 建築主의 橫暴라고나 할까 總工事費의 定義는 一方的으로 내리는 傾向인데 凡工事施工落札 金額을 總工事費라고 한다면 自體計劃予算을 總工事費라고 한다면 하는 여지를 써서 若干이라도 設計報酬를 積계하려고 가진 手段을 다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甚至於是 設備機械나 器具等은 既存品을 設計에 反映하는 것이니 그 價金을 除한것을 總工事費라고 한다면 하는 式의 行爲들이다. 이 글의 題目이 “建築士 報酬의 虛와 實”이라면 當然히 總工事費(報酬의 計算基準인)의 定義부터 正確히 해

야 한다는 點이 되겠다. 이것은 反問의 余地없이 總工事費란 「設計者가 設計된 圖書에 依據 算出한 總工事費를 말한다」 余他의 어떤 理由도 이 定義에 對抗할수 없다는 認識이 앞서야만 할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現行料率은 妥當한가?

上協에서 通用되고 있는 建築士 業務 및 報酬基準은 1966年 7월에 建設部長官 認可 指令 444~1-5號로 發表된 以來 1968年11월에 一次正改, 1971年 1월에 2次改正이 되었고 1975年 12월에 三次改正이 되어 建設部 告示 第197號로 發效되어 現行에 이르고 있다. 그改正 內容을 보면 建築種別 工事費總額別로 百分率로 作成되어 있고 改正時마다 若干의 係數의 變動과 業務区分의 變動이 若干式 있을 뿐이다. 或者는 現行報酬率이 높다고 한다.(大概의 境遇 官이나 建築主側이지만) 即 設計內容의 水準이 낮다는 것과 創意的인 面이 적다는 點을 그 理由로 들고 있다.

그들에 反問하거나 設計內容의 水準이나 創意 度의 比較對象은 무엇이며 어느나라냐고 萬一 그 對象이 國際의 水準이고 創意度가 先進國이라면 다시 反問 하거나 國際의 先進國들의 報酬料率이 몇%인가를 알고 싶고 느냐고 묻고 싶다.

一言하고 現行料率은 우리나라의 狀況과 事件에서 우리 建築士들의 能力과 質面에서 보아도 낮다는 것을 斷言하고 싶다. 社會의 物價나 人件費나 消耗品이나 稅率等を 考慮할 때, 또는 建築主의 橫暴나 獨善을 勘案할때 物質的 經濟的 精神的 面에서 當하고 있는 點을 생각할때 現行料率이 높다고 생각될 何等의 明分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구매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建築士들이 낮은 料率마저도 “덤핑”하고 있지 않느냐는 點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덤핑”과 料率의 高低를 結付시킨다면 原價計算을 해서 現實化시키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萬一 設計料率을 現實化한다면 問題는 커질 것이다. 即 建築文化나 建設産業이나 또는 建築이나 建設에 關聯되는 모든 部門이 滯滯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先進各國들이 이미 歷史의 經驗한바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結論, 어떻게 하여야 옳은 것일까?

한마디로 現行 料率을 大幅改正해야 한다. 即 建物種別의 区分을 整備하고 綜合建築이란 項을 追加시키고(現代의 大規模의 建築物는 多目的이란 名目下에 各種의 機能이 包含되어 가므로서) 가장 高率을 適用해야 하며 創作이라는 點에 比重 무게를 두어야 하며 附帶的인 書類나 行政節次 等은 別途로 分區해서 現實化시키고 一括해서 設計로 看做해서는 안되겠다.

即 構造計算, 積算 示方, 監理, 各種計算, 書類 許可節次代行等은 種別로 現實에 맞게 그 時 그 時 社會事件에 適應케 하는 것 이고 오직 創作的인 面에 關한 不可侵

해야 한다고 생각 된다.

그렇게 하므로써 窮極的으로 建築主가 水準과 質이 높은 建物を 얻을수가 있으니 利益이 될것이고 國家나 社會的으로 建築文化나 建設産業의 隆興을 期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建築士는 設計를 天職으로 알고 自己의 專攻한 知識과 能力과 誠意를 總力投球해서 過競争 없이 試實히 創作業務에 充實할때 만이 우리 權威나 専門

職으로서의 矜持를 되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現今 變두리에서 우리 會員들이 設計報酬를 建坪당 얼마라는 式의 말이 流布되어 市民(建築主)들도 建築設計費란 坪당으로 하는 것인줄 알고 있다면 이것은 남을 나무래기 前に 自身들이 먼저 自覺 自肅해야 할일 줄 안다.

신진건축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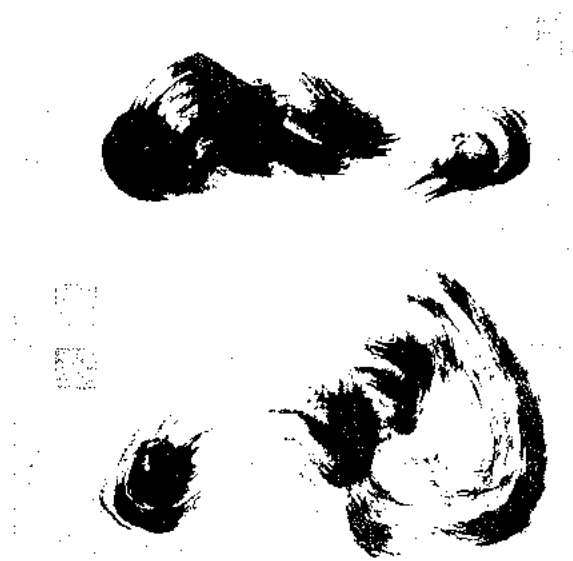
第二回

墨象展

心象 朴商浩

略 歷

- 三十三年 釜山 生
- 서울大學校 建築科 卒
- 韓國建築家協會 正會員
- 大韓建築士協會 正會員
- 韓國엔지니어클럽 正會員
- 石林愛石會 會長
- 國際라이온스크럽 309-A 地區(연남) 正會員
- 弘益工業專門大學 講師
- 石林建築造景研究所 代表
- 第一回 墨象展 七七年九月(서울喜画廊)
- 第二回 墨象展 七九年六月(서울그로리치画廊)



1979. 6. 12 - 18 (그로리치画廊)

地方會員의 特殊事情

閔 榮 基

(1) 地方會員의 問題點

地方에서는 亦是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機會가 적기 때문에 藝術的 技術적으로 鈍化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事實이고 따라서 比較的 作品으로서의 競爭心이 적음은 勿論 훌륭한 作品을 낼 수 있는 素材即 建築物이 적기 때문에 都市會員들에 比하여 뒤떨어지는 傾向이 있으며 또한 建築主의 理解不足으로 作品으로서의 받아들여지는 立場이 決如되어 있는 것은 發展을 阻害하는 큰 問題點이 아닐 수 없고 施工者 또한 모든 具備工具 或은 技術決如로 建築士의 作品을 現實化시키는데 많은 애로事項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問題點의 하나이다.

어느곳이나 마찬가지로 싼것만을 擇하는 시골의 建築主가 怨望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시골建築士라고하여 모두 無能하거나 怠慢하거나 現實逃避의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障害要因과 싸워가며 勞力하는 情熱과 誠意에 聲援을 보내주어야 되리라 본다. 그런가하면 素朴한 시골의 胸내음 맡는 人情은 共濟會 或은 建睦會 등으로 團結力을 보여주며 '나'만을 地上 最大의 為主로 하는 都市人의 模範이 될 때도 있음은 높이 評價되어야 될 것 같다.

(二) 都市會員의 問題點

本項은 都市建築士들로 因한 地方建築士들에 미치는 問題點을 生覺해 보았다.

그러나 모든 條件이 갖추어진 都市建築士들의 훌륭한 作品을 待할때 우리會員들이 모든建設의 役軍이 되고 있다는 現實이 때때로 感謝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自負心과 矜持를 갖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贅辭를 보내고 싶다.

모든建築士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都市建築士一部는 尤모한 方法으로 때때로 地方事件을 取級하여 建築主로하여금 地方會員에 對한 不信感과 會員間에 友愛以前에 증오감을 갖도록 함은 殊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一部會員은 虛勢와 自慢心을 가지고 地方會員을 蔑視하는 態度가 종종 나타날 때가 있는데 좀더 知性人으로서의 良識을 가지고 是正함이 尙치않을까 生覺한다.

(三) 協會運營面에서 본 問題點

地方에서는 그런대로 本會를 믿고있을 때가 많고 무엇인가 依存하는 代辦者로서의 훌륭한 團體가 되기를 바라고 믿고있다. 그동안 10余年間에 우리協會는 長足の 發展도 하였고 歷代 任員들의 勞苦로 지금만큼 훌륭히 키워준대

는 感謝하지만 언제나 一方的으로 會費와 負擔金만을 꼬박꼬박낼뿐 우리에게 報答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會員들이 反問할때가 있는것은 슬픈일인것 같다. 때로는 지나친 간섭의 壓力인듯하는가하면 事務處職員들의 不親切과 安逸한 姿勢放縱한 態度는 한번쯤 反省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生覺한다.

그間에 우리會員間에는 1級이다 2級이다하는 問題로 엄청난試鍊도 겪었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인가 同僚會員으로서 감싸줄수있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反發心과 相互不信感을 씻고 한마음 한뜻으로 精進할 때가 오지않았나 生覺된다.

그렇게함으로서 하나하나 問題點을 줄여가는 眞實한 人情이 오고가는 時間이 오기를 眞心으로 빌고싶다. 會計執行의 問題點 등으로 因한 많은 問題는 別로 瑕疵가 없는 地方自治制로 還元이 되어야겠고 定款改定이나 予算等은 建設部의 報告程度로 끝맺는 定款改定이어야 할 것이며指導監督을 徹底하여 政府가 試圖하는 모든 施策에 따르도록 強力히 推進함이 協會發展을 爲해서 尙치않을까 한다.

各支部는 그地方의 特性을 살려 活일이 많고 他地方보다 일을 잘하고자 한다. 그러나 現在의 制度下 予算方法으로는 自己地方의 特性도 없는 各道의 맛과 멋을 잃은 個性 없는 運籌으로 많은 問題點이 있는것이다. 또한 모든 行사가 서울을 主로 開催됨으로 交流와 對話의 廣場이 적은 듯하니 이를 是正해봄도 하나의 方法이 아닐까 한다.

(四) 行政上의 問題點

都市의 建築行政에 있어서는 建築專門職의 公務員이 모든 書類와 問題點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대로 建築關係法今에 依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나 地方은 行政職이 다루고 있기에 전혀 다른 見解로 因한 답답한때가 많다고 들린다.

이런점은 建築의 發展을 爲하여도 어떠한 解決策이 要됨되며 建築法 및 諸關係法規가 大都市를 中心으로한 法的措置로 因하여 地方으로서는 도저히 理解가, 가지 않는 경우를 이따금보는데 이또한 重大한 問題點이 있는것 같다. 앞으로 地方의 特殊性을 살려낼 수 있는 委任 또는 特權條項을 挿入하는 法的改定이 必要하리라 生覺한다.

쓰다보니 題目과 다른 內容이 쓰여진듯하나 많은 理解바라고 끝으로 本會는 都市와 地方의 紐帶強化와 相互交流討論의 機會를 자주 가지게함은 勿論 모든行事때는 本會任員들의 參席으로 보다 渾渾한 모임體로 만들도록 勞力하고 地方의 諸問題點 疑問點을 爲主로하여 處理하여주는 따뜻한 마음씀씀이를 갖어주기 바란다.

민 영기 건축설계사무소

地方 建築士가 갖이는 問題点과 解決對策

尹 榮 在

同一한 資格을 갖고同一한 業務를 遂行하는 建築士에게 있어서 唯獨히 地方建築士만이 갖는 問題点이 있다고 하면 얼핏 疑訝하게 生覺 하기 쉬울 것이다. 그것이 正常인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遺憾스럽게도 많은 問題가 現實的으로 地方建築士를 괴롭히고 있고 또 將來를 危脅할 憂慮마저 없지 않은 實情이다. 이러한 問題点들이 어떠한 것이며 또 왜 發生하게되며 結果로서 어떠한 現象을 超來하게 될것인가 또 預防과 解決方案은 어떠한것이 있겠는가 等等에 對하여 言及해 보기로 한다. 數多한 問題点中에서 直接的이고 致命的인 影響을 주는 한두가지 問題点만 指摘해 본다. 첫째는 地方에서 發生되는 일감(設計件)이 大都市 (主로 서울)로

流出 되는 問題다. 얼핏 生覺에는 地方建築士의 業務量이 多少 減小 되겠지 하는 程度에서 끝일것이다. 事實上 業務量의 減小만이라면 여기서 言及할 資料가 되지 않겠으나 놀랄만큼 무서운 癌의要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도 傍觀할수 없는 立場에 서게 될것이다. 大都市로의

流出에 對하여 其原因과 動機 經緯等을 分析해 본다면 첫째 自己技術의 所重함을 認識 못하고 無價值하게 賃값으로 싸구려를 부르는 1部의 沒知覺한 大都市 建築士들의 容怒 못할 行爲로 인한것. 둘째로는 設計 Broker들과 半打作하는 名義貸與行爲를 本業인양 도장만 눌러대는 寒心스럽고 가련한 建築士들의 不法行爲로 말미암은 流出 셋째는 地方建築主의 虛榮心으로 인한것 即 大都市에 가서 設計한것을 자랑삼는 無分別한 優越感이 流出의 原因이 되는경우 넷째는 建築物의 發生地는 地方이지만,

建築主의 住居地가 大都市에 있는 경우로서 이는 當然한 流出로 言及의 對象은 아니다.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은 몇가지 境遇로 因하여 流出되는 件數는 地方別로 差異는 있겠으나 5% 乃至 10% 程度로 볼수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모두가 不正한 方法으로 流出 된것은 아니다. 其中 80%以上이 指摘의 對象이 된다고 본다. 첫

째 둘째, 셋째에 該當되는 流出이 地方建築士에게 더 나아가서는 國家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무서운 結果를 超來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多壳薄利하는 路店商人처럼 賃값으로 Dumping하는 行爲가 行爲者自身の 無能함과 無價值한 技術提供의 代價로 받는 報酬만큼 低廉한 待遇를 받는것이 妥當하다고 自認하는 態度를 갖는것 만으로 끝난다면 또 모르겠으나 大都市에서 地方各處를 對象으로 하여 싸구려를 물려대는 形便이고 보면 地方建築士도 本意 아니게 어쩔수 없이 이에 따르지 않고는 견디어 나갈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總和團結로 業務秩序를 確立하여 建築士業務의 正常化를 위하여 萬難을 무릎쓰고 七顛八起하여 組織한 相助會나 共濟會는 破散이 不可避하게 될것임을 너무도 明明白白한 事實이다.

바로 이는 建築士의 業務秩序는 勿論이고 社會秩序를 紊亂시키는 行爲로서 庶政刷新에 逆行하는 行爲임은 누구도 否認못할 事實일 것이다. 이와같은 秩序의 紊亂은 建築物를 低質化하고 建築士의 發展을 阻止하게 되는 더 큰 副作用을 낳게 한다는것이 바로 輕視 못할 癌의要素이다. 低廉한 報酬를 받고 業을 行하는 것이 얼핏 生覺하기에는 建築主에게 經濟的負擔을 덜어주어 큰 도움이나 주는것 같이 誤解 하기가 쉽다. 그러나 實에 있어서는 建築主個人에게 뿐만 아니라 國家의으로도 損失이 莫人한 結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自己技術의 所重함을 認識 못하고 賃값으로 行事 하는 者가 어찌 他人의 建築物의 所重함을 認定할수 있겠느냐 하는 點도 있으려니와 그의 技術의能力이라든가 資質도 비히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을 程度라고 보면 그의 設計가 果然 構造的인 면이라든가 機能的인 면에서 또는 造形的인 면에서 어느 程度의 合理性을 갖었겠느냐 하는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싼것이 비지떡이다」란 말은 이런境遇에 匹敵되는 比喻語가 아닌가 싶다. 分別 없는 建築主들은 값싼 비지떡만을 찾을 것이니 결국 비지떡설계가 날개 치게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問題는 더욱 深刻해 진다. 建築物의

質을 向上發展 시키기 爲해 온갖 努力과 研究와 誠心을 다 하여야 할뿐더러 分別없는 建築主를 啓蒙 指導 說得 하여 바른 建築을 할수 있도록 引導 하여야할 重任을 忘却 하고 도리어 建築主나 國家社會에 累를 끼치는 存在가 建築士中에 있다면 이어져 寒心之事가 아닐수 있겠는가 自己技術의 所重함을 認識 못하고 自己에게 附課된 義務를 認識 못하는 寒心스럽고 가련한 建築士中에 “나”는 包含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쯤 反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둘째의 境遇인 設計Broker와 半打作하는 名義貸與行爲는 또 어떠한가? 이러한 不法行爲에比하면 “비저택설계”는 그래도 좀 낫은 便이다. 이것은 建築士라기 보다는 自動捺印機械라고 命名하고 싶은 心情이다. 도장만 눌러주고 不勞所得 建築士 참 어처구니 없다고나 할까 短文한 本人으로서 實感있게 表現할 方法이 없어 遺憾千萬이다. 資格有無에 關係없이 비슷하게 그리기만 했으면 눌러주고 눌러주면 許可廻理가 되고 한다면 資格制度가 무엇에 必要 하겠는가? 이러한 行爲者에 對하여는 關係當局으로 부터도 斷乎한 措置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의 反省으로 自動捺印機가 되지 않기 爲해서라도 眞實된 建築士의 姿勢로 돌아가 建築文化發展에 寄与토록 해야 할것이다.

셋째는 1部이기는 하지만 地方建築主들의 無分別한 虛榮心으로 말미암은 大都市로의 流出 現狀인데 實質적으로 眞實하고 有能한 建築士를 찾아서 좋은 作品의 設計를 얻은 結果라면 多幸이겠고 또한 勳獎도 할수 있겠다. 그러나 十中八九는 어떠한 設計인가. 속된말로 헛다리 짚은 格이라 할까 怪異한 제멋대로의 設計를 하여 받고도 滿足해 하는 建築主가 가 없을 때도 없지 않다. 우리 建築士는 이러한 現實을 傍觀視 할것이 아니라 然과 誠意를 다하여 指導 啓蒙 함으로서 無分別한 建築主들에게 對한 바른 認識을 갖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附課된 任務일 것이다.

以上에서 分析한 結果로서 어렵기는 하지만 解決 對策은 다음의 몇가지 方法으로 歸結 지을수 있지 않을까 生覺 한다. 첫째 國家로 부터 우리 建築士에게 附課된 任務가 얼마나 重且大한 것인가를 恒常 認識하며 建築家라고 하는 矜持를 가지고 自己位置를 恒常 確認하면서 조심스럽게 行動하는 것을 建築士의 生活信條로 할것이며 둘째로는 自己가 받는 設計報酬는 他人으로 부터 評價되는 技術能力의 尺度임을 銘心 하려면 低廉한 報酬로 業務行爲를 할때는 自己의 無能을 自認하는 結果가 되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것이다. 셋째로는 國內에서 어느分野

보다도 資格基準이 가장 높은것이 建築士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처럼 어려운 資格을 獲得한 建築士로서의 自己의 位置를 遜色 없이 지켜가고 있는지를 再三 再四 確認하면서 業務遂行에 慎重을 期한다. 이만 하면 우리에게 癌的要素인 Dumping 行爲나 名義貸與 行爲等の 問題點은 充分히 鮮決되리라 믿어 疑心치 않는다. 둘째의 問題點은 事務所의 經營難으로 이는 補助 技士의 確保人員을 制度化 한데서 더욱 甚히 겪어야 하는 現實이기에 이에 對하여 言及해 보기로 한다. 地方에 있는 建築士事務所의 大部分이 収支不均衡으로 인한 經營上의 많은 困難을 겪지 않을수 없는 實情이다. 設計補助技士의 確保人員을 義務化 한때는 나름대로의 理由와 合理的인 趣旨가 있기는 하겠으나 어떠한 事業에 있어서나 形便과 事情에 따라 人員이 調整 되어 가는것이 純理요 正常이 아닐까. “누울 자리보고 밭 뽕으라”라는 속담을 한번쯤 생각 할일이 아닌가 한다. 더욱 이 同等한 水準의 補助技士를 採用할 境遇 大都市보다 地方小都市로 갈수록 많은 給料를 支拂하여야 되는 것도 또한 惡條件의 하나이다. 같은 報酬라면 大都市로 進出한다는 것이 그 理由일 것이다. “일감”은 적은데다 給料는 높게 支拂해야 되니 이것이 雪上加霜格이 아닌가. 이같은 問題點이 없다면 좀 더라도 矛盾이 아닐까? 왜냐하면 建築士가 아니면 할수 없다 라고 法에서 規定한 業務를 遂行 함에 있어 반드시 設計補助士가 있어야 한다면 補助技士와 合作을 하여야 設計圖面의 法的 效果가 있다는 것인지 理解하기 쉽게 難할뿐더러 主客이 顛倒된 格이 이 날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設計作品의 低質化와 設計報酬의 Dumping 行爲를 誘發할 可能性도 없지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業務量이 적은 小都市의 事務所일 경우 經費支出을 念慮하는 나머지 設計作品이여 어찌되든 關心없이 “일감”을 찾아 東奔西走하는 建築士의 事務態度보다는 적은 業務量이나마 經費를 節減하고 建築士 自身이 設計著作에 沒頭 할때 훌륭한 作品이 著作될 수 있지 않겠는가? 以上에서 指摘한 外에도 많은 問題點이 있다고 生覺한다. 이점에 對하여는 當局에서 充分히 再檢討 해주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다.

以上에서 몇가지 問題點에 對하여 言及 하였으나 短文하여 内容이나 表現이 不充分 할뿐더러 未及한 點이나 缺禮되는 點等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謝過하는 바이며 紙面을 通해서나마 本人의 所見을 披瀝할수 있는 機會를 마련 해준 本協會當局에 感謝 하는 바이다.

— 以上 —

(청주종합건축설계공사)

建築審議와 建築士業務

尹 鳳 源

1. 건축심의의 목적
2. 건축심의의 한계
3. 건축심의의 필요성
4. 현재 건축심의의 실태

1. 건축심의의 목적

각지방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심의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각지방 각지역에서의 건축심의의 목적은 그지방 그도시의 기능과 미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세 조건을 구비하여 심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코저 함에 있다고 본다. 보다 아름답고 보다 기능적인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하겠다. 특히 건축행정면과 지방마다의 특색있는 기능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건축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다고 본다. 더 생각해보면 설계자인 건축사 작자가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한것이 아닌가 한다. 올바른 건축문화로 구현하기위한 수단이라고도 보여진다.

2. 건축심의의 한계

극히 객관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심의를 해야하겠고 건축설계자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가 끝나야 되리라 본다. 심의기준을 벗어나서 개인 설계자의 특성과 지를 범하면서 심의가 깊어질수 없으며 특히 제작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짧은 시간내에 여러 건축사들의 작품을 제작면까지 볼수도 없고 또 칭해해서도 안되겠다. 설계자인 건축가를 돕고 지방실정과 앞날의 건축문화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사안적이고 원대한 계획에 과녁을 맞추어 나가야 하겠다. 심의위원회의 하는일이 건축사들을 돕고 자문하는 일에 끝나야 하겠고 지시나 지도를 하는 위치에 군림해서는 문제가 되리라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설계자는 설계를 위하여 건축주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화 했을것이고 그소재에 의하여 많은 시간연구와 창의력을 경주하였을것은 명백하다. 필요한 작품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예술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준비했을것으로 보는데 자칫잘못 생각하여 일시적으로 느낀대로 제작에 침해를 가져온다면 보통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심의의 한계도 제작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범위라야 하겠다.

5. 건축사의 업무
6. 건축사 업무의 중요성
7. 바람직한 건축심의의 방향

3. 건축심의의 필요성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또는 규칙조례 외에도 특별법 등이 수시로 변경하는 건축행정의 질서문제가 크게 다루어져야 하는 세월이고 보면 개인 건축사가 변화하는 법을 다알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리라 본다. 그러기에 건축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각지방의 특수성과 맞추어 가기 위하여 지방건축행정법을 전달하고 시행키위하여 중요하다고 본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법만을 다룰수도 없다고 본다면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법전체적인 자문을 구하여 정부정책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하기 위함이다.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시행해야하는 과정에서 너무 법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니 이를 속히 전달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없도록 사전심의함에 필요성을 느낀다.

4. 현재 건축심의의 실태

과거보다는 많은 개선과 발전을 했을것으로 본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 심의위원회의 개편을 늘수있겠다.전공분야별로 생각을 했다면가 또는 관직의 위원을 줄이고 순수한 학계에서 중원올시도 했다면가 하는점은 많은 개선을 한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도 심의위원회 직권으로 건축사들의 작품을 재심의하는 명목으로 지시 감독하고 창작품에 깊이 줄을긋고 찢르고 붙이고하는 심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태이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설령 부족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피차에 입장을 살려가면서 업무수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작품심의 시간이 바쁠때는 2~3분정도 길어야 몇분 되고있지 않은가. 심의위원들이 역량이 우수하디고 인정을 해도 정도문제가 아닐까싶다. 몇주 몇개월에 걸쳐 연구하고 엮은 작품들을 누구도 몇분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칼질을 한다는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심한경우는 10여회의 재심의 경우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니 문제가 되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심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도 지켜지지 않

고 있으며 기본법마저 뭉개지고 있는일이 허다하니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대지면적에 최소한이라던가 일조권이라던가 대지안에 공지법이라던가 건축물 등 기본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건축사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같은 서울시내의 경우도 구청별로 심의기준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니 왜 이렇게 어지럽게 심의위원회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일까? 어떤법이 우선인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심의위원회는 기본법도 없이 생각나는대로 개인의 생각대로 이끌어야 하는가 그대로 편참은가? 다행히 몇번에 재심에서 통과를 보았다고하자, 다음관문인 허가를 책임도 못지면서 통과한 작품이 허다하다. 심의는 무엇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현재 심의하고있는 방향은 행정적인 심의가 아니고 제작품에 깊이 손을 대고 있는 과오를 범하는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설계의 수준은 심의위원들에게 무더기로 넘겨져야 할 업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종합예술업무라고 자칭하는 건축설계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 각자의 개성 작품등 단정키 어려운점들을 어떻게 그리합게 손을 댈수 있는지?

5. 건축사의 업무

우수한 건축을 위하여 설계하고 설계된 작품을 잘 지어 되도록 감리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업무를 맡은것이 건축사 본연의 업무요 책임이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전체 설계를 책임지고 있고 또 잘못되었을때는 책임추궁도 당한다. 기능적이요 예술적이요 경제적인 우수한 건축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것이 건축사 업무가 아닌가? 짜르고 불이고한 심의를 거쳐 지은집이 잘못되었을때 심의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에 부담도 지겠는가? 현재실정으로 그렇지 않는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왜 건축사의 업무를 깊이 관여하는지 알수가 없다. 이로 미루어 건축사 업무에 책임한계범위를 관여할수가 있는지? 건축주중에는 건축사의 업무가 건축허가에까지 책임을 지는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행정가도 때로는 건축사에게 허가 책임을 지운려는 물지작한자도 있는 듯하다. 설계는 건축사가 허가하는 건축주가 허가권자는 행정가들이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6. 건축사업무의 중요성

건축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역군으로써 어떤환경이라도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

겠다. 한사람의 건축사가 잘못하여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지않는가? 한사람의 의사가 잘못했을때는 1명의 인명이 죽어 가지만 한사람의 건축사가 잘못했을때는 수많은 인명피해도 낼수 있듯이 무서운 결과를 직시하고 책임을져야 하겠다. 과거에 건물을보고 보기싫은점을 발견했을때 후손대대로 욕을하지 않는가? 서예가나 화가가 만든작품은 개인이 소장하지만 건축물이란 장작품은 온천하에 공개되어 있기에 그미치는 영향이 크다는것을 알아야 하겠다. 관에 개입이 어떻게 건축주가 어떻게 잔소리했으며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하더라도 건축가의 양심에 호소해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설계를 해야 하겠다. 일시적인 오판이나 게으름이 다가오는 몇세기를 두고 욕거리로 남는다면 어찌 소홀히 다룰수가 있겠는가? 최선을 다했어도 미흡한점이 하나들이 아널진데 그렇지 못해서 과오를 범하는일은 없어야 하겠다. 책임을 질수 없으면 차라리 포기하는편이 현명하리라 본다.

7. 바람직한 건축심의의 방향

과도기적인 위치에서 필요로하는 과정이 되여 지기를 바란다. 현재위치에서 건축심의의 방향은 건축행정심의에 머물러 주었으면 싶다. 건축행정은 다분히 복잡하고 또 지도를 받아야할 분야가 있다고보기에 그러하다. 건축가가 일일이 법만을 다룰수가 없기에 자문을 받는다고 보면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심의기준 또한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모범에 정신은 모범에 정신대로 맞추어서 시행해야 하겠고 심의기준이 선다고 해도 모순되며 속히 시정해야 하겠으며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어떤개인의 의사가 전체의사인양 지켜지는것은 큰모순을 낳는것이다.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심의에서 바람이 있다면 우선 심의위원구성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하겠다. 대학교수라고 건축술에 전부를 아는것이 아니니만큼 전공분야 별로 구성되어 어느 한분야도 소홀함없이 자문해야 하리라 믿는다. 심의위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각지방 행정과 실정을 잘알아서 적합하게 심의가 되어야 하겠고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다음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심의기준은

원시안적이고 전문적이며 세월이 흘러서 후세에 까지도 부끄러움이 없을 건축문화를 야욕하기에 부족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하겠다. 법에 변화가 없이 안정기에 들어 선다면 심의라는 거주장스럽고 불편한 제도는 점차 없어져야 하겠다. 책임지는 건축사가 건축작품을 구사하는 시기가 외야 하리라 본다.

建築研究所 源建社

建築士事務所의 運営과 税制

李 承 文

一. 머리말

營業税法과 기타 間接税法이 附加価値税法으로 개편되기 이전에도 建築士業에 대하여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營業税가 면제되었고, 附加価値税로 간접세체계가 전환된 이후에도 附加価値税를 면제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의 경우보다는 稅務問題에 대하여 덜 곤욕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현실은 반드시 그러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세금이라고 하면 国税이든 地方税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을 터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事業은 특히 所得税에 관한 신경이 더 가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은 所得率에다 최저 8%에서 부터 최고 70%까지 17단계 超過累進税率이 적용되고 있고, 다시 방위세와 주민세가 부가되며 所得金額의 계산과 納稅手續도 복잡하여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둘 수 없는 노릇이고 보면 脱税의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節税의 수단으로서 現行법을 잘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所得税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納稅를 돕고자 單獨建築士事務所가 合同建築士事務所로 개편운영하게 됨에 따른 세제상의 문제점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관하여 필자의 소견을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二. 單獨事業과 共同事業의 차이점

建築士 1개인이 單獨事務所를 운영하는 경우가 單獨事業이며, 수인이 合同으로 共同事務所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共同事業이라고 일응일컬을 수 있다.

법률상 權利義務의 主体는 개인과 法人으로 한정되어 있다. 현실은 그 중간체인 단체가 수없이 존재하며 그 중간단체에 대하여 財産關係의 법률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合同建築士事務所의 경우에도 法人格을 취득한다면 法律上 그리 복잡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개인과 법인의 중간형태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財産關係 뿐만 아니라 稅務問題도 복잡하게 야기된다.

현행법상 개인과 법인사이의 중간단체로서는 組合과 人格없는 社團 및 財團이 있다. 組合은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단체로서 존립의 意義를 가지나 法律效果는 구성원 전부에게 귀속되고, 資産과 負債는 共同으로 소유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계약관계로서의 결합체이다. 그러나 人格없는 社團 및 財團은 法人으로서의 組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許可를 얻지 못하였거나 登記가 되지 아니한 상태의 단체이다.

人格없는 社團의 재산관계는 總有 또는 合有로 나타난다. 그러나 人格없는 財團은 대다수의 경우가 信託의 관계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실질귀속관계를 중요시 하는 税法에 있어서는 이러한 法律關係에 착안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중간단체를 두가지의 형태로서 규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人格없는 社團과 財團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것과 出損된 基本財産이 있는 경우만은 法人으로 보고 法人관계의 法律을 적용하며, 그외는 모두가 개인관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나 代表者 또는 管理人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단체 자체를 1개인으로 보고 과세하게 됨으로 單獨事業의 경우와 같이 모든 税法이 적용된다.

그러나 組合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 組合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산관계가 그 구성원에게 귀속됨으로 소득세도 그 구성원 각자에게 부과된다. 그렇지만 組合도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외관상 法適用은 그 組合을 개인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

즉 組合은 단체성과 개별성이 동시 나타나므로 단체성에 대하여는 1개인과 같이 法을 적용하고 개별성에는 구성원각자에게 法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체성에 관한 것으로서는 납세자번호증을 하나로 교부받는 1사업으로 취급하게 됨으로 구성원별로 납세자번호증을 교부받는 單獨事業과 비교하여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다.

共同事業으로서 組合의 단체성에 가인한 단점으로서 는 단독사업의 경우보다 절대비한도액보다 구성원 1인에 연100만원이 줄고, 구성원 전원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한정하게 됨으로 각개인으로서 는 간이장부의무자로도 전체로보면 복식기장의무자가 되어 지급조서제출의무, 재무제표작성제출의무등 제반의무가 부여되어 그 의무불이행시는 加算稅를 추징받는 불이익이 뒤따르며, 記帳稅額控除의 특전도 없어진다.

실령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78년도 기준으로 간이장부의무자는 35.1%의 所得標準率을 적용받으나 복식기장의무자는 40.5%라는 高率의 소득표준을 적용되며, 納稅義務도 連帶責任을 지게됨으로 다른 구성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組合은 단독사업의 경우보다 규모의 경제로서 경영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技術用役法에 의한 專門技術用役業者로서 3개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소득세액의 25%(法人稅는 5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관리도 집중관리되므로 단독사업의 경우처럼 각 個人마다 稅務管理를 할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훨씬 덜어지는 장점도 있다.

개별성에 관한 것으로서는 구성원 별로 組合에서 생긴 所得을 所得分配比率 또는 持分比率에 의하여 배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所得稅를 申告納付하며, 組合에 대한 제반 加算稅도 앞서의 比率에 의하여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合同建築士事務所의 운영이 과연 組合으로서의 事業체 즉 共同事業에 해당할 것인가 또는 人格없는 社團이나 財團에 해당할 것인가? 合同建築士事務所는 商法에 의한 法人도 아니며, 그렇다고 目的에 의하여 出損된 財産도없는 것이므로 財團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社團은 非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이므로 民法의 규정에 의한 社團의 성격도 없다. 따라서 合同建築士事務所는 單獨事業이나 組合체로서 共同事業중 어느 한 형태이다.

建築士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이상의 設計업무에 대하여는 合同建築士事務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동 業務에 連帶責任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외에는 事務所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事務所의 運營方法에 대하

여 建築士의 자의적인 合議에 따르도록 한 것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따라서 合同建築士事務所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 구성별로 單獨의으로 할 것이나 또는 組合形態로서 共同事業체로 운영할 것이나 하는 것은 완전한 임의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三. 所得金額의 計算에 대하여

建築士의 業務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理論에 의하는 것이며, 별도의 特別規定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建築士의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收益의 실현시기에 관한 것이다. 현행 所得稅法에 의하면 設計用役은 用役業으로, 監理用役은 自由職業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수익의 인식시점도 약간씩 서로 다르다.

監理用役은 人的用役의 제공이므로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대금영수일이 수익실현시기이나 約款이 없는 경우에는 用役提供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設計用役은 監理用役과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設計用役은 일종의 都給이 契約에 의한 것이므로 수익의 실현시기는 目的物 즉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시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체결이 되고 완료되는 設計用役의 수입과 비용은 그 年度에 전부 측정되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연도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되지 아니한 設計用役은 계약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은 측정할 수 있을 지라도 앞으로의 費用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어야 한다.

연도말에 미완성된 設計用役은 그 계약기간이 장단에 따라 6월미만의 것은 短期都給契約으로 수입과 비용전부를 차액도로 이월시킨다. 왜냐하면 도급에 의한 用役提供의 수익실현시기는 그 用役提供을 완료하여 目的物을 인도한 날로 한다는 원칙 규정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이상인 長期都給契約은 課稅의 평준화를 위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즉 契約金額에 따른 費用이 투입되어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입금액도 확정된다는 가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設計用役提供을 완료한 때에 총예정원가 {契約金額(1-所得標準率)}만 투입된다고 보고, 그 총예정원가에 실제 투입된 비용의 비율만큼 契約金額에 대한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투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지조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이 방

법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를하는 때에는 都給
者が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밖
에 없다.

四. 記帳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업자는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연 수입
금액 6,000만원이상)과 복식기장의무자(연 수입금액이
2억원이상)로 분류하여 기장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
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벌칙규
정이 있다.

금년에 주목할만한 것은 간이장부의무자와 복식기장
의무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소득표준
율 27%에 30%와 50%를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실사기피자는 한층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
다.

더구나 간이장부의무자가 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의 10%공제 있는 반면에 복식기장의무자는 10%의 가
산세가 있으므로 실제 기장하는 데 대한 비용을 감안하
더라도 간이장부의무자 이상은 기장을 하는것이 유리하
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2년이상 실서조사나 서면결정을받고 조사금액
과 신고금액대비 5%이내이고 지급조서나 계산서제출
불성실비율이 15%이내일 경우에는 신고 그대로를 인정
하여 주는 확정신고결정제도가 신설되고있으며, 녹색신
고자로서 지정을 받아 세제상의 특혜도 받을 수 있다.

五. 計算書의 제출제도에 대하여

建築士의 업무는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附加價
値稅의 免稅事業者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면세사업자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979. 1.
1부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여야 하
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事業者간의 거래는 재화 또는 用役의 공급자가 計算
書를 4부작성하여 2부를 공급받는 者에게 교부하고
각 1매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신고기한내에 제
출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간이계산서를 교
부토록 하고 있다.

計算書제출의무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질서법으로 5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과료를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六. 源泉徴収에 대하여

事業者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
타소득, 자유직업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 (지급받는자가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를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建築士事務所의 경우에 設計用役의 대가에 대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法理를
오해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서는 自由職業所
得(그것도 그중 일부에 국한됨)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
도록 된 것을 用役業에 까지 확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
은 위법이므로 自由職業所得인 監理收入에 대하여만 원
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七. 맺는말

이상으로써 건축사업무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을 대
충 간추려 보았으나 여기서 서술되지 아니한 문제점도
한둘이 아닐것이다. 사실 현행 소득세법의 法條文數가
말해 주 듯 방대한 양에 이르는 것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조세문제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그리 용
이한 일은 아니다.

무릇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길고 닳을때 비로소
그 제도의 발전이 기대되듯이 기획 있을때마다 문제점을
하나씩 정리하여 해결해 간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으로 믿어진다.

大韓商工會議所稅務相談役
稅務士

검소한 생활로 물가고를 이기자
하루위해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

건축심의회와 건축사 업무

安 瑛 培

국가에서의 면허시험을 거쳐 당당한 건축사의 자격을 얻은 건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설계도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은 지주논의되는 문제이다. 지금은 서울시의 건축심의 위원이 된 筆者도 한때는 심위를 받아야 했던 건축사의 위치에 있었던만큼 양쪽의 立場을 나른사람들 보다는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다.

건축심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건축사에게 남득이 갈 경우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남득이 안갈 때는 그 건축사는 참으로 불쾌한 일이 아닐수 없다.

건축가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견해는 얼마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들의 견해가 때로는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많다.

건축심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부당했다고 하는 건축사들의 不平을 나는 수없이 들어왔다.

그럴때마다 건축심위의 필요성을 의심한 적도 하두번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건축심회의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都市속에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그 건물하나만 볼 때는 좋은 건물이라도 그 주변의 都市환경을 고려할 때는 부적당하고 조화가 잘안되는 건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건축사는 지으려는 한건물이 차지하는 그 都市에서의 그 위치와 주변 환경과를 고려해서 그건물이 지녀야 할 성격에 따라 형성되는 건물의 形態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장의 事業利益을 앞세워 무리하게 상요하는 建築主의 무리한 要求에 順応해서 法이 허용하는 最大限의 脱出口를 찾아 설계해야만 하는 건축사의 立場에서 볼 때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都市의 建物들은 위선 建築主들의 要求에 의하여 지어지긴 하지만 일단 지어지면 많은 市民들이 이것을 利用하게 된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주변환경에 조화되는 훌륭한 建物이 되도록 誘導하고 곤란한 입장에 스게되는 건축가들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큰 구실을 하도록 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얼마안되는 기간이지만 건축심의위원의 한사람이 되고 나서 나는 이런 경우를 벌써 여러번 겪었다. 그럴때마다 참으로 건축심의위원의 사명이 과연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했다.

이런 예가 가장 심한 경우가 아파트 단지 계획이다. 한정된 대지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대의 住戶를 넣을수 있는나하는 것이 보다 나은 住居환경을 造成하는 일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入住하게 될 아파트 설계가 저렴한 설계비 탓인지 너무나 소홀히 이루어진 예가 많았다. 심지어는 아파트건설을 크게 하는 모회사에서는 한 곳에 활용된 적이 있는 좋지않은 평면과 입면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일렬로 계속 배치하는 것도 문제이며 또 다른 단지에서도 같은모양의 아파트를 되풀이해서 짓는다는 것은 再考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마치 한 타인의 자동차를 생산하듯 아파트 자체가 量産住宅으로 똑같은 틀 속에 生活를 強要당하는 것같이 여겨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풀어주느냐가 설계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건축심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또하나의 이유는 심의되는 설계수준이 의외로 낮은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규모도 크고 위치도 중요한 건물설계가 너무도 소홀히 되었거나 수준이 낮은 것을 보면 같은 건축가로서 울분을 느끼게 되곤 한다. 수준이 낮은 설계는 과감하게 다루어 좀더 우수한 건축가들이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건축심의의 필요성은 대단히 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누가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과 효과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뚜렷한 심의기준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묵인 되던 것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하는 위원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여러 위원들이 논의하다 보면 타당한 쪽으로 낙착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끝까지 엇갈리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설계수준이 어느정도에 이르기만 하면 건축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것은 과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경우는 심의위원들이 극도로 조심해야 할점이라고 생각된다.

너무도 수준이 낮은 경우는 재심회수가 많아져 소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상세하게 보완 내용을 지적해준다보면 심의위원인지 자문위원인지 분간하기 힘든경우가 있다.

심의하는 주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을 열거 해보기로 한다.

1. 주변 건물및 환경과의 調和
2. Site의 적절한 活用 與否.

3. 건축기술적인 面에서 크게 未備된점 補完

4. 혐오감을 주지않는 건물의 형태와 색채, 조정및 造景계획.

5. 住居団地の 경우 아름다운 住居環境造成과 車動線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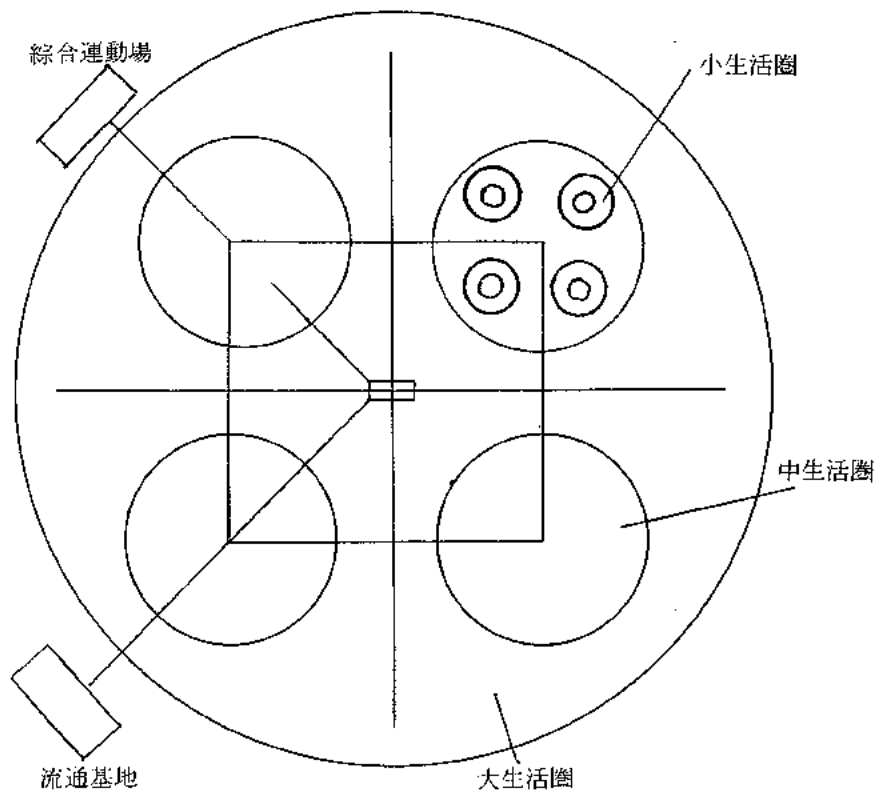
이밖에도 여러점을 들수있겠으나. 모두 이 범주안에 속한다고 본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것은 건축심의위는 건축사들의 설계도를 심의한다라기 보다, 같은 동료로써 건축사들의 입장을 유리하게하여 도시민들의 쓰기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속의 建物を 설계할수 있도록 協助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겠고 審議委는 또한 그런 성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産業大學 教授

46 P에서

(그림 2)



監理業務와 問題點

金 正 湜

工事監理라 함은 建築家가 構想하여 遂行한 記計圖樣대로 施工이 이루어지고있는가를 確認하며 設計意圖의 反映과 圖樣間의 모순點, 改善해야 될點, 安全에 關한點 및 工程 管理 等을, 建築主와 施工者사이에서 公正하게 行하며 關係官庁에 事實如否를 報告하는 行為의 業務를 말한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에서 建築家가 監理를 훌륭하게 遂行하기엔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이 가로 놓여있는 것 같다. 그 첫째는 亦是, 建築主가 마련코자하는 創作物的企圖의 檢討의 不在와 建築家를 全적으로 신뢰치 아니하고 또 行政官署는 施工者를 不信하는데, 根本的 問題가 있는 것이며, 이런 不信을 막기 爲하여 行政 當局에서는 계속 規制만 強化하게되고 規制가 強化될수록 建築家 本然의 役割보다는 行政의 問題에까지 부담을 걸머지게 되어 가끔 本意아닌 違法이 發生되는 惡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다. 이제 各己의 問題點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建築施工者の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직 品質管理(특히 concrete)가 소홀하며 安全 對策에 關한 개념이 희박하며 管理上의 科學的 運營이 不實하며 도괴사건, 人命과해, 인근 建物の 피해는 勿論 cement, 鉄筋의 基本的 配置使用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現象은 8.15 解放后 또는 6.25 戰亂 等を 通하여 빨리, 적당히 하며 材料 品費 및 最低落札方式에 受注의 惡순환으로 材料를 빼어먹는 罔年の 習性이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 이 社會에서는 監督 또는 監理者가 conc. 工事に 立會하여 監視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認識되어 있다는點이며, 특히 conc. 의 認識이 적당히 비껴 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하는 通念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取扱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點이다. 卽 다시 말해서 施工者들 自身이 品質 管理는 勿論 工法 研究의 不在이며 圖樣의 內容을 어떻게 하면 經濟적으로 견고하게 빠른 時日안에 施工할 수 있는가에 對한 研究가 不振하다는 것이다. (勿論 이것은 設計者에게도 責任이 많지만)

監理 制度 및 對官庁 問題,

첫째, 建築許可上 基本이 되는 關係法 및 施行令의 같은 變更이며 둘째로 이들 變更의 소급 適用이다. 이런 變

更과 소급 適用은 建築主나 建築家は 勿論 社會的 混亂 國家的 經濟 損失도 莫大한 것 같다. 세계 監理上 建築家의 裁量權이 너무없어 工事上 不可避한 驚미한 變更일지라도 다시 번거로운 設計 變更 節次를 받아야 된다는 點이다. 大型 工事의 경우 二~三年이 걸린 施工 期間에는 材料의 品費 現象에 의한 不得已한 變更도 發生되며, 關係法의 改正, 都市計劃의 變更 等に 依하여 同一件의 設計 變更 許可를 四,五차례에 걸쳐 得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어 建築家의 不必要한 努力은 勿論 關係當局은 業務量만 폭주시키는 結果를 가져 오는 것 같다. 이런 경우 最終적으로 竣工 申告書를 作成할 때 建築家가 어떤 範圍內에서는 報告만 하고 이것을 當局에서 받아서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不必要한 努力이 除去될까?고 생각해 본다. 또 한가지 重要的 것은 法の 소급 適用이다. 當局이 까다로운 許可를 得하여 資料를 준비하여 거의 完成되어 가는 建物이 紙上 發表된 施行令(?)으로 因하여 施工할 수도 안 할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며 工事 지연은 勿論 國家적으로 莫大한 損失을 招來하고 있는 예는 비일 비재하다. 그러므로 官이 許可해준 事實을 事後에 法の 改正으로도 소급 適用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萬一 萬듯이 適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면 個人의 資産上의 損害에 對하여 充分한 보상을 해 줌이 原則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몇가지 監理의 애로는 監理의 權限이 建築家에게 없으며 建築主가 代身할 監理者를 選定해 주어야 交替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點을 안고 있으며, 監理의 상응한 費用을 받지 못하면서도 監理者의 指示가 무시되어도 監理를 포기할 수 없다는 點과 분명히 施工者의 失手 또는 過誤로 因하여 인근 住民 또는 事故가 發生했을 경우 그 경위를 따지기 以前 監理者에게도 問責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앉아서 날벼락을 당하는 수가 많다는 點이다. 以上과 같이 여러 問題點들이 대두되는데 本人이 몇가지 提案하고 싶은것은 (1)수많은 건축 關係法 또는 소방 및 都市計劃法等에 對하여 書面 確認 制度가 있어서 일단 確認된 것을 근거로 設計가 되어 공사를 할 경우 法の 改正 또는 기타에 의하여 變更을 要求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業務를 신속히 처리하게 되며 不必要한 努力을

除去하여 國家的으로 많은 利益을 가져 오리라 確信되며,

(2) 建築 許可制로 부터 確認制로 바꾸어 基本的 設計로써 當局에서 確認하면 建築家와 建設業者가 재료 선정 構造 工法等을 最大로 研究하여 가장 經濟的인 方法으로 施工케 되면 工法도 發達될 것이며 工事의 質的 追求가 合理的으로 수행되어 裁량權에 依한 現場에서의 變更이 自然히 許容케 되어 많은 上昇 效果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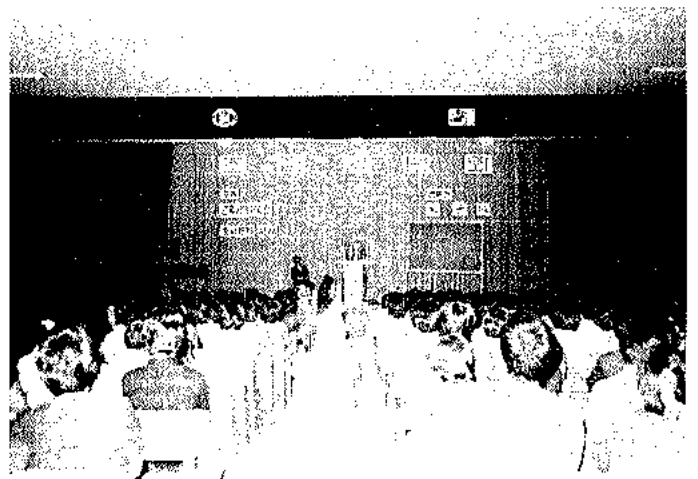
다음 監理를 하는 우리 建築家 스스로를 生覺해 볼때 부끄러운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다. 于先 사회와 當局으로 부터의 信義回復이 가장 急先務이며 그러기 爲해서는 첫째 우리들 自身の 資質 向上이며 둘째 建築家의 姿勢 確立 및 所信을 가져야 되며 셋째 遵法 精神을 철저히 가져야 될 것 같다. 一般的으로 建築家들이 돈을 받는 建築主 側에 너무 弱하여 非合理的 不法 要素를 알면서도 指摘하지 못하여 심지어는 은폐하거나 눈을 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차마 建築主의 行패를 當局에 告發을 못하고 結局 自己가 當하는 경우가 많으며 當局에서 무리한 要求를 해올때면 正正當當하게 맞서 理論的으로 따져 法을 지키는 버릇을 길러나아가야 될 것 같다. 또다른 側面에서 볼때 우리 建築家가 現狀에 적합한 設計를 하고 있

는가? 例를 들어 人力 不足에서 허덕이는 이때 不必要한 要素로 因하여 不必要한 經비를 建築主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工法등 充分한 Engineering 을 通하여 좀더 經濟的이며 合理的인 方法은 없었는가? 時間과 努力이들 드라도 現場에서 改善할 點이 있다면 事前에 発見하여 더욱 價值있는 建築物을 만들도록 努力하고 있는가? 建築主의 立場만이 아니라 國家的 次元에서 Energy를 節約할 수 있는 方案을 고려하여 보았는가? 即 建物의 作品性도 重要하지만 철저히 建築主의 立場과 社會 環境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生覺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다음 建築主에게 關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종이의 연필값으로 생각하는 습성을 버리고 일단 自己가 選정한 建築家에 對하여도 最大限의 誠意를 보여 주고 좋은 idea 를 要求하는 風土가 있어야 될 것이며 法을 無視하 적당히 처리하려는 思考를 버려야되며 責任과 權限을 同等하게 건축가에게 위임하여야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이 各者가 할 일은 最善을 다하여 遂行할 때 또, 建築主, 建築家 및 施工者가 三位一本가 되어 建物위주로 眞正 誠意를 다 할때 훌륭한 創造物이탄 生하는 것은 當然한 理致인 것 같다.

正林建築研究所

지난 4월26일 서울인덕공업전문대학 강당에서 약500명 학생이 참석한 건축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강사는 본협 회원인 김종업씨가 담당. 건축가의 가치관이라는 제하에 젊은공학도들에게 손에땀을끼게 하는 열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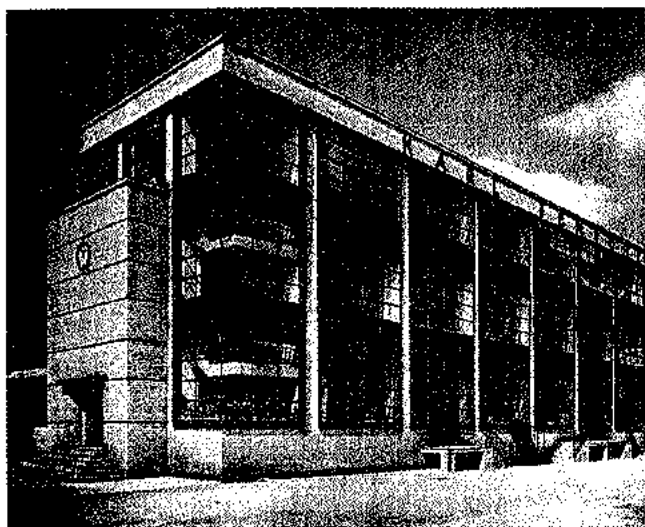


WALTER GROPIUS와 國際主義建築

金 熙 春

Walter Gropius는 現代建築의 실재적 發見者로서 그 一生을 國際建築을 육성하는데 보내면서 建築家, 教育者, 批評家의 역할을 다하였다. 1883年 태어난 그는 P. Behrens 事務所에서 일을 배우고 獨立하여 첫 作品으로 1911年 Fagus Werke를 設計하였다. (그림 左) Alfeld 에 세워진 구두공장으로서 第1次 大戰前에 세워진 가장 진보적인 作品이라는 評을 받고 있다. 유리와 鐵의 평탄한 면이 支配的으로 表現되어 있고 유리와 鐵의 壁體가 그 모서리에 기능을 쓰는 方法이 아니고 직접 交叉되어 있다. P. Behrens가 1907年 設計한 Turbine工場(그림 右)의 육중한 모서리 취급과는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壁에 처한 개념을 완전히 전복한 것이다. 이로써 壁의 역할은 雨水와 추위와 소음을 배제하기 위하여 架構의 直立柱 사이에 친 Screen의 역할로 한정되어 버렸으며 유리가 상당히 큰 구축적 重要性을 띠기 始作하였고 空虛한 것(Void)이 密質의 것(solid)보다 점차 優位를 차지하게 된 直接的인 結果이다. 鐵과 유리의 새로운 可能性, 壁體의 평탄한 취급, 内部의 조직적인 조명—— 이러한 全部가 치밀한 Balance로 近代性이 여지없이 表現되고 있다. 특히 20世紀 初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建築의 手段과 構造의 수단이 結集하여 한 統一된 表現이 이루어진 점이 Fagus werke의 특기할 事實이다.



Alfeld에 세워진 구두공장

Gropius가 本格的인 建築活動을 한 것은 Bauhaus創設以後이다. 近代 建築運動을 集大成한 Bauhaus 運動은 Deutscher werkbund의 저류에 호르고 있는 理想을 그 基本精神으로 하고 있는데 始初부터 藝術과 工業生産을 結合하여 전전한 近代의 建築의 基調을 發見하려 하였다. Gropius는 Bauhaus의 根本취지에 對하여 “Bauhaus는 모든 예술적 창조를 합쳐서 統一할 것을 目標로 모든 工芸部分을 한 새로운 건축에 不可分の 構成要素로 再統合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Bauhaus의 궁극의 目的은 한 統一藝術, 즉 Monumental한 藝術과 Decorative한 藝術 사이에 아무런 限界도 없는 偉大한 建築을 創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目的을 수행하기 爲하여 취하여진 教育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造形的 創造의 實習과 知識의 두 영역을 총괄한다. 이 敎育과정은 3단계로서 최초의 6個月은 予備敎育으로 材料의 취급법과 結부하여 기초적인 形態敎育을 實施하고 다음 3年의 工作敎育(werklehre)과 形態敎育(Formlehre)은 規則的인 時間表에 依하여 工作敎育과 形態敎育을 행하며 最後로 建築敎育(Bauhaus) 實驗公방에서의 自由스런 建築敎育을 一定한 기간동안 받는다.

실제적 活動으로서 모든 生産品의 規格化와 小住宅의 大量生産과 建築經濟의 合理性을 目標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1923年 實驗住宅과 工作品을 공개 전시하여 好評과 公명을 얻었다.

모든 Bauhaus作品은 기계에서 얻은 세련된 기능주의와 新材料의 正確한 使用에 依한 藝術的 表現이 完全한 統一을 얻게 된 現代的인 創作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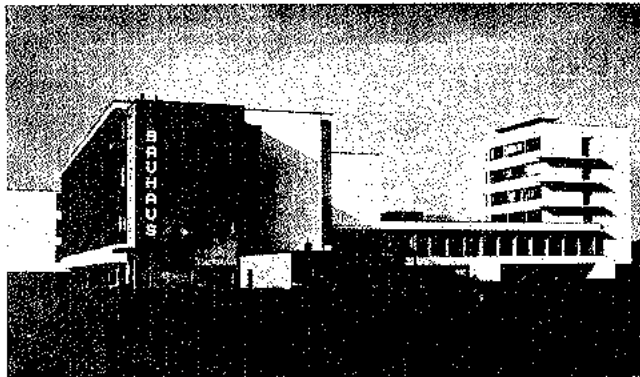
이 結果로 地域을 초월하고 個人的 特性이 무시된 一定한 型이 形成된다. 이에 對하여 Gropius는 “建築은 인제나 國民的인 同時에 個人的이다. 그러나 세계의 円(個人, 民族, 人類의 円)中에서 最後·最大의 円이 다른 두개의 円을 내포한다.”고 말하며 材料, 構造技術, 기능의 조성이 共通된 近代社會의 建築은 必然的으로 國際的으로 共通된 表現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소위 국제건축 양식(International style)의 대두를 보게 된다. 그의 이러한 제창은 세계 각국의 建築家들에게 깊은 공명을 느끼게 하고 이 시기의 作品이나 저작은 각국의 集團的 新建築運動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25年 반동적인 政府의 압박으로 weimar 국립 Bauhaus는 폐쇄되고 場所를 Dessau市로 옮겨 活動을再開하였다. 1923년에 전시된 새로운 조형표현이나 실험주택에 표시된 建築의 style은 그대로 계승되고 발전시켜 Dessau Bauhaus는 20年代 以後 새로운 조형 및 건축교육의 中心가 되었다.

Gropius는 機能充足, 合理的 生産方式에 근거한 建築에 理想을 住宅에 發展시켜 住宅의 모든 部材를 規格化하고 標準化하여 工場生産하려는 住宅工業(wohnindustrie)을 제창하였다. 그는 새로운 住宅의 發展은 住宅機能의 科學的 分析和 生産의 工業化, 量産에 依한 社會全般에 보급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Dessau時代의 Gropius의 많은 作品 中 가장 重要한 것은 Bauhaus校舍이다. 이 Bauhaus建築 집합체는 立方體의 배열이고, 규모와 재료와 位置를 달리하는 立方體를 서로 알맞게 배열한 構成이다. 그 目的은 여러個의 立方體를 地에 들어 붙게 하지 않고 地위에 떠들게한 idea이다. 유리는 非物質化를 爲하여 자유자재로 使用되고 各棟은 다리로 連結되어 유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相互浸透된 空間은 서로서로의 限界가 분간하기 힘들만큼 有機的으로 계속되고 있다.

Bauhaus 校舍



이 作品의 의의는 教授와 學生寄宿舍를 아틀리에와 工場과 부속 공업학교의 세 棟을 각각 機能的으로 또 構造的으로 分離시키면서 中央의 食堂과 무대의 2층부분과 Pilotis로 들리운 관리부 등을 긴밀히 연결하여 完全히 均衡이 잡힌 統一體를 이루고 있는 點, 불췌로 철근 Concrete의 Cantilever slab에 의하여 1층에서 3층까지의 전 벽면을 유리로 덮은 공장 블록의 空間構成이다.

이 機能的인 空間構成과 Plan에 의한 전체적 秩序는 한 개의 Mass로서의 秩序가 아니고 서로 다른 獨立된 단순한 要素를 完全히 하나로 統一시킨 Balance에서 얻어진 것이며, 동시에 完全한 形態로 實現된 Curtain wall은 工場建築의 内部空間에 단지 밝은 채광을 도입한 것 뿐이 아니고 두꺼운 壁으로 폐쇄되지 않고 外部空間으로 無制限 擴大되는 새로운 空間의 性質을 주었다.

새로운 철근 concrete의 기술의 엄밀한 합리성과 결합

하여 藝術的 空間을 창조한 Gropius의 탁월한 솜씨는 그의 作家로서의 才質을 表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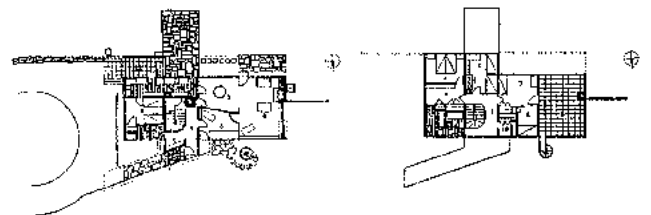
이 밖에도 Gropius는 1928년에 Bauhaus교장직을 사임하기까지 많은 作品을 남겼으며 그 후 Berlin에 건축 사무소를 개설하여 새로운 住宅과 都市의 理想案, 建築生産의 規格化와 工業化에 對한 그의 생각을 실현하는데 몰두하였다.

1933年 Nazis 政權이 成立하자 英國으로 옮겨 London에서 활동하다가 1937年 Harvard 大學의 초청으로 美國으로 이주 하였다. Gropius는 美國建築의 機能的인 형식과 생산조직에 어떤 親近感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Gropius로 하여금 美國國內에서의 활동을 의의깊고 활발하게 하였다.

Gropius는 Harvard大學 建築學教授로 재직하면서 1938년에 Marcel Breuer와 協同作으로 Lincoln 自宅를 建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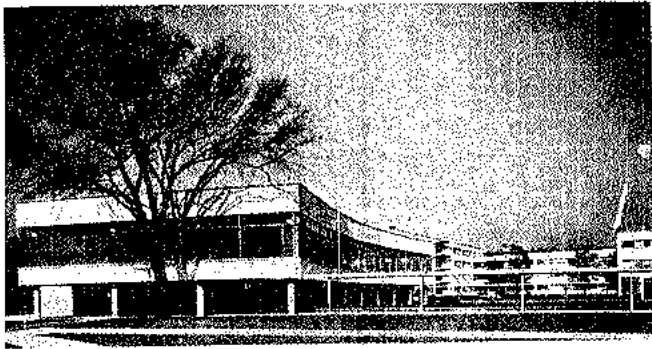
Lincoln 自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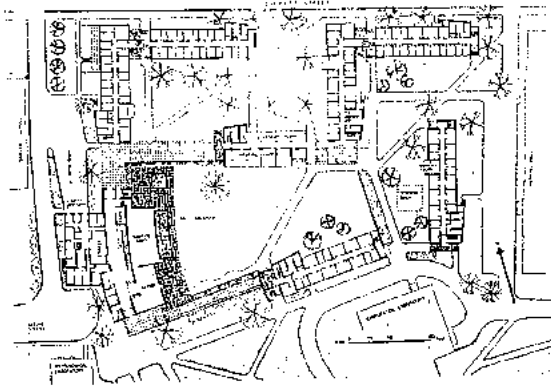
그는 협력자와 같이 일하기를 즐겼다. 그가 Corbusier와 구별되는 特性 中 하나는 여러가지 作品上的 전설하고 獨逸人다운 即物性에 철두철미 適応하였다는 點도 있지만 그의 人品이 주위에 언제나 많은 協同者를 모이게 한 것도 있다. 特히 Marcel Breuer와 TAC(The Architect's Collaborative)의 Member는 重要한 協同者이다. Breuer는 Lincoln 自宅와 wayland의 住宅 등 많은 協同 作品을 내었고, 새로운 美國精神으로 充分히 熏染받

은 젊은 協同者들로 구성된 건축가 협동집단인 TAC는 Gropius를 도와서 Harvard University Graduate Center('49-50), 미국 과학 진흥협회 건물(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Washington D.C.: 1952), Boston Back Bay Center 등의 작품을 남겼다.

Gropius의 美國전 作의 最小의 功헌은 Harvard 大學의 Graduate center의 設計이다. TAC Member 와 공동으로 設計한 7 個의 기숙사와 공용시설 中心(Commons Bldg)은 학교 건축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였다.



Boston Back Bay Center



기숙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여유있는 배치로 전개되어 있고 3~4 층의 철근 Concrete 건물은 内外部의 空間이 完全히 相互浸透되어 아늑한 學生生活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붕이 있는 連結복도가 建物과 建物을 連結하여 이 길고 섬세한 수평선과 적당히 배열된 기둥이 움직임과 부드러움을 주고 있다. 또 서로 다른 높이의 水平線, 즉 평지붕의 3 층과 4 층 기숙사, 2 층 建物인 공용 건물 그 앞에 일단 낮아진 정원 사이에 어련 종류의 視覺的 融和와 분의기를 造成하고 있다. 대학원 생활의 中心이 되는 공용건물은 2 층 철골조에 석회석 壁 마감으로 된 큰 유리면을 가진 建物이다. 일시에 1,200명의 食事を 供給할 수 있는 주방과 식당이 보통과는 달리 2 층에 두고 철근 Concrete 캔틸레버 램프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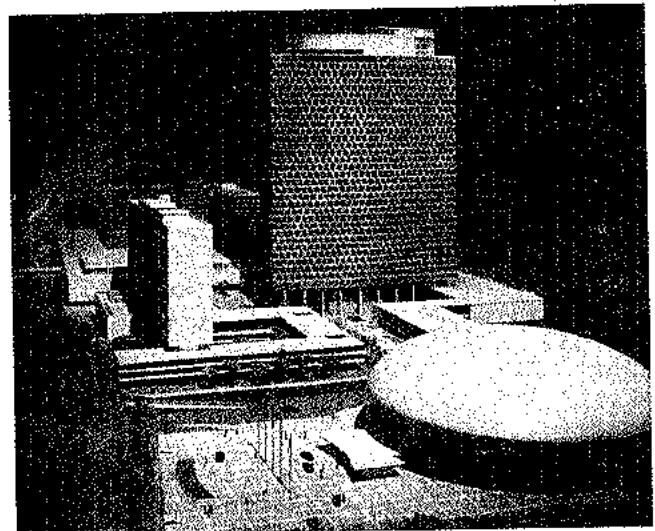
식당은 집단給食의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비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큰 유리면을 가진 1 층부분은 사교적 집회 장소로 응당하며 2 個의 라운지 中 큰 것은 언제나 集會 Hall로 쓸 수 있도록 流動性있게 처리되었다. 이 建物은

大學안에 近代 藝術家의 作品을 전람회 형식이 아니고 학생생활의 일상적 친구로 도입한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Gropius로서는 젊은 世代들과 協同하여 일하면서 자라는 젊은 世代 속에 自己를 形成하는 기회를 얻어 그의 만년을 장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의 깊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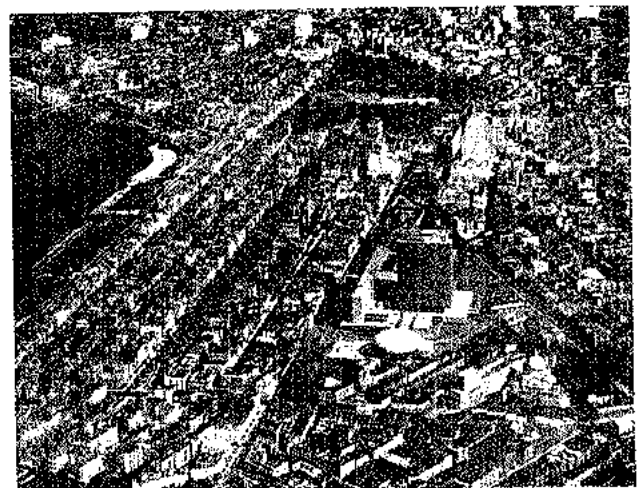
Chesler Nagel은 Gropius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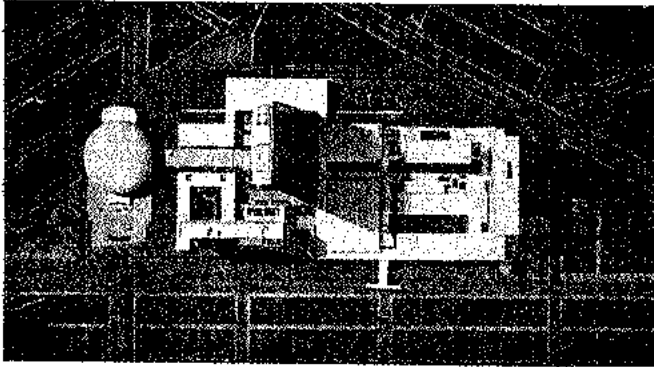
“그는 建築의 用語와 Design이라는가 Community 計劃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産業革命을 가르쳐 준 最初의 사람이다. 그는 항상 工業社會의 偉大한 可能性을 研究하고, 그것을 부단히 變化하는 人間의 要求에 同化시키는 方法을 指示하였다. 最近 10여 年間을 회고하여 보면 Gropius의 門下生이었던 우리들은 그에게서 社會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位置를 교시받았던 點을, 즉 機械化와 個人의 自由는 兩立할 수 있다는 것과 公共생활의 可能性과 價值를 說明받았다는 點에서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된다. …… 나는 언제나 그와같은 偉大한 人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時代에 對하여 이러한 새로운 信條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Walter Gropius의 重要作品



Boston Center Aerial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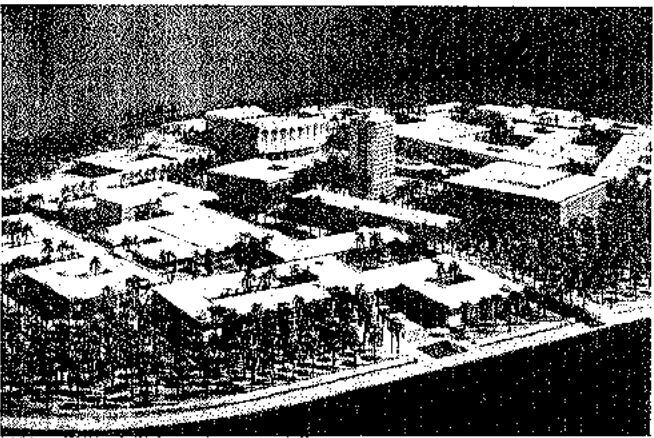




Boston Center Model



University of Bagdad Aerial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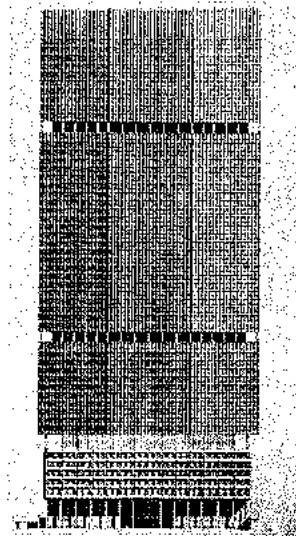
Bagdad University model

다음은 walter, Gropius의 建築教育에 對한 意見을 記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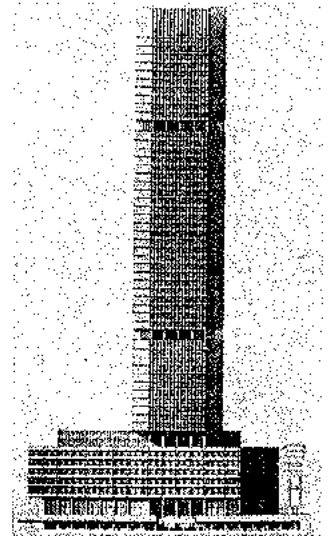
1. 建築家は 建物과 關聯해서 일어나는 많은 問題들 卽 社會的, 技術的, 經濟的 그리고 藝術的 問題들을 統合하는 일을 맡은 統合者[Co-ordinator]이어야 한다. 建築家は 産業化의 結果 생기는 問題들을 認識해야 하고 社會的 科學的 發達에 依해서 若起되는 새로운 課題들을 探究해야 한다.

2. 專攻의 特殊化 時代에 있어서는 手段方法이 情報보다 더 重要하다. 建築家の 訓練은 部分的인 것 보다 綜合的이고 集中的이어야 한다. 卽 總括的으로 思考의 明確性과 그것의 現實化의 方法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一定한 形式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創造的 態度和 概念의 獨立을 通해 學生들이 根本的인 信念에 到達하도록 가르치는데 目的을 두어야 한다.



Grand Central city B1
front elevation



Grand Central city B1
side elevation

가장 基本的인 것은 教育的 目的의 統合이다. 地域 社會의 生活에 關聯된 精神的이고 物質的 欲求를 集中的으로 잘 理解하는 사람이 學生의 訓練의 모든 段階를 決定되어야 한다.

2 a. 椅子 建物 全体 마을 또는 地域計劃等의 어떤 種類의 design에 對한 接近도 空間에 있어서는 關係뿐만 아니라 社會的인 面에 있어서도 本質的으로 同一한 思考方式에 依해야 한다. 提示된 모든 것의 共通의 典型은 現實的으로 具現될수 있는 物質的이고 技術的 手段을 強調해야 한다. 왜냐하면 town이나 country에 있어서 우리의 人工的 環境이 모든 作品의 組織的 統一體의 部分 集合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三次元的 概念은 基本的인 建築의 規律이다. plastic art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視覺的 表現에 關한 興味를 刺戟시키는 方法은 먼저 보고 距離를 認識하고 human scale을 잡도록 訓練을 시켜야 한다. 그러한 方法은 三次元的 空間을 構成하고 그것의 構造의 効率 經濟手段 그리고 外觀의 調和等 생각해 낼수 있는 本能的 確実性을 획득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4. 知識은 오직 個人의 經驗에 依해서만 休得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designing과 building, — the drafting board와 job —는 모든 수준에 있어서 密接하게 關

聯되어야 한다. field practice는 分離된 經驗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고 數年間の 學問的 訓練 後에 履行된다 이 課程은 教科目에 必須的으로 參加 한다.

5. 첫번째 해에 —design and workshop practice 即 材料와 道具를 가지고 수행되는 三次元的 演習을 發展시킴으로써 構造와 建物の 構成要素들이 紹介 된다. 同時에 실제의 問題를 統合하는 design course는 地域社會의 生活를 增進시키는 社會的 目的 위에 集中시킨다. 計劃의 要素 設定에 關한 研究는 가장 理解가 빠른 이러한 初期 課程에 包含시킨다.

6. 두번째와 세번째 해 방학동안 field experience와 實驗室에서의 活動에 依해 많은 經驗과 넓은 知識이 서로 關聯시켜 補充될 것이다. “field experience”라는 用語는 事務室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工事場에서 監督者의 助手로서 直接 練習하는 것을 말한다. 6個月 以下의 field experience는 建築에 있어서 義務的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building industry에 關한 知識도 包含시킨다.

7. 構造는 design의 一部分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그것은 둘이 直接的으로 相互依存의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에 결 缺이 있는 限 發展될수 없으므로 양쪽을 同等하게 強調해야 한다. 또한 經濟的인 問題도 同時에 考慮되어야 한다.

8. 다른 사람들과의 協助하는 方法을 習得하기 위해서 關聯된 技術을 가진 사람들과 team을 짜서 일하는 訓練을 해야 한다. 이것은 計劃의 着想과 遂行 그리고 building project에 關聯된 많은 사람들의 統合表가 되기 위한 重要한 任務를 그들에게 準備시켜 줄 것이다. team work의 本性은 사람의 耳目을 끄는 絶치레쁜인 design

보다는 잘 統合된 建築이 되도록 인도 하계될 것이다.

9. 歷史 研究는 위협과 모방을 避하기 위해 첫번째 해보다는 세번째 해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성숙된 學生에게 過去의 傑作의 根源을 分析하도록 도와야 하고 지난 時代의 宗教 社會的 興件과 建築概念을 보여 주어야한다.

10. 教授들은 設計와 建築施行 兩面에 있어서 그들 自身의 充分한 실제적 經驗後에 任命되어야 한다. 學問的 訓練을 바로 마친 젊은 사람이 教授로 從事하는 傾向은 좋은 것이 못된다 많은 經驗을 가진 사람들만이 學生들을 貴性있게 자극하기 위해 必要하고 豊富한 기략을 모을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教育은 자극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自己 自身의 才能을 使用하고 싶어 하계꿈 만들기 때문이다. 建築과 工學에 있어서 모든 教授들은 private practice에 對한 權利를 가져야 한다. 이것만이 그의 豊富한 기략을 補充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機會가 없으면 그는 곧 衰退해 버리고 結局 權威者席으로 물러나 가계될 것이다.

11. 100名 또는 150名 稅度 規模의 建築學校가 큰 規模의 것보다 더 効果的이다. 學校에서 가장 價值있는 분위기는 모든 活動에 있어서 教職員과 學生의 相互的

12. 가르치는 成果의 効率は 教授에 對한 學生數에 달려있다. 建築家의 訓練은 學生 自身의 個人的 才能과 発達狀況에 接하도록 學生을 돕기 위해서 個人的 訓練을 要求한다. 教授에 對한 學生의 바람직한 數는 많아야 12~16名이어야 한다.

以上은 walter Gropius의 著書 Scope of Total Architecture에서 要約한 것이다.

參與에 起因한다. 따라서 큰 規模의 學校에 있어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서울大學校工科大學 教授

建築士の 建築創作風土 改善策

[2]

梁 元 永

과. 建築主에 대한 앙케이트 調査結果

(1) 設計事務所를 선택하는 경위 응답자 36명중

친지의 소개로 : 14명

단골사무실이므로 : 18명

기 타 : 4명

(2) 建築許可 과정에 各種 具備書類 準備過程 난관 여부

응답자 36명 전원이 어렵지 않다는 답변

(3) 工事過程에서 違法工事を 하게 되는 경위

응답자 24명중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므로 : 11명

違法인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 4명

경미한 위법이므로 : 4명

기 타 : 5명

(4) 만일 担当 建築士가 아닌 타 기관(建築物 공동監理단등)에서 建築物 監理를 하게 되고 竣工검사 신청도 감리단이 위임받게 된다면 違法行為 与否

응답자 28명

그래도 사소한 위법행위는 불가피하다. 6명

違法行為를 할 수 없다. 22명

모르겠다. 0명

(5) 竣工시 具備書類 준비과정 난관여부 응답자 26名中 대체적으로 수월하다는 답변.

이상에서 檢討한 바 建築許可 및 竣工시 具備書類는 대체적으로 수월하다는 답변이나 그 이유는 設計事務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세 - 비스行為(즉, 각종 구비서류를 설계사무소에서 준비하여 준다)의 결과가 크지 않나 생각된다.

違法工事を 하게 되는 동기에 처한 답변은 응답자의 45%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음을 믿고 위법 行為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建築士가 告發하지 않고 적당히 준공처리하여 줄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建築士의 業務上 隘路中 가장 重要한 문제이며 또한 建築士의 새로운 업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만일 担当 건축사가 아닌 타 기관(건축물 공동감리단등)에서 건축물 감리를 하게 된다면 위법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위법행위가 불가함을 말해주고 있다.

즉 인과 관계로 맺어진 建築士가 아닌 타 기관에서 공정히 처리한다면 違法行為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규모 建築物의 監理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제 3 장

제 1 절 建築士 業務의 問題點

建築許可 対象地域: 建築法이 제정된 1962年度에는 都市計劃 区域内에만 建築許可를 받도록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現在는 市, 邑, 面, 區域은 물론 国土이용관리법에 의한 基準地價 고시 対象地域, 国道, 地方道, 철도연변구역, 공업지역, 취락지구등 전 국토에 걸쳐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許可를 받아야 할 建築物: 建築法 第五條에 의거,

1. 특수 建築物用에 공하는 연면적 100 m^2 이상의 것

2. 연 면적이 300 m^2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복조의 건축물.

3. 연 면적이 200 m^2 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都市計劃區域, 国土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地域,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區域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建築許可対象區域은 全国土에 걸쳐 實施 하고 나날히 發展하는 国力에 비례하여 각종 建築物의 수요는 모든 建築資材 生産能力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모든 建築物은 大形化하여 가고 그 구조設備 계획등이 고도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과거 1 人의 建築士가 처리하던 건축계획이 現在는 분업화되어 建築計劃, 構造 계산, Design, 전기설비, 위생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공기조화 설비등 各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建築기술에 발을 맞추고자하면 建築士는 항상 새로운 知識을 習得하고 研究하여 새로운 建築

創作活動에 總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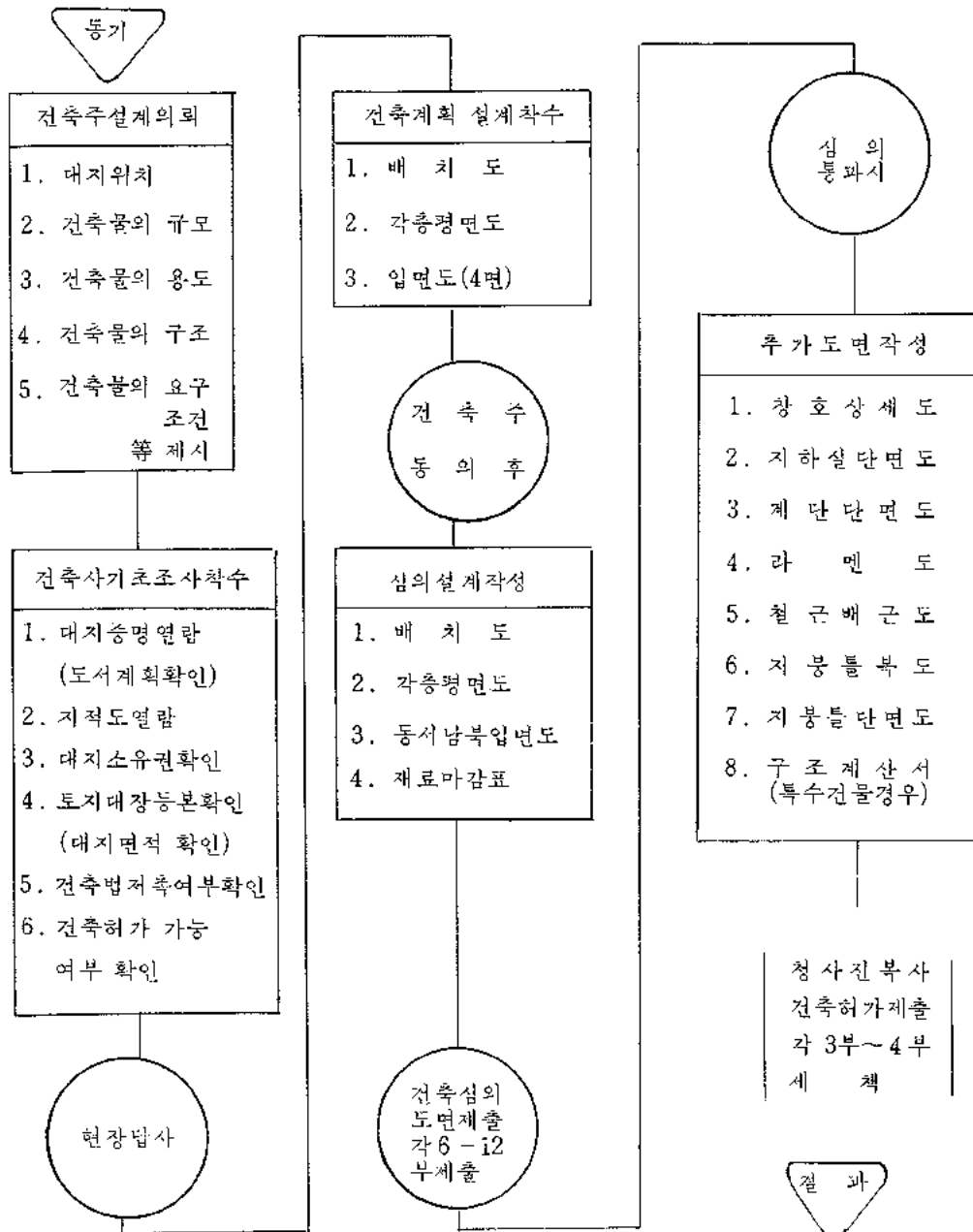
제 2 절 建築許可에서 준공까지의 過程

建築許可는 建築法 제 4 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郡守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建築設計를 수임받는 建築士가 設計行爲를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필증을 교부받기 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建築 설계 과정도

〈표19〉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建築士의 業務量은 莫大한 것이다. 아무리 작은 規模의 建築物이라 할지라도 建築計劃에서 竣工까지의 過程은 믿어지지 않을 程度의 많은 作成, 提出等 過程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創意的이고 獨創的 作業이 아니라 틀에 박은듯한 구비도서를 製作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돌듯 아까운 時間만 浪費하는 이過程을 效率的이고도 간결하게 縮小시키는 方法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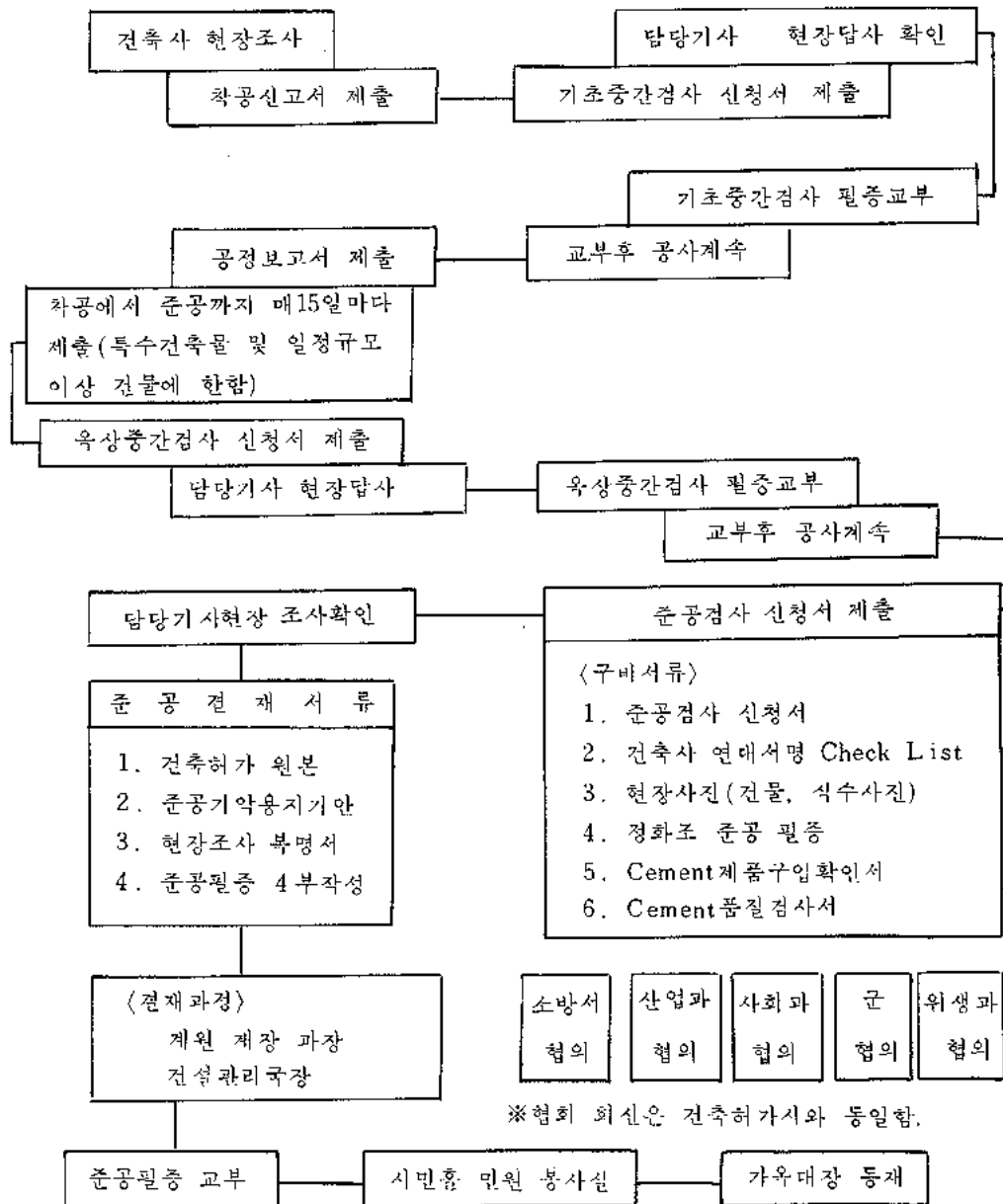
그 아까운 時間들을 모아 敎育, 研究, 創作, 開發에 消費한다면 얼마나 좋은 創作物이 나올것인가. 모든 制度는 不信에서 비롯된다. 良質의 設計圖에 의거 良質의 建築物을 준법되게 시공한다면 그 많은 過程들은 必要 없을 것이다.

設計圖書는 시공을 위한 圖面이면 足하다. 행정관서에 서는 家屋台帳만이 必要한 것이기 各個 建物의 圖面이 必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一棟의 建築物을 세우기 위하여 수십부의 設計圖가 관으로 接受되어야 할 必要가 있을까. 비단 建築士만의 일이 아니다. 各 區廳 建築課 圖書倉庫를 연상해보자. 數萬件의 設計圖書가 어지럽게 진열되어 있다.

매년 累續되고 있는 未決件으로 인하여 担当公務員의 業務量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莫大한 業務量으로 인하여 設計圖의 분실, 毀損等 合理的인 圖面管理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한창의 카드에 모든 것을 記錄하여 行政의 能率化를 期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에서 준공까지의 과정

〈表22〉



建築審議 제도과정을 檢討하여 보자.

一定規模以上の 建築物은 市廳審議를 받고있다. (表-20)에서 보듯이 그 많은 圖面을 設計하여 各種具備書類를 添附하고 現場写真 12매, 투시도 칼라사진 12매, 정성을 다한 투시도 1점등 아무리 작은規模의 建築이라 할지라도 20日~1個月의 時日을 所要하여 作成한 일전 서류 12部를 接受한다.

接受하는 建築士의 心情은 大學入學 試驗을 치루는 受験生의 기분이랄까.

그러나 結果는 大部分 애매모호한 事由이다. 즉, 平面計劃修正, 입면도 再構想 等 20餘日間 公들인 圖面을 불과 5分内外의 時間의 檢討로 當, 落의 判定을 내린다.

辯護人도 証人도 피고인도 없는 裁判이 數分間에 이루어진 것이다. 무자비하고도 獨善의인 재판이 아닐수 없다. 建築法 適法与否를 가리는 審査가 아니고 주관적인 問題에 처한 判定이다. 建築物은 造形藝術이요, 創作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다.

이 時間에도 많은 建築學徒가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렇게 배워준 教授님들이 弟子들의 創作品에 메스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중에는 매우 조잡한 設計圖書가 없지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선별은 有能한 建築職 公務員이 能히 가릴수 있는 問題이다. 이처럼 莫大한 人的, 物的, 時間的 損失을 감수하면서 審議制度를 最上의 方法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여튼 大部分의 審議圖面은 반려되어 나온다. 그 어렵게 作成된 一件圖書와 투시도(市價 約5~10萬圓)는 한 쪽구석에 내동댕이쳐진다. 아무나 집어가고 짓밟히고 나머지는 쓰레기통 경유 소각되어 버린다. 一件 數십만원의 国力이 浪費된 것이다.

本研究者가 審議로서 1件製作原価를 計算하여 본즉 (規模: 2種 미관지구, 址地100坪위 3層建物 연면적 660m²) 約246,600圓의 計算이 算出되었다.

서울市廳建築課에 1年間 接受되는 審議申請件數에 위 의 經費를 計算해 보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 하물며 各 區廳 및 全國 主要都市의 審議件數를 計算하면 天文學的인 數字가 나올 것이다.

本研究者의 調査에 의하면 서울市에 接受되는 審議申請書 總 經費의 品 該當하는 金額만 가지고도 全國 建築士 및 建築職 公務員에게 아주 効果的인 教育을 實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資質向上 및 實力培養으로 建築審議하위의 近視眼的인 建築行政은 必要없게 될 것이다. 人力은 곧 資本이다. 人力정시현상은 없어야 한다.

建築士는 어느分野 못지않게 國家에 必要한 高級人力인 것이다. 제도만능 주의에서 脫皮하고 教育, 理解, 協助의 유도행정으로 国力의 集大化와 効率化를 期하여야 한다.

제3절 建築工事 過程

建築工事에서 竣工까지의 過程은 <表22>와 같다.

各 區序別로 다소의 差異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統一되어 있다.

1. 着工申告書: 提出時期는 착공후 1주일內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建築主의 연락을 받거나, 建築士自意로 現場調査한 後 제출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水平規準를 設置는 監理者의 立會下에 실시되어야 建築線 및 隣接址地 境界線과의 所定거리확보에 이상이 없겠으나 履行이 되지 않고 있다.

지적 공사에서 측량한 경계는 址地主의 손에 의하여 불과 60cm정도의 나무 말뚝을 박아 놓는 것이 상례이다.

몇일후 건축사가 수정 規準를 확인차 현장 출장하여도 그 미덥지 못한 말뚝을 기준 할수 밖에 없다. 대부분이 위법 건축물 혹은 그 많은 진정 사항이 이웃간의 경계시비와 소정거리 미확보로 인한 분쟁임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허술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건축물이 준공된후 경계시비가 발생하여 지적공사에 재측량을 의뢰하여 보면 약 30cm정도의 오차가 생기기도 한다. 측량사의 변명인즉 30cm의 오차는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는 답변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수 없고 편한 직업이기도 하다.

그처럼 발생한 오차로 인하여 건축사 3인이 애매하게도 몇 개월씩 영업 정지를 당하고 신문에는 불실 악덕 건축사로 보도가 되고 해야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측량 오차 30cm는 아주 후한데 반해 측량사가 아닌 건축사에게는 소정거리 10cm 부족으로 연대 건축사 3인을 무더기로 징제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제도임에 틀림 없다. 건축사가 어떻게 현장 관리를 하여야 경계를 정확히 보전 할수 있는지 관계당국의 답변을 구하고 싶다. 경계 말뚝을 꼭 끌어안고 기초가 끝날 때까지 몇일간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어도 30cm 오차는 막을길이 없다. 결과 적으로 건축사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가 본의 아니게 위법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지를 확대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하면 우선 지적 원선 지적 원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청 구획정리과에서는 이 지적 원도를 발급 하여 주지 않고 있다. 건축사는 할수 없이 대지 증명이나 환지 지구 일때에는 경계명시 측량 필증에 첨부된 측량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지를 확대하고 있다.

주위 가로망 또는 시중 청사진 가계에서 발매하는 청사진을 참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지증명에 첨부된 지적도로 설계사무소에서 대지 확대하여 건물배치하기는 정확치 못한 지적도이다. 대지증명에 첨부된 지적도 하단 비고란 제1번에 다음과 같이 단서가 붙어 있다.

1.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지증명은 복사기에 의한 지적도임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지지구일 경우 지적공사에서는 지적 원도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중 지적도를 그려주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다. 수차 그 시정을 요구하여 보았으나 현장 말뚝이 있으니 그 말 뚝을 참고로 하여 배치도를 그리라는 것이다. 매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짓고 지시 측량 필증을 요구하면 당연히 지적 원도에 의한 지적도를 도시하여 주어야겠고 현재 불펜으로 그리고 있는 제도를 바꾸어 오구로 참목하여 정확하게 도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평판 측량에 있어서 측참의 크기도 1/1200일 경우 전 주크기의 오차가 생길수 있는데 하물며 불펜으로 그리는 지적도는 1m내외의 오차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적협회에서 조금만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건축행정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명확한 지적도를 확대하여 배치한 배치도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이웃간의 분쟁은 물론 건축사들을 당황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접매지 경계 선과의 소정 거리가 외국의 예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매지의 영세성을 지닌 조건에서는 한 뼘 의 매지에도 무서운 애착심과 보호 의식이 작용하여 진정 혹은 분쟁과 심지어는 소송에 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소정거리 확보가 違法건축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勘案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緊要하다. 또한 境界測量制度의 補完이 시급하다. 측량공사에서 일단 측량한 경계선의 保存方法이 必要하다.

대부분의 경계紛爭이나 違法建築物이 경계선 불명확에서 發生되는 만큼, 開發地域의 경계선은 가로망선에 따른 永久말뚝으로 地下에 埋立함으로 인접매지주가 하더라도 必要時에는 永久말뚝을 기준으로 경계를 確認할 수 있도록 제도적 補完이 필요하다.

2. 基礎中間檢査申請書: 건축주가 지중보 혹은 地下室 바닥 配筋을 끝낸후 건축사에게 通報하면 건축사는 現場檢証後 기초중간검사 신청서를 提出한다. 申請書を 接受받은 担当公務員은 現場出張확인후 기초중간검사 필증을 交付하여 준다. 그 기간은 약 3일이 所要된다. 規定대로 한다면 건축주는 기초중간검사 필증을 交付 받기 前에는 공사를 中断하고 있어야 한다. 遵法精神이 투철한 건축주가 있어 규정대로 공사를 한다면 큰 애매 봉착할 것이다. 근래와 같이 人力難인 時代에 미리 콘크리트공을 手配하지 않으면 工事が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契約을 맺었다 하면, 建築職 공무원이 소정 기일내에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違約이 되는 것이고 違約時에는 契約된 人件費는 그대로 支払하여야하게 된다.

근래와 같은 建築技能工不足現象下에서는 技能工의 工事契約이 항상 밀려 있으므로 건축주의 애로는 매우 큰 것이다.

바단, 基礎中間檢査만이 아니고 屋上 중간점사도 같은 케이스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기초중간점사 및 옥상중간점사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사기간은 공사비와 비례한다. 공사기간의 延長은 공사비 上昇을 뜻하는 것이다. 제도란 아주 대수롭지 않는 事項이라 할지라도 전 國民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 生覺한다.

적절한 시정책이 요망된다.

3. 工程報告: 건축사는 감리건축물의 工事が 着工된 後竣工까지 매 15日마다 공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모든 建築物의 工程보고서가 어김없이 15日마다 건축과에 제출되고 있다. 과연 그 報告書대로 건축사가 어김없이 15日마다 現場檢査를 하였을까, 本 研究者도 設計事務所를 經營하면서 工程報告書を 爲하여 현장 조사한 記憶이 거의 없다.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各 工事場마다 매 15日마다 檢査한다는 것은 매우어렵고, 時間的으로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건축사에 責任을 지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면 改善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제4절 竣工過程

건축물이 준공되면 1週内に 竣工檢査 申請書を 提出하도록 되어있다. 준공에 필요한 具備書類는 비교적 簡素하다. 그러나 모 区庁에서는 비 住居用 建築物에 限하여 竣工写真까지 添附시키고 있다. 確認行政의 철저한 措置라 생각한다. 그러나 改善의 여지가 있다. 비주거용은 担当公務員이 現場調査를 한 후 준공처리 하여주고 있다.

建築職 公務員이 현장조사를 하였다면, 写真까지 添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장사진을 건축주에게 依頼하여 撮影하여 오면 官에서 지시한대로 촬영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건축사가 현장 출장하여 正面사진, 側面사진, 植樹 사진, 前面道路舗裝사진등을 撮影하여 現象을 말긴다. 竣工行為가 수서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림 한통을 購入하여 1건 촬영하고, 현상을 말기면 나머지 필림은 버리게 된다. 國家的으로 막대한 損害다. 건축사는 본의 아니게 写真師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수차 区庁長에게 陳情하였으나 是正이 되지 않고 있다. 즉 区庁長 혹은 建設管理局長은 부하 職員의 현장조사도 믿지 않는다는 結論이 나온다.

竣工具備書類에 前面 道路舗裝사진을 첨부하도록 措置한 区庁도 있다. 새마을 안길 舗裝事業을 推進하고자 하는 熱意와 궁여지책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서울 외곽지대 開發地域은 보도부력을 깔아도 공사용 추력의 通行이 頻繁함으로 대부분 破損될 것이 自明한 일이다. 그러나 깔

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일부 建築主는 보도
부락을 깔고 写真撮影을 하여 일단 竣工畢을 交付받음과
동시 撤去해 버린다.

건축사는 이런 일에도 関与해야 하고 神經을 써야한다.

第5節 住宅建築許可節次 改善力案에 의한 業務量

1976. 7. 1부터 住宅건축허가절차 개선방안(國務總理
指示覺書제 8호)에 의해 660m²미만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建築士 3人 共同責任下에 連署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建築許可: 건축허가 신청 檢討報告書만에 의거 8 근무
시간 이내에 許可処分하고 建築士 및 建築主에게 許可通
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軍事施設 保護区域内의 住宅인
경우에는 管轄軍부대에 協議 要請하고 協議 3일후 8時
間勤務 以內에 許可処分하고 許可通知를 하여야 한다 라
고 되어 있다.

竣工検査: 준공검사 조사서만에 의거 8 근무시간 이내
에 준공검사 処分하여 建築士에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
한다. 라고 되어 있다.

違法事項: 前項의 違法事項에 對한 措置는 아래 범위내
에서 엄중조치하여 일벌백계의 실수를 거두도록 한다.

建築物: 使用禁止(단, 故意없이 극히 輕微한 違法을 한
경우에는 改修命令)와 電話, 電氣, 水道의 供給禁止

建築主: 告 発

建築士: 免許取消 또는 登録取消과 告 発

이상과 같은 住宅建築行政의 일대 刷新策을 매다수 건
축사는 歡迎으로 받아 드렸다. 그것은 建築許可 및 竣工
의 迅速한 처리에 매료되었음이며, 違法建築物發生에 3
人 건축사가 相互 抑制作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安逸한
생각에서였다. 또 하나는 違法事項에 대한 措置에 큰 期
待를 가졌었다. 종전 건축사일변도 責任追窮에서 위법건
축물에 대한 조치에 違法建築物 使用禁止 또는 撤去, 전
기, 전화, 수도 등의 斷切, 건축주告發등 일벌백계의 실
수를 건우했다는 條項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期待가 크면 失望도 크다고 하였듯이 許可竣工이
8 근무 시간내에 처리된 일을 記憶할 수 없고 위법 건축물
에 대한 措置가 規定대로 이루어졌다는 消息을 거의 들어
보지 못하였다. 단지 건축사의 苛酷한 懲戒만 있었을 뿐
이다.

만일, 正當대로 실시하였다면 77년도, 78년도 2年동
안 違法建築物로 인한 징계 건축사가 715名이므로 715件
의 건축물이 사용금지, 철거, 전기, 수도, 전화의 단절
이 되었어야 한다.

1개洞에 1件만 強力措置를 취하였어도 위법 건축물은
매우 줄었을 것이다. 3인 連署로 인한 具備書類도 건축
사에게는 過重한 業務量이 되고 있다. 건축허가 点檢표
(check list)에 건축사의 타이틀과 印章을 받는 過程도

어려운 일이며 着工申告書, 中間検査申請書, 工程報告書
竣工検査신청서등 모든 보고서에 連帶건축사의 署名捺印
이 필요하다.

타건축사가 항상 사무실에 근무중이면 모르나 現場監理
外出 地方出張, 休暇등 不在中일 때에는 몇 일이고 보고서
가 遲延되기 마련이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하여 아예 各種報告書에 두더기로
날인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實情이다.

타 건축사의 위법건축물이 발생시 建築士 3人이 同時
에 건축주를 訪問하여 是止策을 呼訴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며 타 건축사의 위법건축물로 몇個月씩 營業停止 処
분을 당하는 氣分은 남이 알지 못하는 悲哀이다.

第6節 建築士의 資質向上과 使命感

1. 建築士의 現實—建築士가 建築家로의 職業을 選択
할때 設計해서 致富해 보겠다고 選択한자는 거의 없을 것
이다. 芸術家は 우리나라의 現實로서는 배고픈 職業이었
으니까. 누구나 高邁한 理想과 抱負 그리고 멋진 創作의
꿈을 안고 建築에 情熱을 불태워 보았다. 밤을세워 設計
에 没頭하던 補助員 生活, 한장의 圖面에 没頭하다보면
날이 밝는다. 公休日도 없고 休暇도 없다.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젊음을 불태우면 研究時節을 누구나 갖고있다.

고통의 歲月이 흐르고 建築研究所의 所長이 되었다. 10
余年이 지난 오늘에도 零細性을 벗지 못하는 研究所들 10
余年 事務案에 테이블 몇개와 소파 한개, 그리고 設計台
몇개가 전부인 모습이 오늘의 現實이다.

옛날의 꿈은 사라지고 經營者로서, 建築士로서, 社會
의 被雇傭人으로서의 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東奔西走한
다. “顧客으로부터 電話가 오면 중국집 짜장면의 迅速配
達과 같이 즉각 찾아뵈러가는것이 現實의 모습이다.”(이
승우씨의 建築家의 使命과 보수 1975年 建築士 10年에 즈
음하여“오늘 그리고 建築”)에서의 一節이다. 너무나 비수
하고도 適切한 그리고 서글픈 表現이다.

“... 中略... 보체는 建築主를 代身해서 圖面보
따리를 들고 굴실거리며 얻어낸 榮光스럽기조차 한 建築
許可証을 찾아다 주면... 中略...”(이명환씨의「工事
監理」1978年 建築監理, 建築許可제도 및 建築審議에 關한
Symposium에 즈음하여)에서,

그러나 이모든 現實이 누구의 責任도 아닌 우리 스스로
의 못난탓, 부족한 탓이라 생각해야 한다.

일을 獲得하기 爲한 모습을 보라. 拾數年間 하나의 學
門을 爲하여 그처럼 努力하던 學者의 모습이 아니다. 芸
術人의 모습은 더욱 아니다. 作品을 만드는 實力보다 많
은 作品을 빨리 獲得하고 處理하는 設計事務所만이 存在
하고 羨望의 對象이 된다. 社會와 野合하는데 能하고 안
되는 일도 되도록 만들며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드는 建築

士야말로 똑똑한 그리고 有能한 建築士이다. 卽經營에 能한 사람이 頭角을 나타내게 되어있는 現實이다. 先進國의 建築士와 같은 自由로운 그리고 豐足한 創作風土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 制度의 急作스런 改善을 要求하기도 아직 어렵다. 주어진 條件下에서 學門에 歸依하고 自己完成에 疎忽하지 않아야 하며 社會의 使命에 게울리 하지 않아야 겠다. 建築家의 品立向上에 責任感을 가지며 善隣하는 마음가짐이 必要하다.

2. 建築士의 使命

1964. 年 4 月 建築士法이 發効된지 어언 13年의 歲月이 흘렀다. 全國 1,600余會員이 짧은 年輪속에서 長足の 發展을 하여 왔음에도 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6.25로 因한 廢墟속에서 오늘과 같은 都市建築을 이룩하였다 는 점만 가지고도 결코 그 功過를 過少評價할수 없다.

그러나 이 時點은 量的인 發展보다는 質的인 向上을 要求하고 있다. 建築物은 歷史性을 지닌 만큼 後代에 부끄러움이 없는 作品을 남겨야 할것이다. 우리는 전통文化의 繼承과 先進技術의 適切한 消化에 게울리 할 수 없으며 새로운 技術開發과 制度의 改善에 傍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使命이다.

제4장 結 論

以上에서 檢討하여본 바 建築士가 그 본연의 業務에서 充實치 못하고 制度에 얽매어 있음을 알았다.

制度의 適切한 改善은 勿論 建築士의 質的向上과 使命感을 직시하여 과도기를 脱被하고 建築文化中興의 세시대를 전개할 態勢를 確立하여야 겠다.

1. 諸 法規의 미비점 을 補完하여 명량한 行政體制를

誘導하고 建築士의 創作風土를 改善하여 建築의 質的向上을 期하여야 한다.

2. 指示行政 일변도를 지양하고 教育, 理解, 協調의 誘導行政에 역점을 두어 相互 信賴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3. 감리제도의 改善과 감리비의 現實化로 建築士의 감리責任의식을 고취하고 違法建築物 發生 근절책으로 建築士와 시 공자의 違法行爲를 근절할수 있는 법적 補完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以上 짧은 研究期間에 미쳐 다루지 못한 改善方案에 對하여 앞으로 研究할바 크다고 하겠다.

參 考 書 籍

1. 이 경 회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組織 實態에 對한 調査研究 建築士誌 第86号 87号 1976.
2. 이 영 현 改定 建築法 및 同 施行令 해설 建築士誌 第108号 1978.
3. 김 회 훈 建築 行政 機構 改定을 促求한다. 建築士誌 第116号 1978.
4. 大韓建築士協會 住宅建築許可 절차 改善方案 實施에 관한 건의 建築士誌 第88号 1976.
5. 최 창 규 建築行政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오늘 그리고 建築 大韓建築士協會 1975.
6. 이 승 우 建築家의 使命과 보수 오늘 그리고 建築. 大韓建築士協會 1975.
7. 이 명 환 공사감리
이 문 보 建築許可制度
김 진 일 建築設計審議
建築감리, 建築許可制度 및 建築審議에 關한 Symposium에 즈음하여, 주제 논문 大韓建築士協會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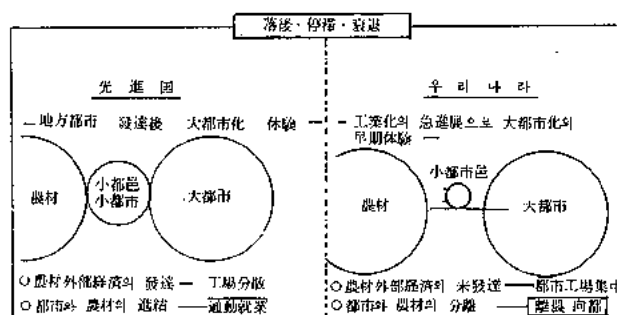
小都市 開發을 위한 適正生活圈 形成에 關하여

盧 椿 熙

1. 問題提起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第二, 三次産業을 為主로 한 經濟開發計劃은 前例없는 産業의 發展과 勞動力의 移動과 都市化(Urbanization)을 促進시킴으로써 激深한 地域隔差를 誘發하게 되었다. 따라서 大都市의 發展에 앞서 相對的으로 地方小都市 및 農村의 停滯를 惹起하게 되어 均衡的인 國土의 綜合的인 發展을 阻害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大都市와 農村을 連繫시켜주는 小都市 體系를 이루게 되었다. 西歐의 都市化가 中小都市化를 통한 大都市化에 로써 過程이었다면 우리나라는 都市民의 生活에 基本單位인 小都市의 經濟的 社會的인 基盤이 造成되기 前에 大都市化가 進行됨으로 小都市의 沒落은 加速化되어 간다. (表1 참조)

(表1)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은 國家 産業의 根本을 農業에 두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大都市와 農村中心의 小都市와의 甚한 隔差는 農村人口의 大都市로의 流出은 더욱 加速化하게 되어 農村은 勞動力이 不足하게 되며 大都市는 過密을 유발하게 되어 惡循環이 繼續하게 된다. 따라서 國土의 均衡的인 發展을 爲하여서는 全國土를 골고루 開發할 것이 要求되는바 都市民生活의 基本單位인 小都市의 開發이 무엇보다 時急하다.

2. 假說

- ① 小都市의 成長은 大都市 過密化를 解消할 것이나 地域發展은 小都市를 軸으로 하여 成長된다. (註1)
- ② 小都市는 周邊地域에 中心地로서 地域社會와 政治行政, 經濟 및 社會的活動의 主核이며 大都市와 連結하는 架橋이다.
- ③ 國土上에서 小都市는 都市 階層上 第一次的으로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基本的인 位置에 있다.
- ④ 小都市 開發 및 育成은 新都市建設보다 효율적이다.
- ⑤ 人間은 生活와 질서가 安定되고 능률적인 都市로 移動한다.

2. 研究範圍

都市開發에 目的을 都市人의 人間다운 生活圈을 形成하여 주는 것이다. 人口의 流動은 그都市가 얼마나 佳 좋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國土의 均衡的 開發과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이란 戰略的 開發을 目標로써 우리나라에 小都市中 開發이 疎外된 小都市의 人口, 産業 그리고 生活水準을 調査, 分析하여 國土空間에서 都市機能秩序를 確立한다.

3. 研究方法

小都市의 自然條件과 社會 및 經濟的條件을 類型別로 分類하고 生活圈形成을 爲한 開發模型을 樹立토록 한다.

따라서 自立推進的 成長을 이룩할 수 있는 最小限界의 都市規模를 確認하여 落後된 地域에 地方都市를 最小限界 都市 規模로 育成함과 아울러 大都市의 不利益을 同時에 해결할 수 있는 都市政策을 樹立하는데 있다.

類型別 開發戰略

1. 成長發展型.....發展要因
2. 潛在停滯型.....資源開發
3. 落後 쇠퇴型.....發展因子

4. 都市模型의 接近方法

1. 小都邑의 發展過程

가. 李朝時代까지

- 母胎 新羅神武王(AD689): 最初地方制度實施
9州, 5小京, 117郡, 293縣-郡, 縣所在地

- 「邑內」 隆熙元年(1907): 13道, 345府郡, 102邑內
1日步行距離 80里마다 形成-行政官庁所在地
「邑內」機能

- 道路, 河川等 接合地点-5日市場等 商去來機能
- 行政機關, 水當, 酒幕所在-各種 情報集積地

나. 開港 및 日帝時代(1876~1945)

- 開港, 開市: 地域秩序의 變化(鐵道·郵便·電氣等)
- 韓·日合邦: 地方制度의 改革(13道, 12府, 317郡)

日帝時의 小都邑

- 植民地侵奪의 必要上 郡 및 邑面(2,500餘個)所在地 育成
- 警察署·裁判所·農產物檢査所·子女教育機關等-統治拠点化
- 日本 本社의 商業發達을 爲한 原料, 勞動力 供給地로 轉落

다. 建國以後

- 1950年代: 混亂과 激動期
海外僑民·避難民의 流入-大小都市, 小都邑 定着 摸索
軍基地·炭鎂地帶의 登場-機能中心 小都邑 部分의 生成
教育需要·教育人口의 增大-初·中學校의 小都邑 設立
限定된 就業機會都市集中-小都邑基盤의 不安定

○1960年代: 相對的 衰退期

- 1. 2次經濟開發計劃의 推進-大都市開發에 重點 産業構造의 變化·都市人口集中-農村·小都邑의 衰退

(人口增加率: 全國 24.6% - 小都邑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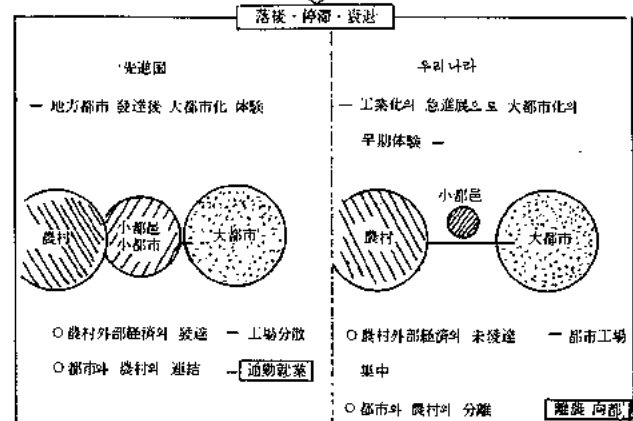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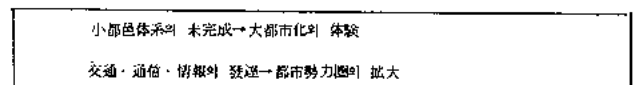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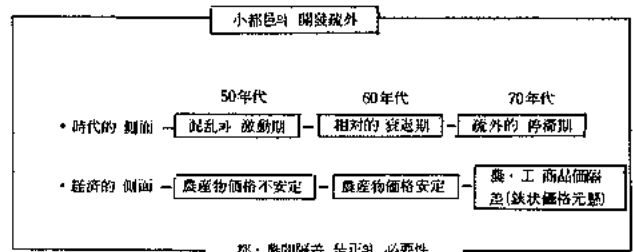
○1970年代: 疏外의 停滯期

- 高度産業化·巨大都市化의 急進展-都市集中에 拍車 새마을運動을 통한 環境·所得의 向上-農材의 安定
(人口增加率: 全國 10.4% - 小都邑 $\triangle 0.3\%$)

2. 小都市의 概念

小都市에 對한 正確한 概念을 規定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地域自治에 關한 임시조치법」第3條 2項에 依하면 人口 5萬이上으로서 都市의 形態를 갖추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人口基準에 依한 地方行政體系上의 区分은 多分이 主視의이다.

또한 都市의 基準으로서 人口規模는 그나라의 政治 및 行政的, 歷史的인 傳統과 긴밀한 關係가 있다.

“벤마크”는 200人以上의 취락을 市라고 하고 “프랑스”인 이스라엘에서는 2,000人을 美國과 “멕시코”는 2,500人을 基準으로 하여 都市로서의 性격을 規定하고 있다.

小都市의 概念을 定義하는 方法으로는 量的인 概念과 質的인 概念이 있는데 量的인 概念으로는 人口規模, 人口密度, 그리고 産業狀態를 고려하는 靜的인 方法이 있다. 靜的인 方法의 短点으로서 小都市가 處하고 있는 環境條件이나 機能上의 特質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첫째, 量的概念으로 人口規模로 보아 얼마의 크기면 우리나라에서는 都市의 性格을 가지겠느냐 하는 問題를 좀더 具體的으로 調査 分析 研究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5,000人以上 1萬名에 人口規模를 갖춘 地域은 農村的인 것보다 都市的인 機能을 顯하게 나타내고 있는것 같다.

둘째, 質的概念(機能)

어떤 小都市라고 農村의 性格보다는 都市로서의 機能의 特性을 가진 都市도 있다.

都市의 概念을 機能的으로 考察한다는 것은 都市가 안고 있는 地域的 環境條件이나 특성에 따라 制約을 받지 않는다는 點이 있다.

따라서 動的인 小都市의 概念을 定義하면,

1. 小都市는 周圍農村의 中心地로서의 機能을 갖는다.
2. 小都市는 周辺大都市의 補助的機能을 가질 수 있다.
3. 小都市는 大都市와 農村의 中間的單位로써 農村과 大都市를 연결하는 結節點을 機能의 갖는다.

小都市란 都市와 農村을 連結하는 中間地帶로서 都市型 취락을 形成하고 있는 地域

1. 都市 農村間 橋梁의 機械都市
 - ① 周辺村落에 對한 支援기능
 - ② 隣近都市에 對한 補充機能
 - ③ 農村經濟에 對한 拠点機能
 - ④ 背後地域에 對한 文化機能
 - ⑤ 都市環境시설의 脆弱性

〈表1〉 人口規模別 人口定住係의 國際比較

人口規模	韓 國	日 本	美 國	印 度
100万以上	3	10	5	9
50~100万	3	7	21	(4)
30~50万	2	32	51	
10~30万	20	126	131	
5~10万	23	202	334	221
4~5万	6	251	761	652
3~4万	22			
2~3万	68	264		
1~2万	46	828	1,907	988
3,000~1万	317	1,531	8,225	4,974
計	512	3,257	11,535	6,985

資料：韓國, 內務部：韓國都市年鑑(1975)

日本, 建設部：住宅都市調査(1975)

美國, US Bureau of census statistical
Abstracts 1966, P15

印度, Ministry of works and Housing, Towards A Human Settlement policy in India 2001, 1976, P 53

도 시 정 의(규모)

한 국

경제기획원 안：다음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행정단위(시, 읍, 면)

- 1) 단위 행정구역의 인구 50,000이상
- 2) 단위의 4 가지 요건은 모두 만족하는 단위행정구역
 - (1) 인구 30,000이상
 - (2) 밀도 1,000명/km² 이상(미국 588명)
 - (3) 농업취업인구 비율 40% 미만
 - (4) 전기 보급률 40% 이상지역

전 설부 안：

- 1) 인구 20,000이상 행정구역
- 2) 거정부락중심 반경 1킬로미터권내
 - (1) 인구 10,000명 이상
 - (2) 밀도 3,000명

상 공 부 안：

- 1) 단위 행정구역의 인구 50,000이상지역
- 서울특별시 안：경제기획원 안 2) 조건동의

경 기 도 안：1) 인구 30,000이상

- 2) 밀도 100명/평방킬로미터 이상
- 3) 농업취업인구 비율 40% 미만
- 4) 전기보급률 50% 이상인 지역

충 청 북 도 안：경제기획원 2) 조건동의

충 청 남 도 안：1) 경제기획원 2) 조건중 인구 30,000 이상을 인구 20,000이상으로 제안
이유：읍단위 행정 구역내 인구를 20,000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경 상 남 도 안：경제기획원 2) 조건동의

제 주 도 안：인구 50,000이상 행정단위지역

농 수 산 부：당국의 안에 동의

보 건 사회 부：〃

전 라 남 도：〃

미 회 신：부산시, 전북, 강원, 경북

반 송：내 무 부

외국의 도시 규모

카 나 다：1,000명 이상 주민의 타운 및 빌리지

미 국：주민 2,500이상

밀도 1,500이상 / 평방마일
580이상 / 평방킬로미터

일 본：통상주민 30,000이상 도시자치구

필 리 핀：밀도 1,000이상 / 평방킬로미터 자치구

벨 기 예：주민 5,000이상의 자치구

불 란 서：인접한 집들간의 사이에 200미터 이상이 되지 않는 곳에 살고있는 주민 2,000명의 자치구

이 태 리：농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50% 이하를 가진 자치구

3. 小都市 開發의 必要性

1) 国土의 均衡의 開發

- ① 大都市의 人口 및 産業再配置計劃의 地方의 受容 基盤의 造成
- ② 都市機能 分担 秩序의 확립에 依한 国土의 均衡의 開發促進
- ③ 背後(Hinter land) 農村地域開發의 先導的 拠点 小都市開發 및 育成

2) 國民生活水準의 平準化

- ① 地域拠点を 中心으로 한 農村의 社會的 都市化 構造
- ② 産業의 高度化에 따라 減少하는 農民의 轉業對策과 人口定着 基盤造成
- ③ 地域 經濟圈의 最效率의 單位로서의 小都市 開發 育成

4. 小都市의 開發方向

1) 小都市는 周辺農村의 中心地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기 爲해서는 小都市의 勢力圈에 들어 있는 農村地域을 對象으로 廣域的 施設의 開發이 要求되며 周辺農村과의 密着된 連結이 必要하다.

1) 小都市가 周辺大都市와의 補助的 機能을 갖기 爲해선 觀光慰樂 中心機能과 大都市의 住居機能을 補助하는 Bed town 혹은 衛星都市로서의 機能 그리고 大都市의 自給을 補助할 수 있는 農業中心의 機能이 必要하다.

3) 小都市가 自体로서의 生存能力을 갖기 爲해서는 充分한 背後地의 開發이 必要하다. (註2)

4) 小都市를 大都市와 農村의 中間單位로 볼때 小都市의 開發은 農村에 小單位 취락으로부터 大都市까지의 生活圈의 構造를 組織化함으로서 生活圈의 各 段階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5. 小都市의 機能과 形態

1) 機能

小都市의 發生은 歷史적으로 特殊機能을 遂行하기 爲하여 生成되었다. 特히 農村을 背景으로 한 地域에 서비스機能을 遂行하기 爲하여 成長한다. 漁村이나 鎭村이나 觀光慰樂機能을 中心으로 發達한 小都市도 있지만 定期的인 市場에 位置로서 駟馬는 새로운 交通手段으로 發達되면서 交通의 結節點(NODE)로서 小都市가 形成되기도 하였다.

1) 서비스 奉仕者

小都市는 農村背後地域의 서비스 中心地로서 商品의 買入과 交通, 通信, 金融과 國民의 基本의 生活便益서비스 保健, 医療, 保安等を 提供하는 場所로서 人113,000名程度의 小都市가 立地하는 定期的 市場이 開發되고 日常生活用品과 農機具 商店이 있으며 面 서비스로는 事務所, 郵便局, 醫院, 問易飲食店, 旅人宿, 茶房, 주점 農協支所또는 單位組合등이 있다.

2) 改革者

小都市는 消費的인 서비스機能만을 提供할뿐만 아니라 積極的인 改革者가 刷新의 源地로서 重要的 位置에 있다.

意識構造의 變化라든지 開發效果의 空間的 확산을 一般적으로 大都市, 中都市, 小都市 農村으로 내려가는 空間的 階層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小都市는 國家政策 執行의 저면확대나 침투효과의 學揚의 媒介者이며 政策執行過程에서 展示效果를 最大限으로 波及시킬수 있는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① 形態

小都市의 形成過程은 歷史的, 文化的要因인 自然的 立地 條件에 못지않게 作用하는 바 各國은 그 文化的 差異에 依하여 各基 特殊한 都市形態를 이루게 된다.

獨逸의 代表的인 취락형태인 街路型和 廣場型은 英國의 것과 比較할때 서로 相異한 形態를 보이고 있으며 (圖참조)

美國의 경우 初期의 移民에 依한 취락의 形態는 管理規

模, 方式등 變化로 因하여 새로운 形態들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圖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自然的 立地條件의 面에서 考察해 볼때 山이 많고 平野地帶가 極히 적기 때문에 扇狀地나 丘陵의 기슭 또는 河巖丘등의 位置에 小都市가 展開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社會的 側面에 氏族觀念이 濃厚한 集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伝來의 營農類型인 畵作을 爲해서는 水 落을 形成하는데 重要的 要素가 되었으며 이러한 地形 및 水源의 條件때문에 취락은 平野의 中央이라기 보다는 丘陵에 位置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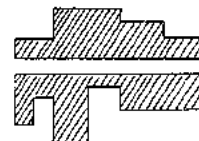


圖 形

우리나라의 경우 韓族의 특은 畵作으로 畵된 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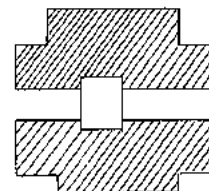


圖 形

유럽 소도시 위상은 오각형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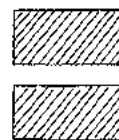


圖 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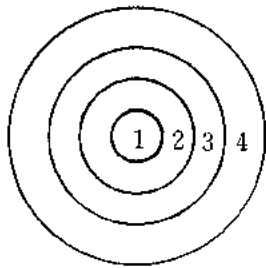
거포면에 따라 취락형성 우리나라형

5. 理論的 背景

1. 大都市 模型

① 都市의 中枢管理機能이 立地한 業務中心地區(CBD)를 核으로 하여 隣接地域으로 門型을 그리면서 계속 팽창한다는 理論으로 1920년대 버거스(E. W. Burgess)가 主張한 同心圓理論 (Concentric Zone Theory) (註1 圖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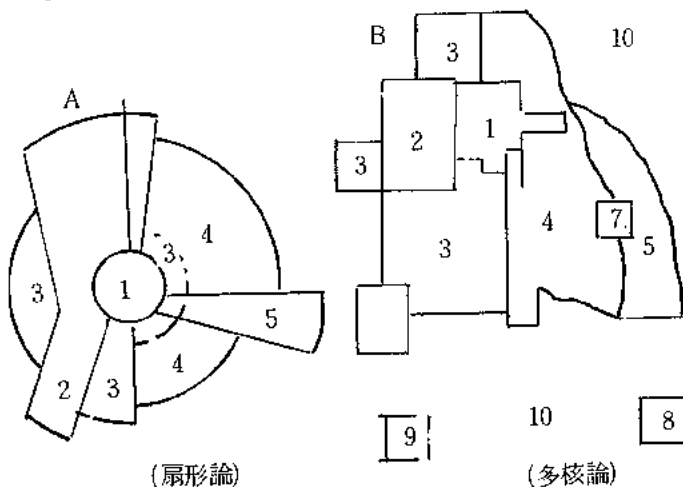
〈圖1〉 同心圓理論



- Zone 1 : 中心商業地域 (Central Business District)
- Zone 2 : 轉移地域 (Zone of transition)
- Zone 3 : 勞動者 住居地域 (Zone of Workmen's Homes)
- Zone 4 : 中産層 住居地域 (Zone of better Residences)
- Zone 5 : 通勤者 居住地域 (Commuters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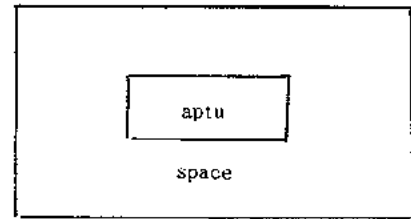
理論으로서 現代 都市社會에서 일어나는 힘의 分散을 막기 爲해서는 重要한 公共施設物의 適正配置된 施設物들은 步行者를 爲한 道路組織에 依하여 空間적으로 連結되어야 한다. 步行道路組織과 綠地系統이 住居地域에 内部構造를 形成하게 되며 車道와 步行者道路를 分離한다. (圖참조)

〈圖2〉 多核論과 扇形論



- 1. 中心商業(業務) 地域 (C. B. D)
- 2. 都売 및 輕工業 (Wholesale - Light Manufacturing)
- 3. 下層 階級住居 (Low - Class Residential)
- 4. 通勤者 居住地域

〈圖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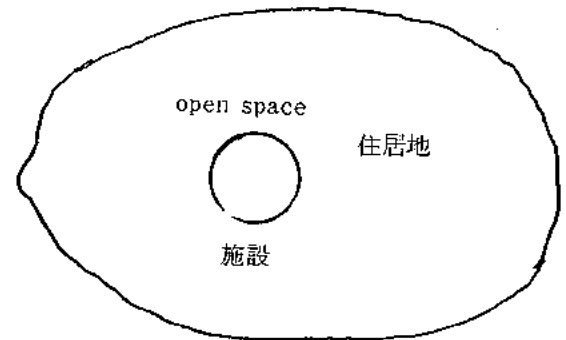
② 近隣住区 模型

近隣住区 模型은 都市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住居地域을 開發함에 있어서 住民을 中心으로한 住民의 便利를 爲한 計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提示하여 준다.

1. 中心에 自由空間 (open Space)理論 (Organic Theory of City Planning) (H. Harry, 1944)提晶한 都市計劃에 있어서 有機的 組織

2. 中心部에 中心施設을 配置

A Program for City Relonstruction W. Gropius, 1943近隣住区地域은 中心施設을 둘러싸고 있어 生活에 焦點을 形成하게 된다. (圖4 참조)



近隣住区의 周圍로는 大單位農耕地를 確保함으로써 그地域의 自給自足을 도모한다.

各 近隣住区는 다른 核으로부터 充分히 分離되며 住区의 規模는 알맞는 步行距離를 維持할 수 있도록 羊經 1 mile로 制限한다.

3. 中心施設分散配置 (Neighborhood Unit)

Clareuce Perry 1929, 個個의 住居單位의 周圍環境은 함께 存在해야 하며 近隣住区内의 自東車交通은 禁止되어야 한다. 近隣住区内에 設置될 수 있는 施設은 住居施設이나 國民學校.

規模: 學校를 中心으로 하여 羊經 $\frac{1}{2}$ mile 限定

境界: 通過交通을 主로하는 幹線道가 地區의 境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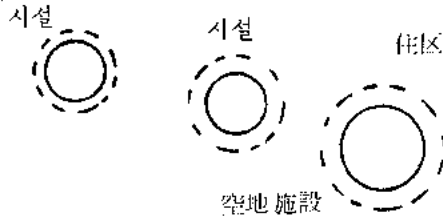
自由空地: 全面積의 10%

公共施設: 住民의 奉仕를 目的으로 하는 시설은 中心에 位置 (圖5 참조)

商店: 幹線街路 로타리 部近에 隣接近隣住区의 商店과 함께 설치

内部街路系統：通過交通을 없애고 自体交通만을 收容

(圖 5 참조)



6. 都市生活圏 模型의 定立

1. 生活圏의 概念

都市生活의 安全性과 能率性 그리고 快適性을 賦與하기 위하여 住宅地區를 適正規模로 細分하여 同地區內에서 日常生活需要를 自足할 수 있도록 自足的인 生活圏을 形成함. 註12)

都市生活圏은 첫째 市民의 生存이 保障되고 安全性이 確保되어야 한다. 各種公害 事故의 危險性은 增加되고 있고 生活環境이 惡 되어 精神的 緊張은 激化되고 있다.

둘째 人間다운 市民生活의 內容을 알차게 할수 있도록 生活環境 施設이 整비되어야 한다. 住宅, 上下水道, 排水, 電氣, 交通, 通信, 不使없는 政策

셋째 都市生活에 理想인 文化 藝術活動을 높이기 爲한 教育, 文化 整비와 市民의 創造的 藝術活動 마련.

구분	단위	規 模	人口數(人)
人	間(Man)		1
房	(Room)		2
住宅	(Dwelling)		4
住宅集團	(Dwelling Group)		40
小近隣住區	(Small Neighborhood)		250
近隣住區	(Neighborhood)		1,500
小都市	(Small Town)		9,000
都 市	(Town)		50,000
大都市	(Large City)		300,000
巨大都市	(Metropolis)		2 百萬
連坦都市	(Conurbation)		14 百萬
메가포리스	(Megalopolis)		100 百萬
都市化地域	(Urban Region)		700 百萬
都市化大陸	(Urbanized Continent)		5,000 百萬
이큐메노포리스	(Ecumenopolis)		30,000 百萬

(表 2) 理想的 近隣地區密度 比較表

年代	提 案 者	地 區	Acre당人口密度	適 正 人 口
1898	E. Howard	City	8 ~ 12 家口	32,000 名
1924	Le Corbusier	"	1,200 "	3,000, 000 名
1929	Clarence perry	Neighborhood unit	5 家口	5 ~ 9,000 名
1932	Frank Lloyd wright	City	1 家口	no limit
1944	Jose Isert	Residential unit	3 ~ 5 家口	5 ~ 10,000 名
1945	Walter Gropius m. wagner	"	4 ~ 10 家口	5,000 名
1946	L. Jastement	City	10 ~ 35 家口	1,000,000 名
1947	P. Goodman	"	100 家口	6 ~ 8 百萬 名

2. 模型의 定立

模型을 定立하는 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現在의 狀況을 充分히 科學的으로 檢討하고 實施計劃에 곧 利用이 可能하도록 하는 方法이며

둘째, 人間이 얻어야 할 바람직한 規範的 當爲性을 根據로한 理想的인 模型에 定立이다. 後者は 그 自体로써 價值가 있을뿐 아니라 實施計劃과 接하면서도 現況과의 妥協에 依한 變形利用이 可能하므로 實施計劃의 手段이 自 目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後者の 視點에서 小都市의 模型을 定立하여 보면

(1) 都市는 한箇내지 數箇의 細胞로 構成된다. 各細胞는 最大步行 距離 半徑 500-1,000m의 規模와 그細胞內의 居住者들은 一日生活圏은 이곳에서 完結된다.

(2) 各細胞는 相互동등한 地位에서 作用한다.

(3) 한한 細胞內의 土地利用은

첫째, 중심부의 空地를 設置하고는 周圍를 公共施設物 및 國民學校를 建設하여 住民들의 利用이 便利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景視에 있어서도 Land mark 或은 NoDe의 役割을 하도록 한다.

둘째, 商業施設은 國民學校와 隔離된 곳에 位置하되 幹線 街路와의 接觸을 고려하여 設置한다.

셋째, 工業施設은 内部에 들어올수 없으며

넷째, 集約的인 土地利用을 爲한 綠地의 内部에는 農耕地를 없애도록 하며 反面 内部의 周辺地域에는 豊富한 農耕地를 保障한다.

다섯째, 綠地의 規模는 最小限 全面積의 4%以上 할에 한다.(4) 街路網系統

첫째, 通過交通은 細胞의 内部를 지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内部街路는 自体內의 交通量만을 充分히 處理한다.

셋째, 步行者 專用道路를 設置하여 中道와 区分한다.

(1) 小生活圏：從步圏(500m~1,000m)

範圍內의 人口 約 2 ~ 5 萬人 内外를 收容하는 定住 體系(Human Settlement)의 基本單位로서 國民學校, 市場, 洞事務所, 派出所, 우체국 같은 基本的生活圏聯立 施設單位

(2) 中生活圏：5 ~ 6 箇의 小生活圏으로 構成되며 半徑 2km内外의 人口 規模 20~30 萬人 程度를 收容할 수 있는 都市地區

(3) 大生活圏：2 ~ 4 箇의 中生活圏으로 構成되며 半徑 5km内外의 人口 100 萬内外 規模로 独立的인 都市 格으로 發展될 商業, 業務地區와 産業用地, 流通 및 綜合大運動場配置單位.

(그림 2)는 25P 도.

제기동 L씨대
김관풍건축
金寬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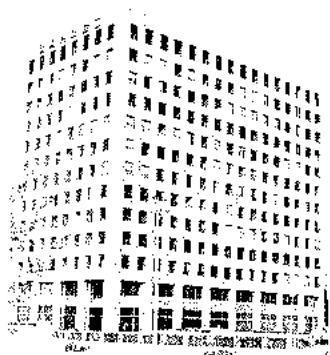
방배동 0씨대
원일건축
李忠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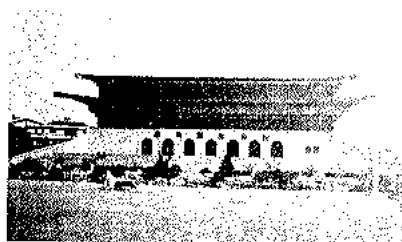
이목실리움센타
圓建築研究所
金孝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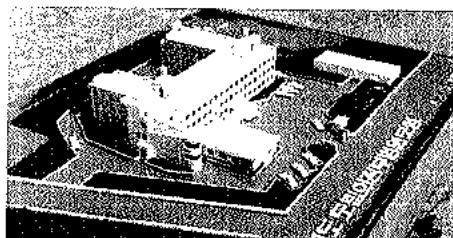
대한교원 공제회 회관
삼승건축
李榮日



세종대학 박물관
구리사진축
金忠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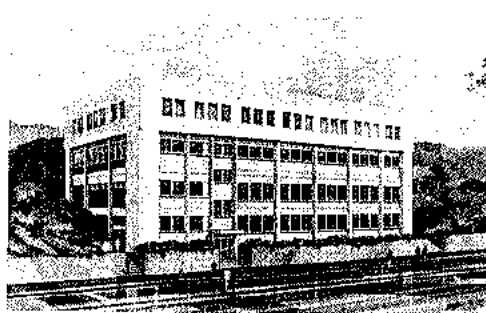
도립의정부병원
신조건축
吳雄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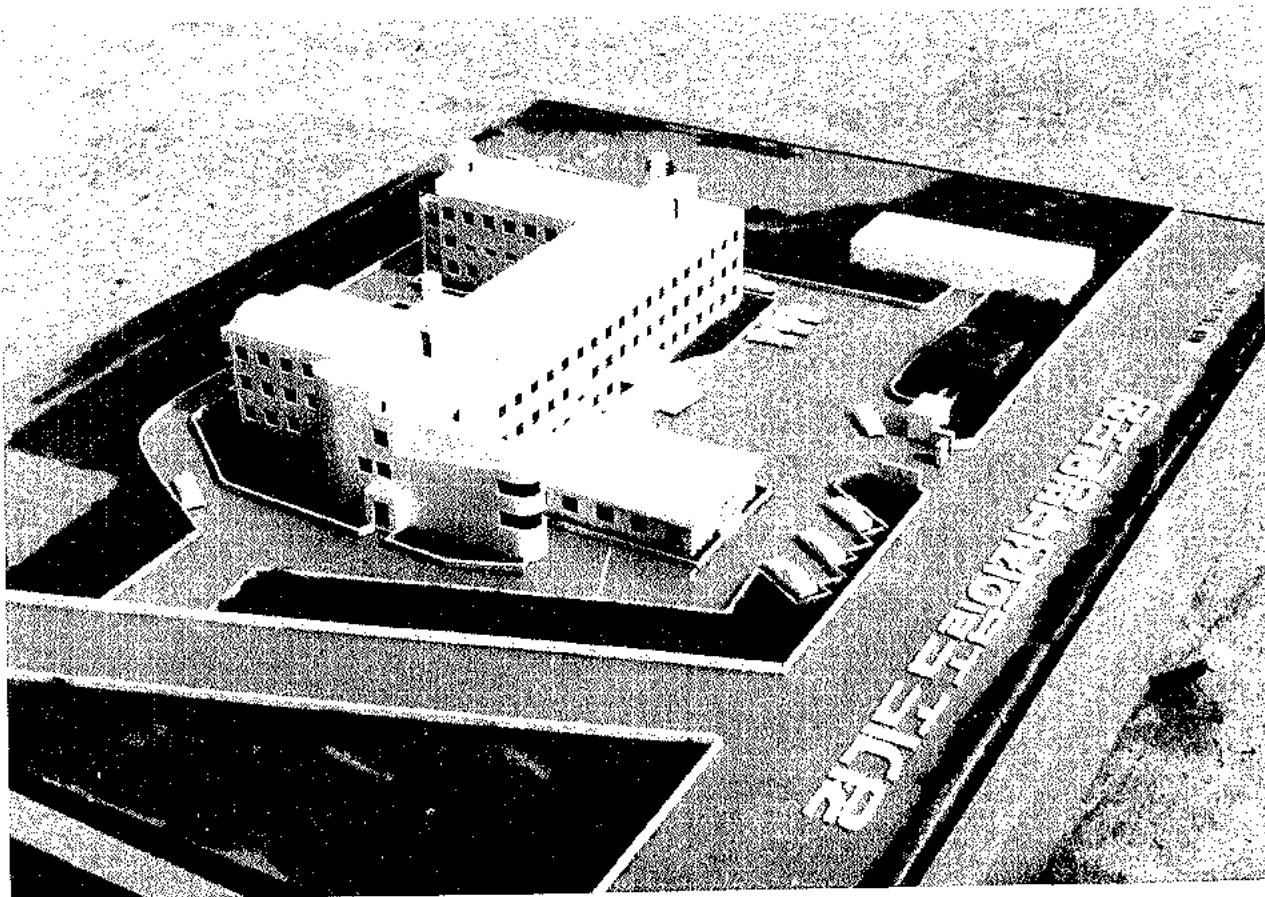


서울신탁은행 서교동지점
동림건축
白永基



연세대학교 체육관
신신건축
金奉勲





도립 의정부 병원

투 시 도

설 계 : 오 응 석 (신조건축 연구소)
 계획상담 : 최 희 경, 임 동 운, 심 성 호.
 설비계 : 유 동 열, (삼신설비)
 전기설계 : 이 경 식 (양전사)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발주관서 : 경기도.



대지면적 : 지하층 - 455.82m²
 각층별면적 : 지하층 - 455.82m²
 1 층 - 1,167.43m²
 2 층 - 1,148.63m²
 3 층 - 1,148.94m²
 옥상층 - 92.44m²

연 면 적 : 4,013.26m²

층 고 : 3.2 m

건물최고높이 : 13.5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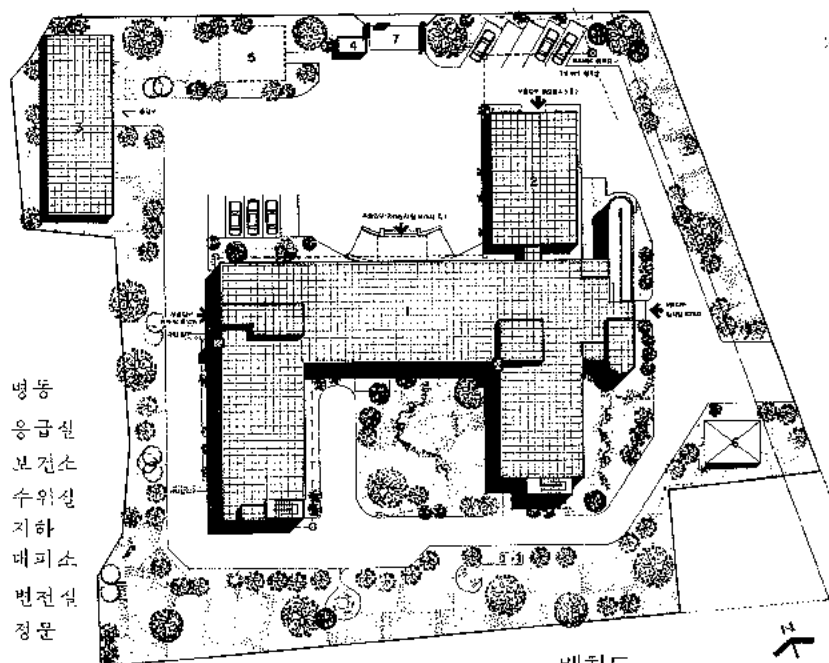
주용도내용 : 중합진료 및 127병상 시설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설 비 : 온수 난방 및 급탕

공사기간 : 1979년 7월 준공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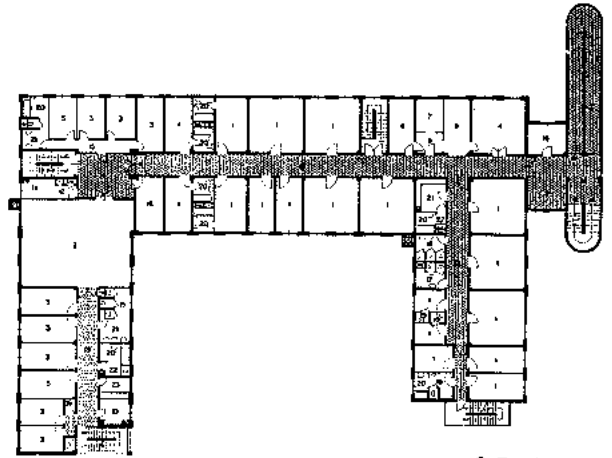
공 사 비 : 약 5 억원.



배치도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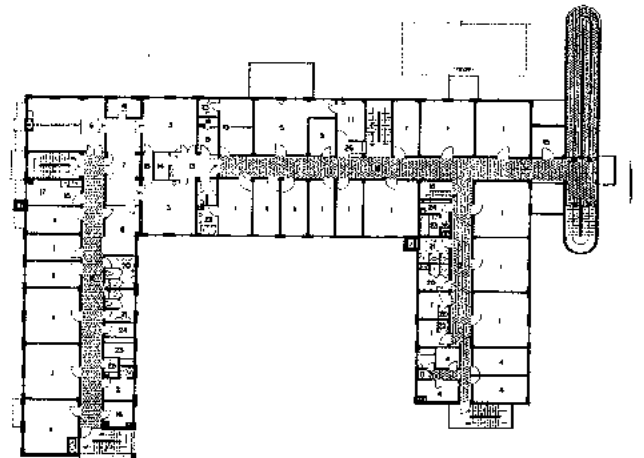
- | | | |
|----------------|------------|---------|
| 1. 병실 | 11. 식기 세척실 | 21. 세면실 |
| 2. 회의실 간호원 휴게실 | 12. 배선실 | 22. 탈의실 |
| 3. 간호원 숙소 | 13. 복도 | 23. 세탁장 |
| 4. 회복실 | 14. 홀 | |
| 5. 환자 휴게실 | 15. 복로 | |
| 6. 간호 관과장실 | 16. 창고 | |
| 7. 처치실 | 17. 남화장실 | |
| 8. 전실 | 18. 여화장실 | |
| 9. 간호 근무실 | 19. 화장실 | |
| 10. 간이 주방 | 20. 욕실 | |



3층 평면도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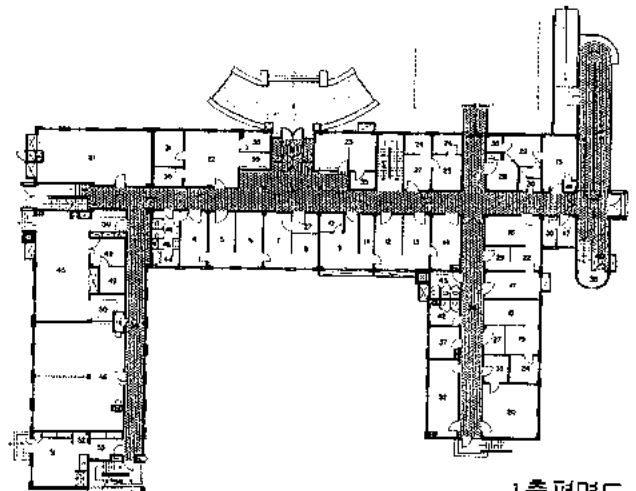
- | | |
|-----------------|------------|
| 1. 병실 | 14. 소독실 |
| 2. 특실 | 15. 배선실 |
| 3. 수술실 | 16. 간이주방 |
| 4. 간호원 숙소 | 17. 식기 세척실 |
| 5. 회복실 | 18. 창고 |
| 6. 간호 근무 및 마취실 | 19. 마취실 |
| 7. 수술 준비실 | 20. 남화장실 |
| 8. 처치실 및 간호 근무실 | 21. 여화장실 |
| 9. 간호원 근무실 | 22. 화장실 |
| 10. 의사숙소 | 23. 욕실 |
| 11. 처치실 | 24. 세면장 |
| 12. 복도 | 25. 탈의실 |
| 13. 준비실 | 26. 안내실 |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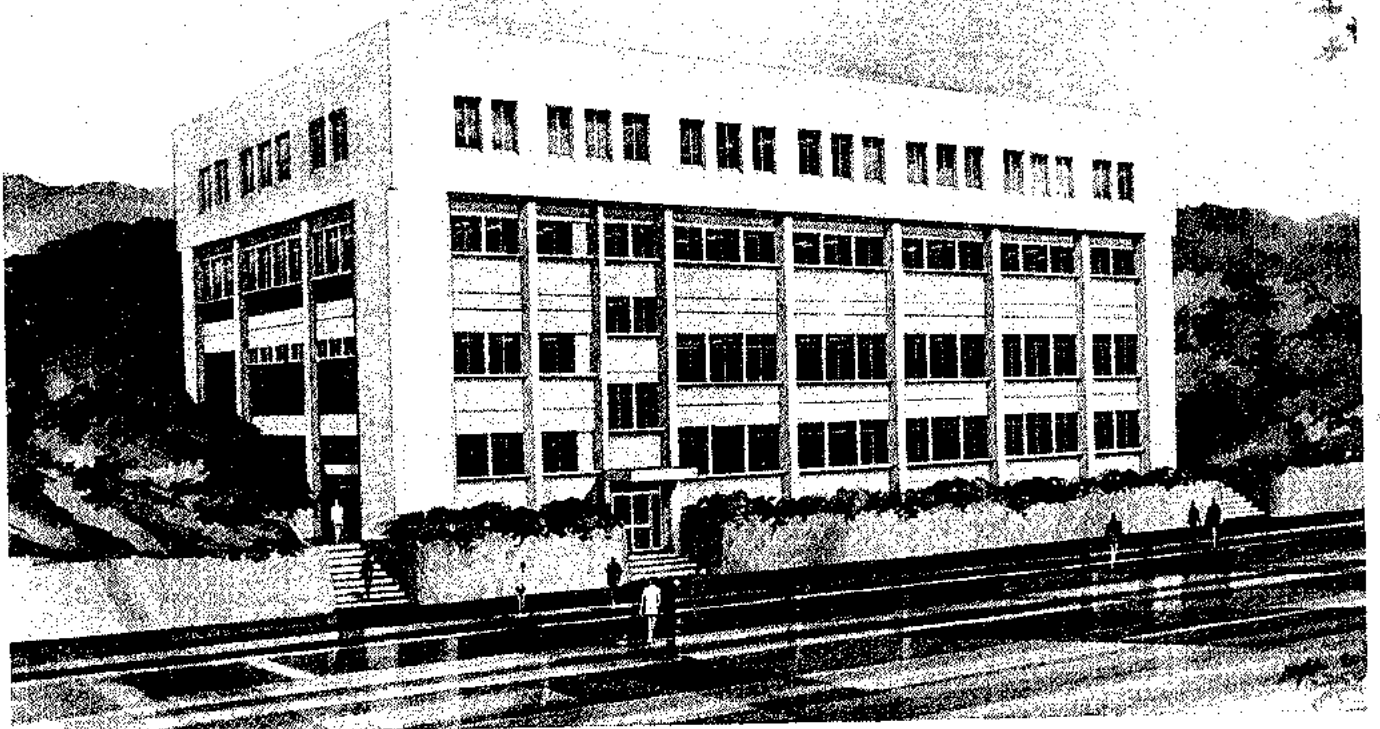
1층

- | | | |
|------------------|------------|-------------|
| 1. 포치 | 19. 외과 진찰실 | 37. FILM 창고 |
| 2. 현관 | 20. 원정실 | 38. 창고 |
| 3. 홀 | 21. 의사 휴게실 | 39. 안내접수실 |
| 4. 분만실 | 22. 사무실 | 40. 안내실 |
| 5. 산부인과 내진실 | 23. 약국 | 41. 화장실 |
| 6. 산부인과 의사실 | 24. 의사실 | 42. 남화장실 |
| 7. 소아과 진찰실 | 25. 진찰실 | 43. 여화장실 |
| 8. 소아과 의사실 | 26. 심전도실 | 44. 욕실 |
| 9. 건강관리과 진단실 | 27. 준비실 | 45. 주방 |
| 10. 청력실 | 28. 관찰실 | 46. 식당 |
| 11. 건강관리과 시력실 | 29. 체현실 | 47. 매점 |
| 12. 성형외과 준비실 의사실 | 30. 암실 | 48. 탈의실 |
| 13. 성형외과 진단실 | 31. 사무장실 | 49. 식품창고 |
| 14. 기부스실 | 32. 회의실 | 50. 배선실 |
| 15. X선실 | 33. 부속실 | 51. 세탁실 |
| 16. 일반 검사실 | 34. 복도 | 52. 재봉실 |
| 17. 세균 검사실 | 35. 약품창고 | 53. 반입출실 |
| 18. 치료실 | 36. 서류창고 | 54. 화단 |



1층 평면도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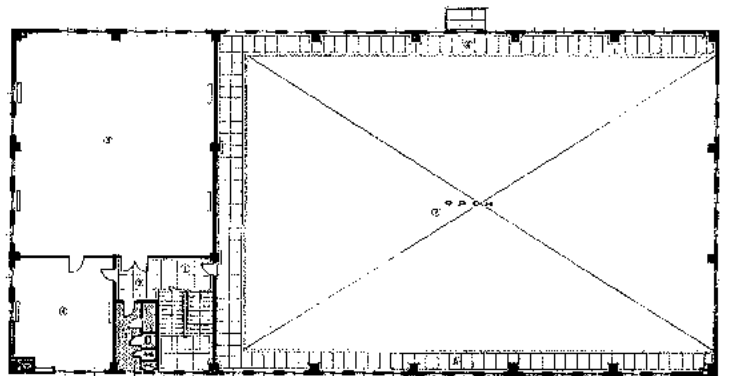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체육 교육관



설 계 개 요 : 기존 학교 체육관과 대운동장하고 사이에 위치하여 체육활동과 유통을 원활히 하듯 강의도하고 실험실습도 하고 시험도 할수있는 三位一体的인 복합건물인 체육관의 위치가 선택되고 보니 지반 고저차가 8m가 되는곳에 정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톤타를 이용하여 1층에 강의실, 보일러실, 2층에 강의실, 탈의실, 샤워실, 수영장(땅속에 묻힌 부분에 배치) 3층에 교수실, 체조장 (농구, 배구, 기계체조도 할수있도록함) 4층에 무용실, 및 말코니 (3층체조장에서 실습하는 것을 관람할수있는 장소)를 배치하여 복합가능의 용도에 합당하도록 배치계획 설계토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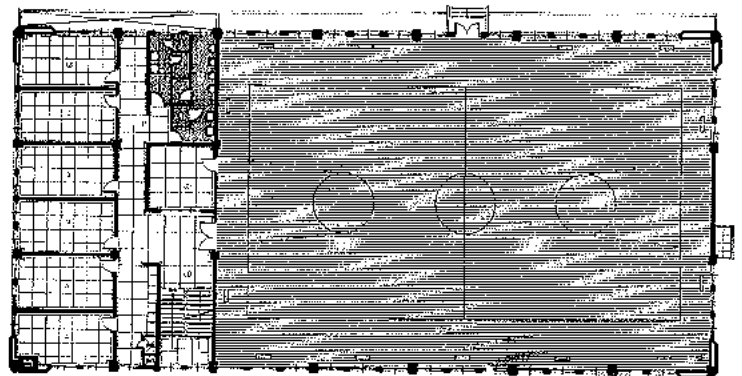
소 재 지 : 연세대학교 구내
설 계 자 : 신진건축연구소
시 공 자 : 대우개발주식회사
규 모 : 대지면적 : 18,513m²
 건축면적 : 886.2m²
 연 면 적 : 2,365.2m²
 층 수 : 지상 4층
 건축면적 : 1층 393.6m²
 2층 886.2m²
 3층 844.2m²
 4층 241.2m²
 합 계 2365.2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① 계단실
- ② 홀
- ③ 무용실
- ④ 준비실
- ⑤ 화장실
- ⑥ 발코니
- ⑦ 체조장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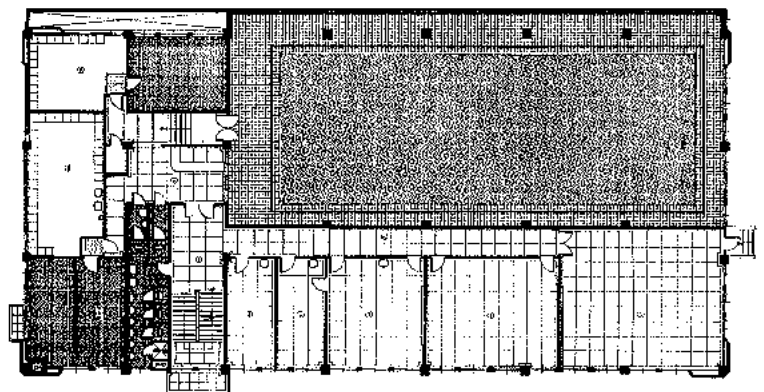
4층평면도

- ① 계단실
- ② 구기보관실
- ③ 교수실
- ④ 복도
- ⑤ 화장실
- ⑥ 체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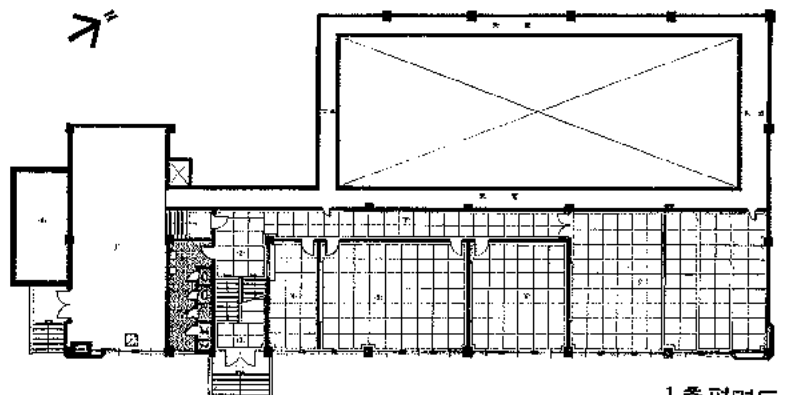
3층평면도

- ① 계단실
- ② 교수실
- ③ 실험실
- ④ 체력특정실
- ⑤ 강의실
- ⑥ 복도
- ⑦ 홀
- ⑧ 탈의실
- ⑨ 샤워실
- ⑩ 화장실
- ⑪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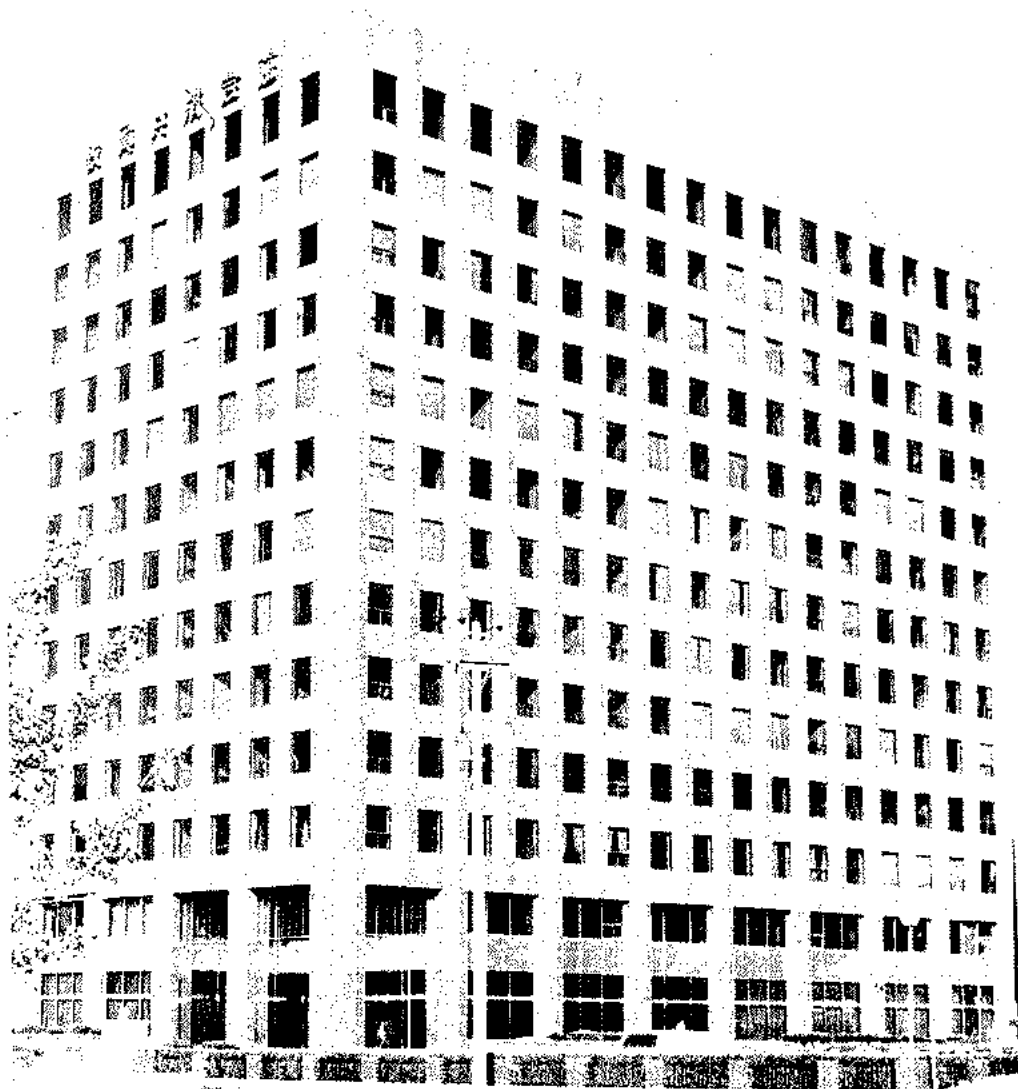
2층평면도

- ① 보일러실
- ② 계단실
- ③ 현관홀
- ④ 관리실
- ⑤ 강의실
- ⑥ 세미나실
- ⑧ 기름탱크
- ⑨ 화장실



1층평면도

會員作品



대한 교원 공제회 회관

전 경

설계개요 :

본 회관은 공비절감을 위하여 R.C 구조를 택하였으나 비교적 큰 SPAN을 사용하여 실내에는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감을 갖도록 하였고 가장 짧고도 능률적인 코아를 구성하여 실 사용 면적을 높이고 편리한 동선이 되도록 하였다.

외벽은 P.C판에 짙은색 타일을 부착하여 안정된 바탕에서 발전하는 교원공제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설계하였다.

설 계 : 이 영 일 (삼송 건축사)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규 모 : 지하 2층 지상 13층 옥탑 1층

연 면 적 : 20,545.9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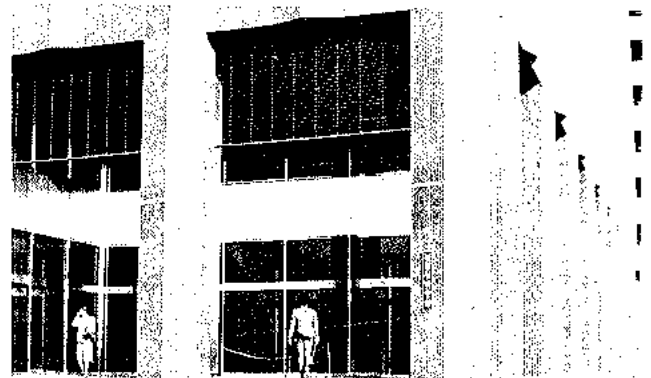
건축면적 : 1,375.05m²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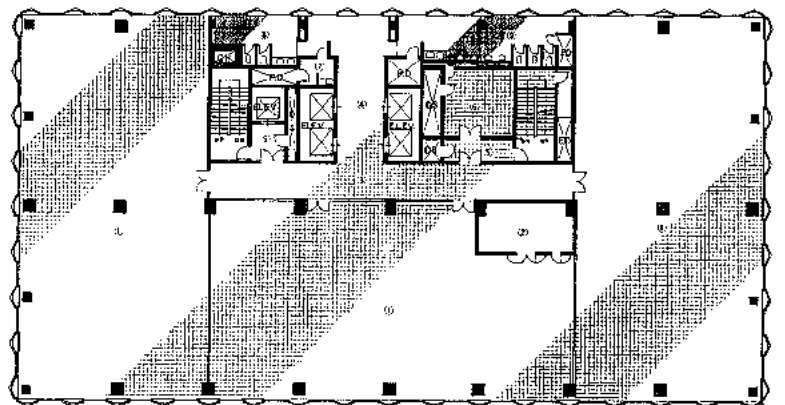
준 공 : 1978. 9. 1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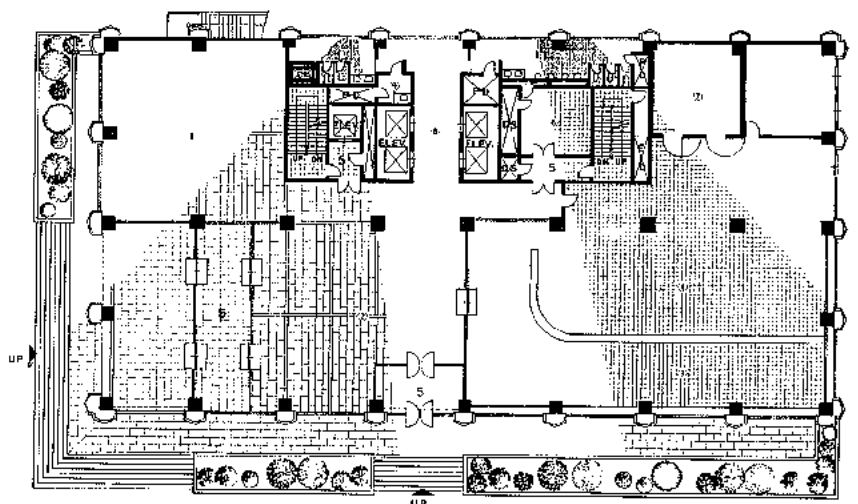


- ① 사무실
- ② 서고
- ③ 복도
- ④ ELEV. 홀
- ⑤ 전실
- ⑥ 공조실
- ⑦ 탕비실
- ⑧ 화장실(F)
- ⑨ 화장실(M)



기준층평면도

- ① 전시실
- ② 로비
- ③ 은행로비
- ④ 은행영업장
- ⑤ 전실
- ⑥ 공조실
- ⑦ 금고
- ⑧ ELEV. 홀
- ⑨ 탕비실
- ⑩ 화장실(F)
- ⑪ 화장실(M)



1층평면도

會員作品



서울 신탁은행 서교동 지점

전 경



설 계 : 백영기 (농림건축설계 사무소)

건축물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 623, 10m²

건축규모 : 지하층 412, 58m²

1 층 351, 70m²

2 층 348, 9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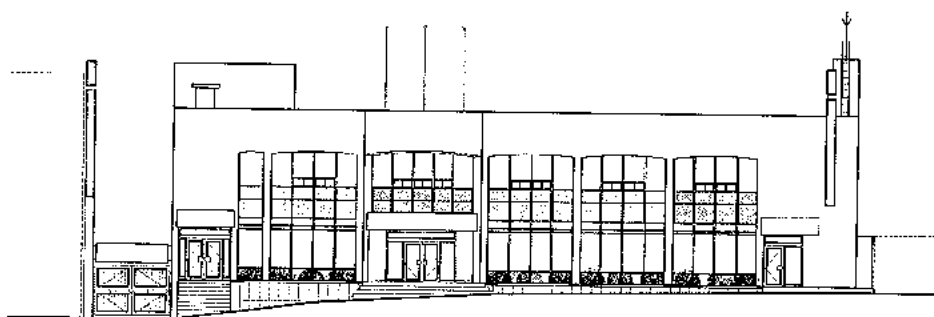
페트하우스 34, 02m²

계 1, 147, 2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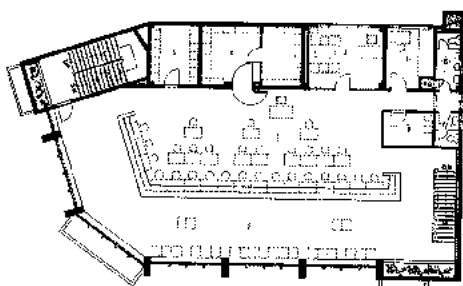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준 공 일 : 197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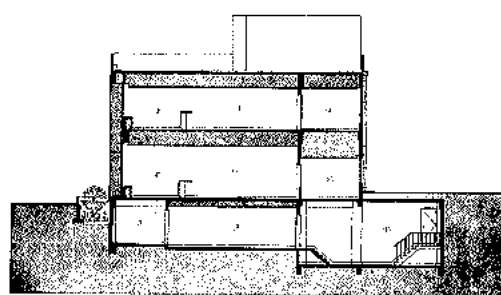
축 척 : 1/100



- ① 영업장
- ② 객장
- ③ 응접실
- ④ 문서고
- ⑤ 회의실
- ⑥ 화장실
- ⑦ 교환실
- ⑧ 탕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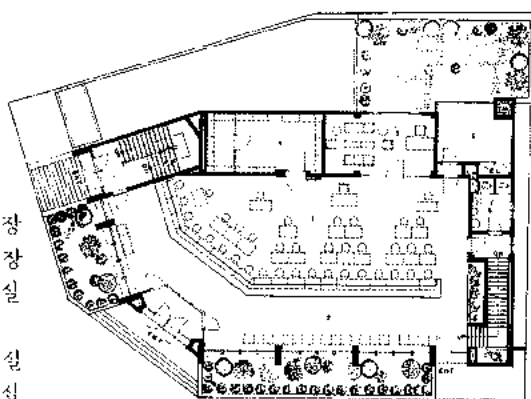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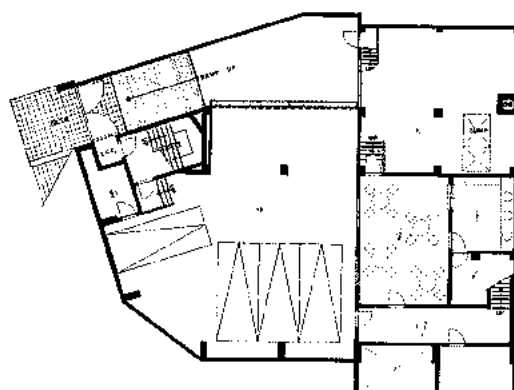


단면도

- ① 영업장
- ② 객장
- ③ 응접실
- ④ 금고
- ⑤ 숙직실
- ⑥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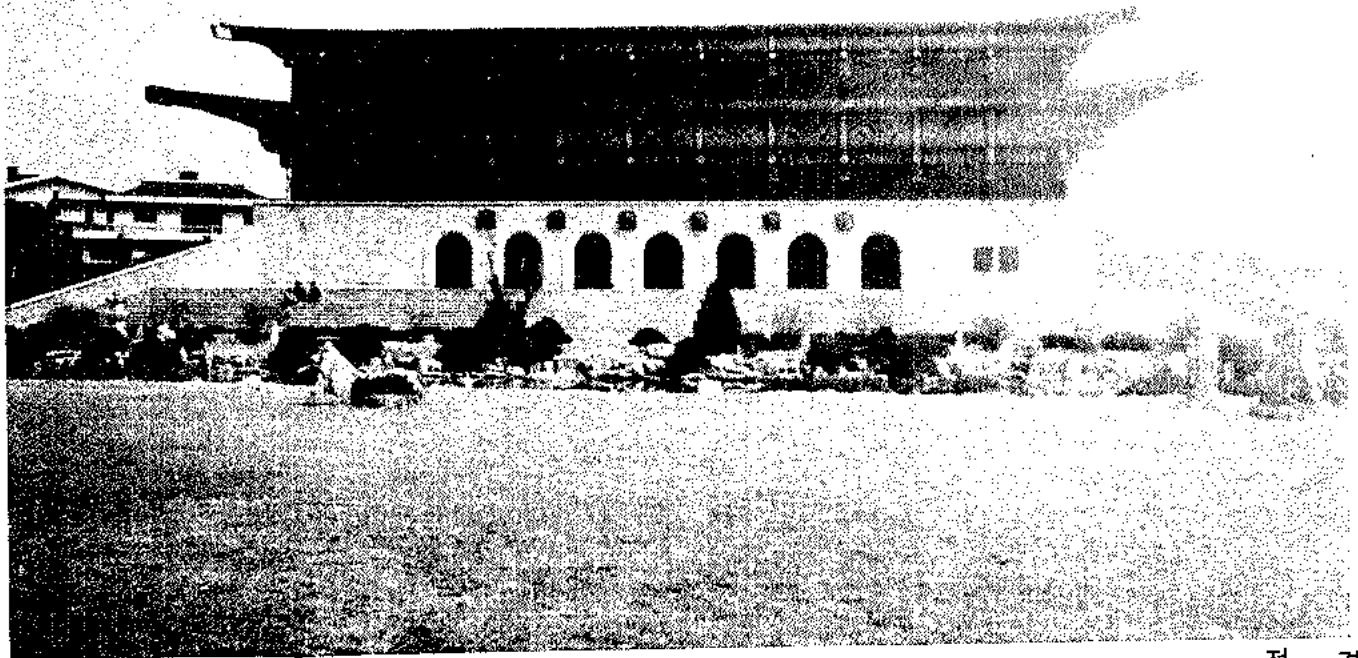
1층평면도



지층평면도

- ① 보일러실
- ② 식당
- ③ 주방
- ④ 주방창고
- ⑤ 차고
- ⑥ 창고
- ⑦ 복도

會員作品



전 경

세종대학 박물관

설계개요

국내 대학가에서 명물 박물관으로 본대학의 상징적인 기념건물을 건립하겠다는 학교당국의 주문에 응축하기 위하여 계획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

박물관 건물로서 필수조건인 방습구조를 해결하고 외부 모양은 본대학 미술계통 교수의 외향도 반영하고 1, 2, 3, 4회 걸쳐 설계 변경을 하여 완성된 건물이 바로 이형적인 복수형 건물이 되었다.

건축주(대학원 원장 최옥사박사)의 탁월한 식견으로 요구되는 작품을 만들기에는 어려움도 없었다.

당초에 계획된 3층을 완성하자 인근지형이 변경되어 본 건물이 너무 외형적이고 하여 4차 설계변경으로 4층을 증축하여 2층 지붕으로 하고 당초의 필로티를 반지하층으로 제조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박물관은 1층에 출입구 두개소외에는 완전 무창구조이다.

1차 개관식때 박태통령 내외분의 개관 테이프를 끊는 영광을 가졌다. (1974. 5.)

2차 4층 개관은 1978. 5.에 가졌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세종대학)

설계자: 金 忠 得 구리사 건축 사부소대표

시공자: 한국종합 산업주식회사

대 지: 세종대학 구내

건축면적: 지층 - 894.60

1층 - 894.60

2층 - 89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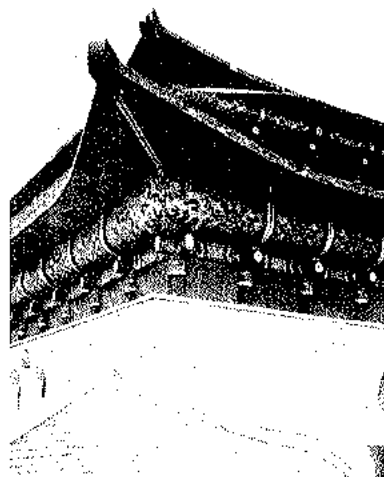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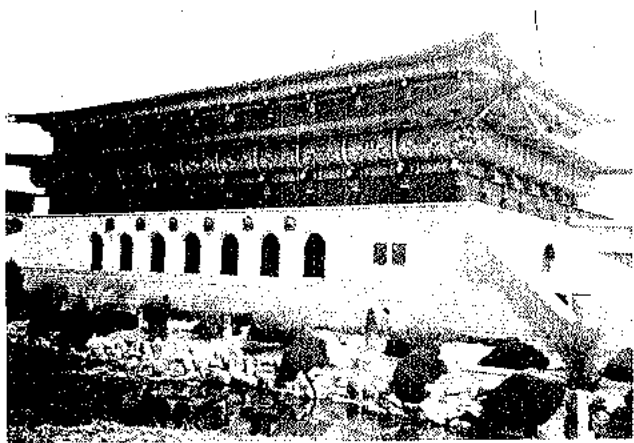
3층 - 894.60

4층 - 89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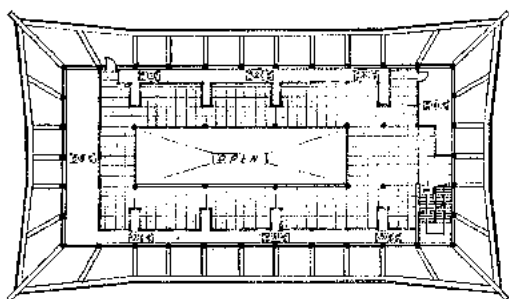
계 - 4,473.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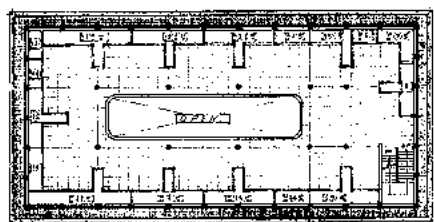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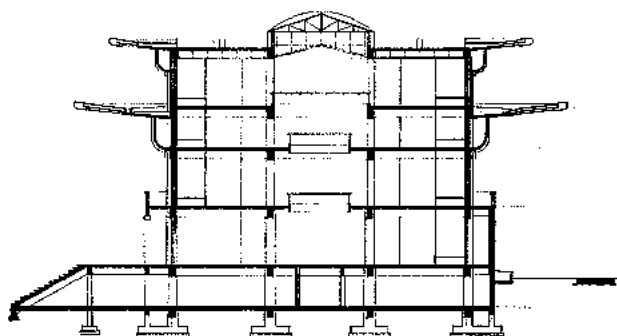
공 기: 1973. 3. - 197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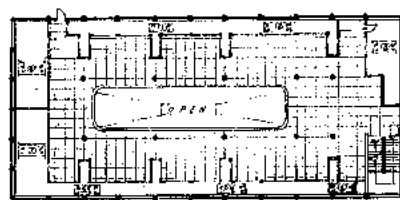
- ①~⑪ 진 열장
- ①~⑧ 진 열장
- ①~⑧ 진 열장
- ①~⑪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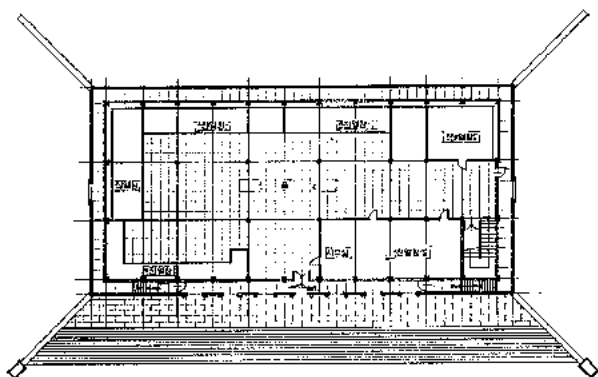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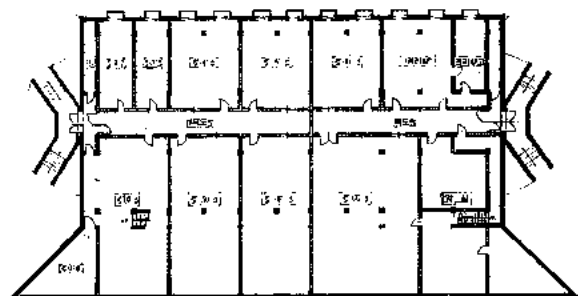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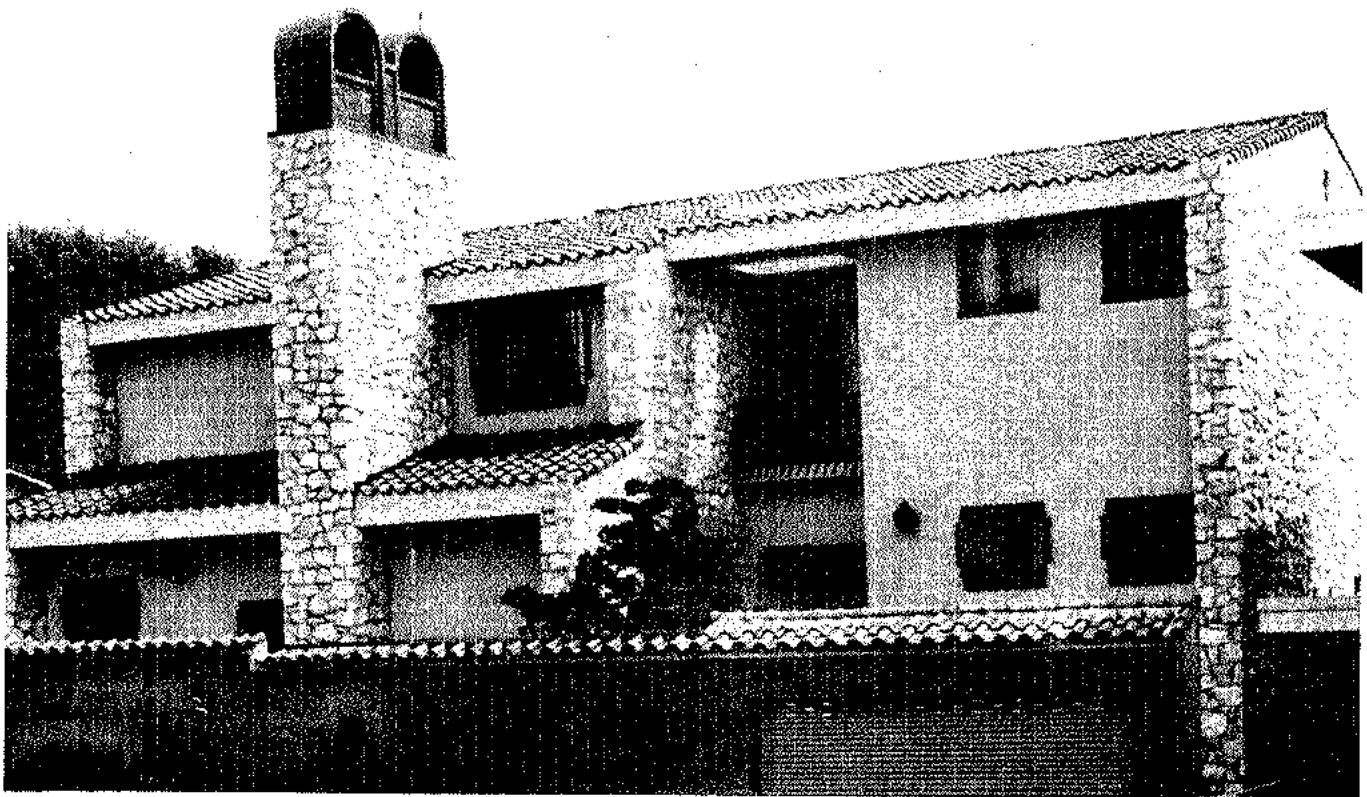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층 평면도

會員作品



방배동 0 씨택

전 경



설계개요 :

부지여건과 지역환경의 여건을 보아 강렬하면서 단순한 조형이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었다. 외부소재의 주제를 환돌과 스캐니워형 적갈색 기와를 택한 이유는 지역환경을 감안한 것이며 단순한 소재지만 그것이 형성하는 조형의 결과를 상당한 무게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외벽이 형성하는 외부공간의 변화를 좀더 정원과 밀착되게하면서 흰색돌을 배경으로한 정원의 녹색은 양자의 CONTRAST와 HARMONY를 갖도록 하였다.

평면구성은 MINOR SPACE(MASTER 위주의 공간)와 MINOR SPACE(아동공간및 기타SERVICE공간)로 구분하면서 필요에 따라 접합공간을 통해 동선연결을 갖게 하였으며 가족구성의 특징에 의해 1가구에 2가족이 PRIVACY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하였다.

설 계 : 이 충 언 (건축연구소 원일)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방배동

대지면적 : 461.58m²

건축면적 : 175.82m²

연 면 적 : 324.8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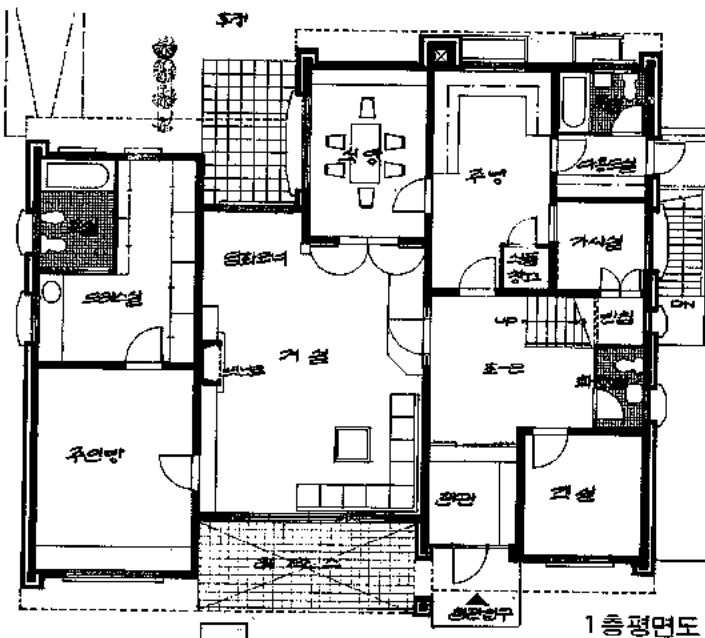
구 조 : 조 적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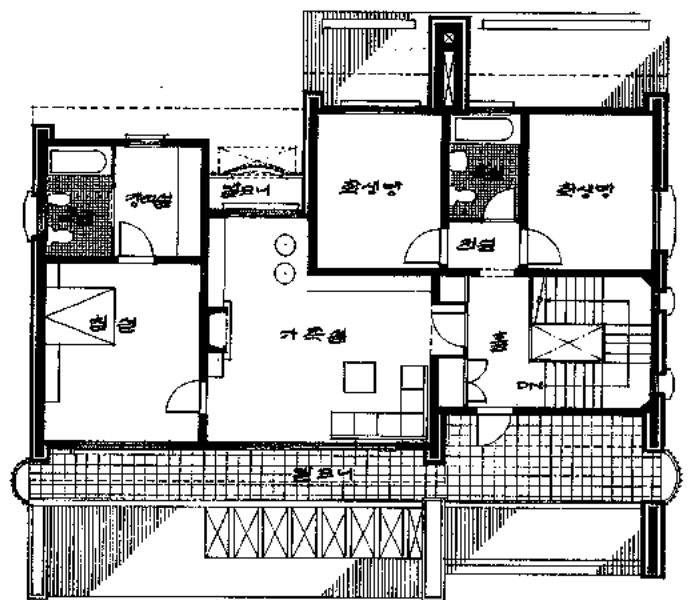
동남측



남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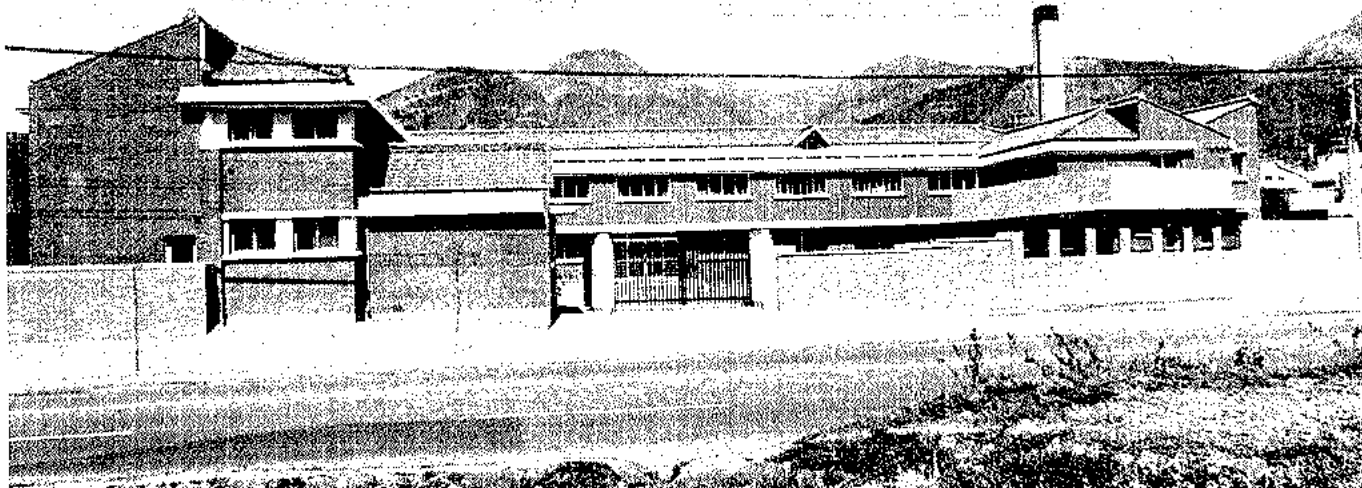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會員作品



아육실리움센터 (근로 여성복지센터)

전 경

설계자 : 金孝一 圓建築研究所

위 치 : 마산시 구암토지 구획정리지구 84B-15L

대지면적 : 3,215m² (972坪)

건축면적 : 1,015m²

연 면 적 : 지하 155m²

1층 1015m²

2층 933m²

옥상층 16m²

계 2119m² (642坪)

구 조 : 조적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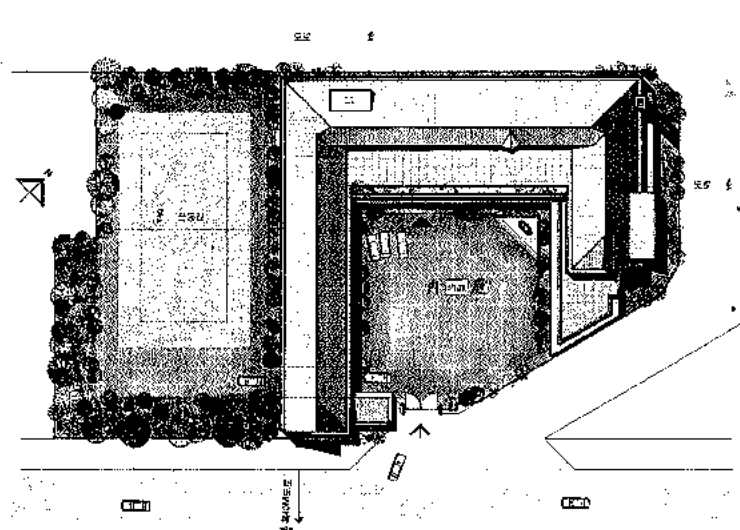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 보강조,

목조 트라스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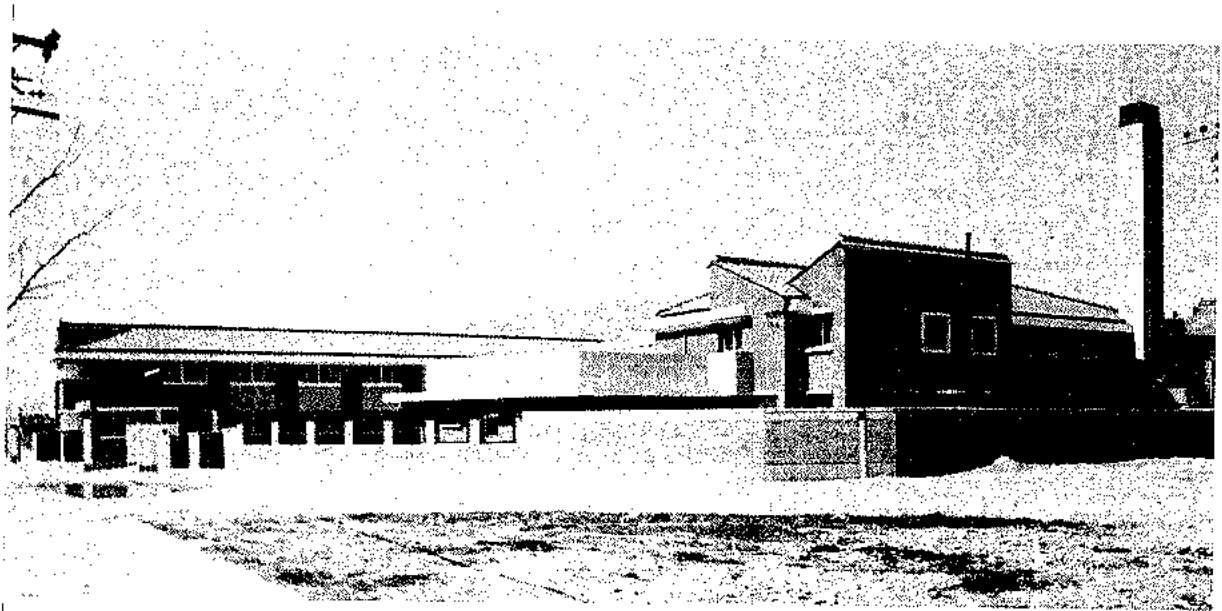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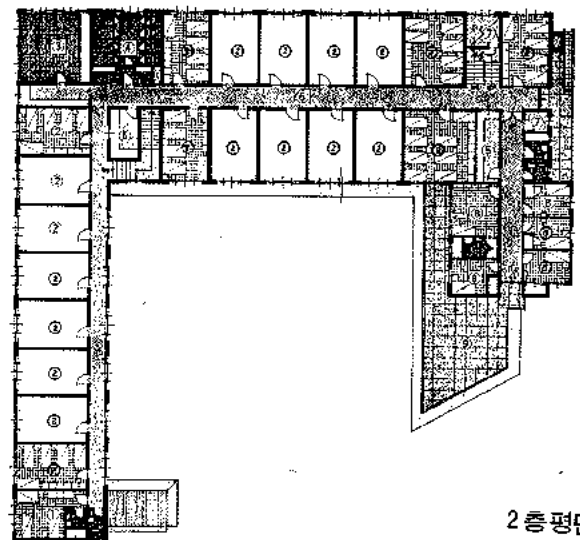
기존대지의 상황과 최대한 일조의 효율성에 따른 복합적인 내부 기능조직을 상, 하로 구분하여 2층에 근로여성(150인)들의 공동침실과, 판리자(수녀10인)의 침실을 두고, 1층에는 특별교양교육을 위한 계용도실의 動的인 공간을 두었으며, 목조트라스지붕하부를 이용한 다락(세탁물 건조장)과 이에 연결된 옥상테라스는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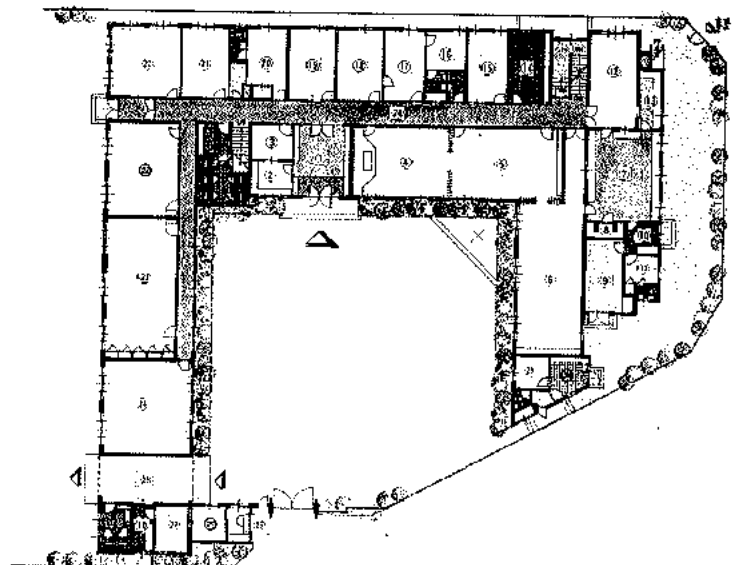


- ① 사감침실
- ② 기숙생침실
- ③ 세탁실
- ④ 화장실
- ⑤ 의류침실
- ⑥ 복도
- ⑦ 창고
- ⑧ 수녀침실
- ⑨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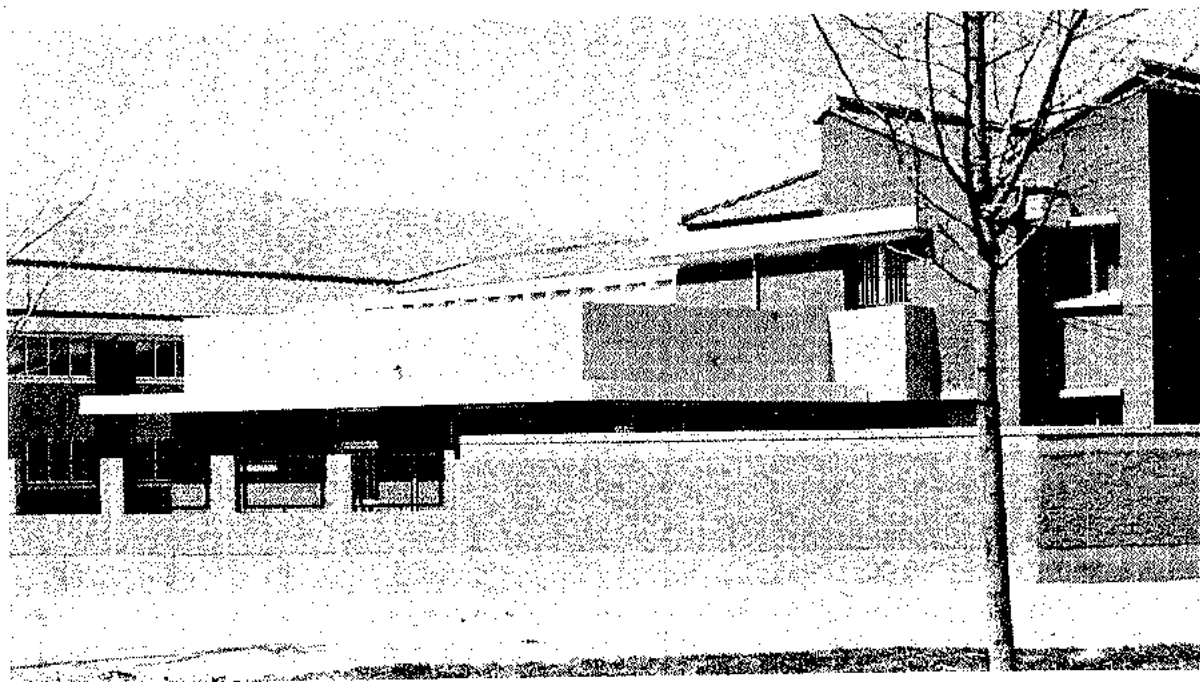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 | |
|--------|-----------|
| ① 현관홀 | ①⑥ 침실 |
| ② 안내실 | ①⑦ 원장실 |
| ③ 방송실 | ①⑧ 사무실 |
| ④ 기도실 | ①⑨ 응접실 |
| ⑤ 오락실 | ①⑩ 손님침실 |
| ⑥ 식당 | ①⑪ 타자실 |
| ⑦ 주방 | ①⑫ 교실 |
| ⑧ 냉장고 | ①⑬ 양재교실 |
| ⑨ 주식창고 | ①⑭ 수예교실 |
| ⑩ 한식부엌 | ①⑮ 통로 |
| ⑪ 가정부방 | ①⑯ 수위실 |
| ⑫ 수녀식당 | ①⑰ 침실 |
| ⑬ 부식창고 | ①⑱ 복도 |
| ⑭ 세탁실 | ①⑲ 직실 |
| ⑮ 도서실 | ①⑳ 수방, 식당 |



1층 평면도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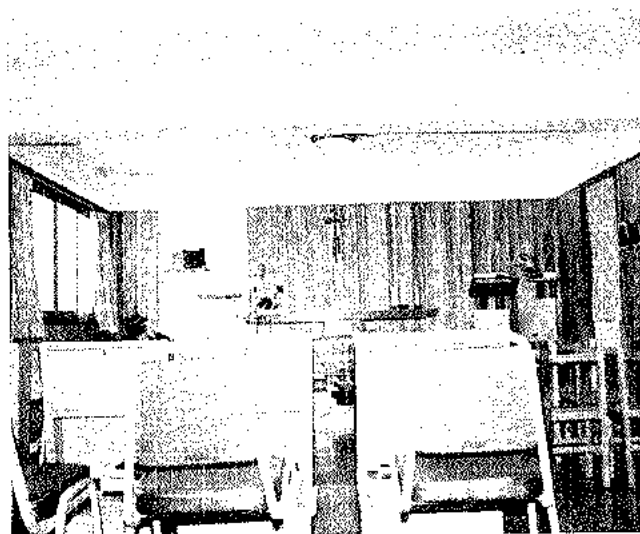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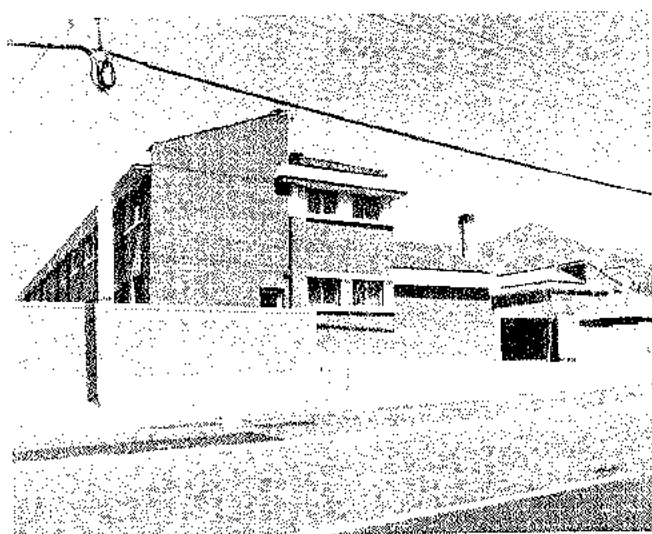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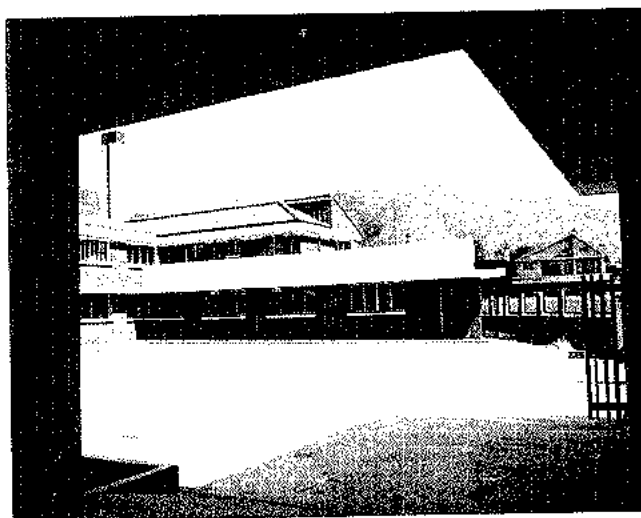


〈외부공간의 계획적 기능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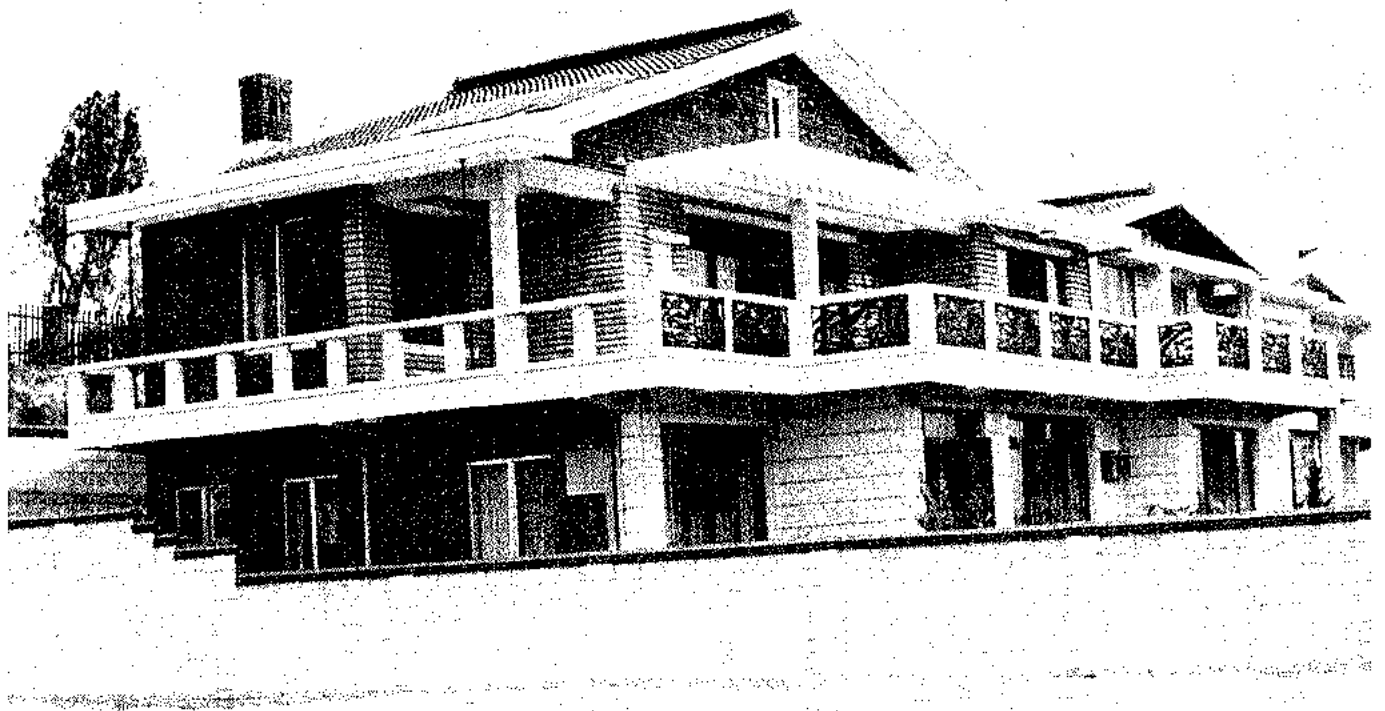
1. 도로변으로 부터 적극적으로 유도한 「자형의 폐쇄된 内庭」은 강한 주의력 집중과 차분한 가정적 분위기의 공간 감응을 주도록 24"×24" 규모의 외부공간을 선정하였고,
2. 수위실 좌측에 연결된 2층하부 통로를 지나면 이와 대조적인 개방공간(운동장)이 전개되며,
3. 동북쪽 주방 뒷쪽의 담장에 은폐된 부분은 조리 및 기타 작업에 보조할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지를 확보했다.

〈조형계획〉

전체의 재료구성은 밝은 벽돌과, 시멘트 기와지붕의 원색을 그대로 살리고, 단조로운 박공지붕 형태를 탈피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어 가정적 분위기의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기동 L 씨댁



설계개요 :

노상에 가까운 좋은 조건의 부지에 2층 주택으로 현대미와 고전미를 혼합하여 보았다.

외관의 장중함과 수위환경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대문을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적으로 꾸며진 계단을 따라 오르면 쌓였던 피로를 한꺼번에 풀수 있는 넓은 정원과 화경적 단석능을 사용한 선년이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실의 배치는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각각 분리시켜 놓았으며 또한 각실의 Privacy도 충분히 확보되었다.

설 계 : 金 寬 豊 서울합동기술개발공단

건물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대지면적 : 561.1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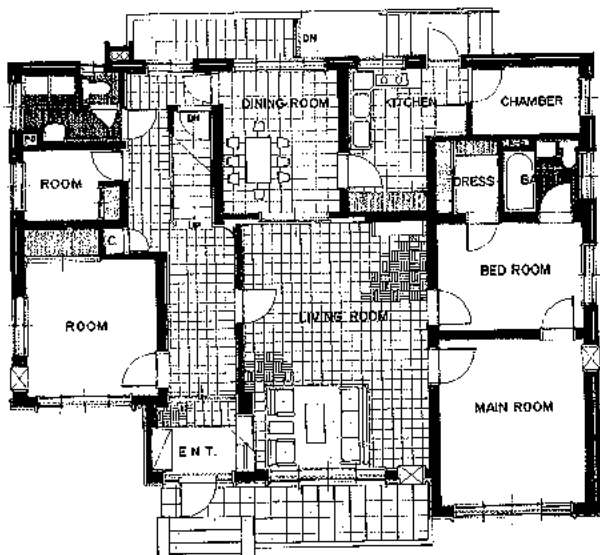
건물면적 : 지층 82.82m² (차고포함)

1층 149.6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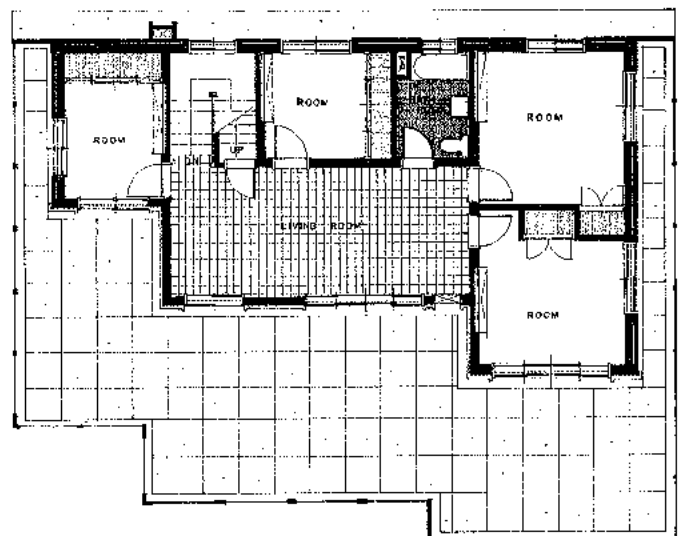
2층 90.9m²

연면적 323.3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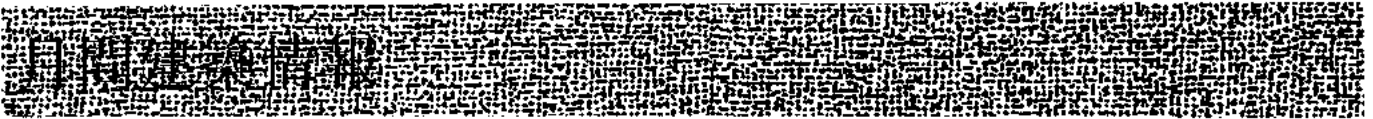
구 조 : 조적조



會員作品



2층평면도



28회 春國展, 大統領賞에 建築部門

“建築機能+知覺心理→形態美”—劉熙俊

금년도 28회 春國展(서예·공예·사진·건축)의 大統領賞은 건축부문의“건축기능+지각심리→형태미”를 출품한 劉熙俊씨(漢陽大교수)가 수상하였다. 이는 1961년 10회 國展의 姜錫元씨 이후 18년만의 일이다. 文公部長官賞에는“乙支路再開 設計圖”을 출품한 朴弘씨(中央大교수)·金光燮씨(同大學院生)가 수상. 特選 2점, 入選 9점. 出品은 총 25점. 이번 春國展에는 既成作家의 참여가 많아 수확이 컸다는評. 5/1~5/30까지 서울 德壽宮內 現代美術館에서 展示.

3층 聯立住宅에 太陽熱利用 義務化

動資部, 建設部와 협의 중

動力資源部는 태양열 주택의 보급속진과 에너지 소비절약방안의 일환으로, 3층 聯立住宅은 태양열 시공을 의무화한다는 방침 아래, 관계당국과 협의 중. 20일 動資部에 의하면 태양열 시공에는 평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연립주택의 용적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長期低利 質金融資의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25평이하 國民住宅, 호화內裝등 규제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제정—建設部

건설부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5월20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용면적 25평이하 國民住宅에 대한 內裝材 규제, 窓戶와 처마통풍등의 규격품 사용, 中央集中式 暖房의 集團住宅에 熱量計 설치, 전용면적 35평이하 住宅의 浴室은 1개로 제한, 25평이하 住宅의 침실(15~6평) 거실(4평 이하)·부엌(1.5평)크기 제한, 공동주택의 계벽은 두께 25cm 이상과 이중벽 또는 흙음벽으로 제한한다. 窓戶 규격품·熱量計 설치 등은 10월20일부터 적용.

海外建設 無実績業体 免許취소 등

海外建設促進法施行令改正案 마련키로

건설부는 20일 일정기간 동안 海外建設実績이 없는 海外建設業체의 면허를 모두 취소하고 建設都給順位 기준으로 海外建設工事 受注의 上限線을 설정하며 國產機資材의 使用義務化 등을 골자로 하는 海外建設促進法施行令 改正案을 마련, 빠른 시일 안에 경제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海外建設業체가 128社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14社가 아직까지 受注実績을 올리지 못하고 業体間 過當競争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라이온스호텔 大火

外国人등 5명 死亡, 30명 負傷

4월22일 하오 5시40분경, 서울 충무로 2가 라이온스호텔에서 신관 5층의 개조공사중 작업인부의 담배불이 건축자재에 引火, 신관 5층 및 구관 4층 200여명을 연소한 뒤 8시30분경 鎮火됐다. 복잡한 건축구조가 진화작업에 방해가 되는데 有 尙개스가 迷路처럼 얽힌 통로를 메워, 投宿客 3명(외국인 2명 포함)이 질식사하고, 2명은 헬리콥터 구조중 추락사하였다.

이 호텔은 지난 12월부터 3차례의 消防診斷時 ▲自動火災 探知設備 受信盤 작동불능 ▲계단실 煙氣感知器 불비 ▲屋內 消火栓燈 미비 ▲通路誘導燈 미비 ▲스프링클러設備 미비 ▲防炎處理 미비 등이 들어났으나 改善되지 않은 상태에서 發火한 것이다.

韓·日建設協力協議會 3次총회

工事共同受注·技術交流·提携방안 협의

한·일건설협력협회의 제3차 총회(23-24일)가 열려, 한국 45명, 일본 38명이 참석하였다. 崔鍾煥 한국측 위원장은『지난 1년간 韓國의 建設生産額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39億1,820萬弗 77년 對比 29.5%의 實質成長을 보였으나 住宅産業에 힘입은 것이고, 國民總生産의 8.8%에 불과하다. 또 78년 海外工事 受注量은 85億弗에 이르고 있으나 國內외의 모든 여건에 비추어 技術과 頭腦를 중심으로 하는 質的成長으로 전환해야할 처지에 있다』고 말하였다. 日本의 水野 위원장은『78년도 日本의 建設投資額은 77년 對比 15% 증가한 2200億으로 國民總生産의 20.8%였는데 자유세계에서 美國 다음가는 규모이며 海外工事は 受注額 배이스로 25億弗을 기록, 77년 對比 40% 증가이나 國內工事的 1.1%에 불과하다』고

서울汝矣島에 50층 빌딩 추진

10월중 着工 예정—新東亞그룹

新東亞그룹은 현재 設計中에 있는 社屋을, 오는 10月中 서울 汝矣島에 總工事費 350億을 투입 着工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地上50層 地下3層이다.

都心 高層빌딩 建築抑制 풀기로

충분한 駐車·綠地空間 확보조건—서울시

정부는 省都圈人口疎散 및 交通難 解消을 위해 추진하던 서울都心地의 高層빌딩 抑制方案을 완화, 현행 建築率 容積率을 서울市에서 조정하고, 駐車·綠地空間을 최대한 확보할수 있는 건물·지역에 대해서는 建築許可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같은 高層빌딩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事務所 不足現象과 賃貸料昂등 등 都市地再開發事業의 不振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建築主들에 막대한 被害를 주고있기 때문이며 이미 高位層의 내락을 받아 내주중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4月初 잠정적으로 工事中止令이 내려진 大韓教育保險빌딩, 大韓火災海上保險, 韓-銀行本店등 20층이상 3개 高層빌딩을 곧 工事再開되고 서울中區乙支路 1, 2街地區 東大門로터리중 7개 再開發地域도 高層빌딩 新築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消防施設 未備된 拘束

벌금형 위주 처리 지양—檢察

서울地은 25일 서울 타이온스호텔 火災를 계기로, 앞으로 대형 火災事件이 발생할 경우, 관계 자에 대한 지금까지 罰金 처리를 해왔던것과는 달리 拘束搜查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주요 대상 건물의 消防施設 集中 配束에 나섰다.

新築建築物이 地域별로 規制

都心 15층이하, 江南20층까지—서울시

서울시는 26, 人口集中과 交通人口誘發要因을 억제하기 위해 首都圈問題 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高層建築物의 층수를 規制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허가 받은 建築物(大韓教育保險 등 3개 건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관 없이 허가내용대로 건물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一般建築物에 대한 規制

구	분	層	數	容積率	建 蔽 率
	幹線	路邊	15층	670%	40%
	가	타	12 "	670 "	45 "
	江 北	地 域	15 "	800 "	50 "
4 大門路	江 南	地 域	20 "	1,000 "	60 "
	汝 失 島	地 域	20 "	1,000 "	50 "

※특정지역은 2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規制

구	분	層	數	建 蔽 率
江	南	12층	(10층)	18%(18%)
江	北	10층	(5층)	18%(20%)
不良住宅再開發地		10층	(5층)	50%(50%)

주: 괄호안은 平地帶, ()안은 丘陵地의 경우

또 서울시는 서울驛 ~ 退溪路~光熙陸橋~東大門~苑南洞로터리 ~中央路~獨立門~西大門로터리~서울驛을 연결하는 4 大門間 지역에 대해서는 호텔·遊 業所·카바레·百貨店등의 新築과 기존건물의 用途變更을 일체로 금지키로 했다.

都市計劃 잡은 變更 통제

5년내 못바꾸게 基準마련—建設部

건설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분별하게 都市計劃을 변경함으로써 住民被害와 予算浪費가 심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번 결정한 都市計劃은 원칙적으로 5年内에는 변경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都市計劃 變更 統制基準」을 마련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建築資材管理法 制定 추진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不良建築資材의 生産 및 流通을 억제하기위해 建築資材管理法(가칭)을 마련하여 9月 定期國會에 제안키로 하는 한편 이달 안에 建築資材協會를 발족키로 하였다.

利川에 組立式 建材工場 着工 예정

三煥企業, 佛카워社와 제휴, 10月가동

26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三煥企業은 組立式 建材生産工場을 위해 京畿 利川에 대지 15,700여평을 마련했으며, 15億을 투입, 5月 중순 着工, 10月 生産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同社는 지난 11月 프랑스의 레이몽 카워社와 技術提携한 바 있다.

違法建築主에 대한 処罰 強化

設計 임의변경 적발하면 刑事처벌

서울시는 27일, 違法建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違法建築이 적발되면 해당 建築主의 事務所閉鎖와함께, 建築主에게는 3次의 是止命令을 내린 후 告發해왔으나, 建築主가 建築士도 모르게 임의변경 施工케 하거나 이를 建築士에게 強要하는 事例가 많아 建築主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77년 1월부터 建築職公務員의 不正根絶策으로 마련된 住宅建築詐方改善方案이 시행됨에 따라 建築職公務員이 現場에 못나게 된것을 기회로 違法建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78년10~12月中 건축된 1567棟에 대한 事後 占檢결과 39.1%(613棟)이 地下層무단 증축, 임의 구조변경 등 違法하였다고 한다. 서울시는 78年 한해동안 建築主處罰 위주로 違法建築을 단속하여 合同事務所를 1~4개 월씩 閉鎖 措置했었다.

서울시는 建築主處罰強化方針에 따라 이날 各區·出 所에 違法建築이 적발되면 是工指示와 함께 建築主를 즉각 告發, 刑事處罰을 받게하는 한편, 是止期間을 지나도 是止않으면 建築許可를 取消토록 지시하였다 한다.

公共工事로 얻는 開發利益 社會還元

法案마련, 9月國會上程—建設部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工業團地·産業基地開發 등 各種公共工事로 주변지역 土地所有者들이 현저히 受益하였을 때에는 利益의 80%를 國家가 환수하여「公共福利施設」에 재투자하는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元에 관한 法案을 마련, 9月 定期國會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不動産投機를 억제하기 위해 国土利用管理法・産業基地開發促進法・都市計画法 등에 산재하고 있는 受益者負担金 및 開發利益金利를 単一法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建設景氣 다소 回復

下半期부터 침체 벗어—建設協 조사

27일, 建設協會가 전 국 244개 建設業체와 시멘트合販등 45개 建設聯盟業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今年 建設景氣予測에 의하면 国内建設景氣는 78년의 8.8 措置(不動産投機規制) 이후 계속 위축되어 왔으나, 5월 이후부터는 다소 회복, 4.4분기(10~12月)중에는 上昇勢를 보일듯 그러나 77·78년(상반기)와 같은 急上昇勢는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同協會가 분석한 79년도 BSI(景氣調査指數)는, 今年 1~4분기 106.2, 2.4분기 110.2, 3.4분기 116.7, 4.4분기 108.9로 나타났다.

綜合엔지니어링 設立 畧

최신 기술·공법 도입, 플랜트受注 期待

28일, 업체에 따르면 南光 建이 오는 6月中 系列企業으로 南光綜合엔지니어링을 발족, 構造・土木・地質・道路・港灣 建築・機械・電氣의 全分野를 受注할 수 있는 이른바 綜合 大型建設業체로 発足を 시두르고 있으며 이밖에도 漢陽住宅・라이프住宅 등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建設業체의 이와 같은 大型化 추세는 国内外 建設市場의 工事規模가 점차 大型化하고 터언키이 방식의 技術集約型 工事가 늘어남에 따라 이의 受注能力을 갖추기 위한것으로, 현재 建設業界에서 이러한 能力을 갖춘 業체로는 現代建設 大林産業・東亜建設・三換企業・京南企業 등이 꼽히고 있다.

서울都心은 汚染大氣속의“熱帶의 섬”

변두리보다 7도 높아

28日 海洋産業과 氣象정보지국에서 발표한『서울地方의 都市氣溫分』(金文一外 中央觀象臺 大氣物理 責任研究員)에 의하면 서울 中心街 氣溫이 변두리보다 6.8度 높아 이른바 熱島現象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鐘路와 光化門 일대의 商街地域과 서울驛~三角地를 잇는 지역, 그리고 永登浦의 工場 및 商街地域 일대의 氣溫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울이란 都市에 “高溫의 성”이 형성되고 있는게 틀림 없다고 하였다.

熱島나 溫室効果는 모두 人口過密・大氣汚染등 인위적인 도시의 環境변화를 뜻하며, 안개가 많이 끼고 降雨量이 늘어나는 등 일반적으로 都市人에게 흔한 막연한 症狀등—頭痛, 머리가 무겁고 개운치않은 증상, 눈의 피로, 어깨가 무거운 증상, 피로가 가시지 않는 증상, 얼굴이 잘 달아오른다, 消化가 잘 안된다, 가슴이 뻐다, 神經痛, 不眠症, 無氣力 등은 모두 生活 리듬의 파괴로 조래되는 증상들이다.

콘크리트 펌프카 開發中

5月初 試作品 첫선—三星重工業

三星重工業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개발, 5월부터 市販할 예

정이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油圧시스템으로 推送 打設하는 장비로서 日本 HHI技術을 도입, 처음으로 國産化한 것이다. 트럭제시는 8톤 트럭을 이용하였으며 容量 3장각하고 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간당 75m³, 수평 600m, 수직 95m까지 수송이 가능하다.

首都圈備基本法 제정 움직임

8~9月 國際學術大會도—건 설부

30日 建設부에 의하면 首都圈整備의 長期 비전을 설정하고 人口 및 産業의 적정 배치, 무질서한 市街의 拡散規制와 土地利用秩序의 확립등을 위해 年末까지 基本計劃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国土開發研究院에 研究用役을 의뢰했다. 建設부는 이 研究를 지원하기 위해 外國의 首都圈計劃專門家 및 首都建設專門家を 초청 오는 8~9月경 國際學術大會를 개최한 方針이다. 또 海外에 거주하는 都市・環境・建築等 韓國人 專門家들은 이 연구에 참여시킬 方針을 세우고 誘致交渉에 나섰다.

建設부는 国土開發研究院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首都圈整備基本計劃案을 확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首都圈整備基本法案을 마련 오는 8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5평 이하 아파트 優先

小型 一定比率 建設업자엔 中型승인

1日 관계당국에 의하면 庶民住宅 不足率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5평 이하 소형주택의 擴大供給이 필요한데도, 建設業체들은 이같은 소형 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경향이어서, 신규로 발행된 住宅建設事業 承認과정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토록 강제규정을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현재 25평 이하 주택을 건설동수의 60%이상 차지하도록 그 비율을 조정할 方針이며, 15평 이하 주택을 먼저 건설한 업체에 한하여 中型規模의 住宅建設을 허용하며 각종 지원을 할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5평 이하 주택의 건설의무비율은 공동주택 공급량의 90%까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建築審議業務, 区庁에 대폭 이양

建築許可節次 간소화 위해—서울시

2日 서울시에 따르면 1~5층 美觀地區內의 일체의 建物에 대해 本庁에서만 실시하던 審議業務를 지난 1일부터 ① 3~5층 美觀地區內 建物, ② 10~50家以下 小規模의 聯立住宅, ③ 3층~9층 또는 연면적 100m² 이상 300m² 미만의 建物 ④ 地下2층 건물등에 대해서는 구청에 이양했다.

또 2층까지의 모든 建物 또는 10家以下 小規模의 聯立住宅은 本庁이나 区庁의 建築審議를 받지않고도 区庁의 建築許可만으로 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서울 公共住宅建設 억제

地方産業都市등으로 확산

3日 관계당국에 의하면 서울에 이상 더 새로운 人口流入을 억제하기 위해 公共資金을 投入하는 住公 및 市管住宅 建設을 중지하는 대신 浦項 釜山 龜尾・裡里・麗川・半月 등 地方産

業都市와 水原·城南·大田·原州·晉州·馬山·忠州·全州·群山·濟州·木浦 등 21個 地方都市에 小型아파트를 集中的으로 建設, 地方都市 및 據點都市의 住居條件을 서울보다 有利하게 함으로써 住居地域 送好度를 地方都市에 集中토록 하여 서울의 新規人口 流入을 억제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住宅會社는 작년부터 서울地域에서는 아파트 建設用地를 買入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工事中인 盤浦·通村·道谷 지역의 아파트를 끝으로 서울지역의 아파트 建設은 마무리지게 된다.

시멘트 등 建築資材 輸出 再開

올 下半期 賃長計劃 기준 마련—商工部

5일 商工부에 의하면 작년 품귀소동에 年初에 假需要까지 겹쳐 需給이 달릴 것으로 예상, 下半期 이후로 미웠던 鉄筋·시멘트·合板 등이 國內建築景氣 침체로 在野累積현상이 일어나 上半期中에 輸出을 再開할 方針이라 한다.

道路擴張은 한쪽으로만

새 都市計劃基準 6月부터 施行—建設部

전 建設부는 15개 항목의 都市計劃施設基準을 部令으로 제정 6月부터 施行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는 ①用途地域別 道路率 ②駅設道路의 幅은 片側幅의 원칙 ③道路構造의 肢体不自由者를 위한 배려 ④自轉車 專用道路나 專用車線 확보 ⑤街角剪除의 기준 ⑥작급學校의 배치기준 ⑦立休模斷道路의 구조, 기타 都市 汚場, 油類貯藏 및 送油設備, 綜合醫療施設 등의 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合板·木材·鉄筋·骨材 등

建築資材 값 계속 下落

建築盛需期를 맞이하고도 景氣가 계속 不振하고 관련業界의 資金事情이 악화, 최근 합판 철근 목재 골재 등 主要資材 값이 當局의 行政指導價格을 밑돌고 있음뿐 아니라 去來 決済方法도 現金에서 어음으로 바뀌는 등 弊害를 보이고 있다.

7日 建設協會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合板은 都売時勢가 行政指導價보다 221원이 낮은 3,250원이며, 木材類는 輸入原木價의 上昇과는 거꾸로 市中에서 投売減價, 시멘트는 계속 弱少 合勢로서 서울지구 驛頭在庫는 지난 1日現在 20,505톤으로 늘고 있다. 모래는 上昇하였으나 자갈은 m³당 714원까지 下落하여 一浦業체가 採取不能, 鉄筋도 昨당 3000원이 하락 172,000원이 되고 2~3개월 어음決済로 거래되고 있다.

建築資材 需給事情 好轉으로

政府工事 再開—物價對策長管회의

정부는 시멘트 등 建築資材 價格이 安定되고 在野事情 등이 好轉되었기 때문에, 7일 物價對策長管회의를 열고, 지난 4月1日자로 中斷되었던 政府工事發注業務를 再開키로 결정하였다.

海外建設, 現地定着方案 곧 마련

技術集約, 受注활동方門으로 高建設

약 20일만에 걸쳐 海外建設現場을 둘러보고 13일 귀국한 高在—建設部長官은 人力을 주로 형성되고 있는 海外建設業을 技術集約化 및 組織化하여 需要國의 經濟開發計劃에 참여한다는 자세를 長期的인 政策力案을 모색하는 한편, 尙畚적으로 발령을 부리는 技能人力者에 대해서는 強制送還은 물론 海外工事に 再就業을 容許하겠다고 말하였다.

建築規制 緩和 검토중 下半期부터

정부는 78年5月부터 시행중인 商業用 및 大型住宅에 대한 建築規制를 資材事情을 보아 下半期부터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8日 정부관계자는 현재의 建築規制 조치가 작년 봄의 建築資材波動 등과 관련돼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建築盛需期인 요즘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6月末까지 계속되는 建築盛需期의 需給動向을 보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下半期에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物價 뛰고 景氣떨어져 4月經濟動向

産業生産·建築도 鈍化

經濟安定化綜合施策이 발표된 지난 4月中 우리나라 경제는 建築活動이 크게 떨어지고 投資 및 輸出入의 증가세가 安定化 시책을 반영, 鈍化됨으로써 景氣가 일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소비자 및 도매물가가 각각 8.9%, 7.4% 올랐다. 月中 産業生産은 前月對比 11.4%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 同期中 20.1% 증가 수준에 크게 못미쳤으며, 全國의 建築許可面積은 23.79萬m²로 작년 同期보다 15.4%나 下落하였다.

상업지역 劇場, 病院, 45평에 1대꼴

駐車場法施行令 및 施行規則 마련

지난 4月17日 공포된 駐車場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駐車場設置에 따른 주차장의 規模·駐車料 駐車場管理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商業地域에 신축되는 연면적 300평 이상의 綜合病院·百貨店·劇場 등은 45평당 1대꼴, ▲ 敎會·寺刹·空港 등은 60평당 1대, ▲ 商業地域의 연면적 600평이 상의 一般建築物과 商業地域 以外 地域의 600평이상 모든 建築物에 대해서도 120평당 1대꼴의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행될 이 駐車場法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一定區域을 駐車場整備地區로 告示, 적용하게 될 것인데, 서울의 경우 市庁을 중심으로하여 서울驛 退溪路2街~世運商街~敎化門~西小門으로 잇는 구역이 駐車場整備區域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登錄稅 등 減免

최초 入住者만 1.5%로

정부는 서울 시내 아파트業者가 부담해온 保存登記 登錄稅를 免稅하는 대신 최초 入住者로 하여금 分讓價의 1000의 15의 登錄稅를 免稅하도록 하고 이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아파트業者가 아파트를 新築分讓時 保存登記 登錄稅率 1000의 8을 부담하고 최초 入住者가 다시 移轉登記할 때 1000의 30의 登錄稅를 부담하던 것을 아파트業者의 保存登記 登錄稅率 1000의 8은 없애고 移轉登記 登錄稅率 1000의 30을 50% 引下하기로 한 것이다.

地下駐車場·消防行政 등 특별감사:

不條理 是正 強力要求—감사원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1200 대형建物の 地下駐車場施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들 대부분이 허가조건과는 달리 면적이 좁거나 창고나 사무실로 轉用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서울시에 대해 이의 시정을 강력 요구했으며 現場監査를 통해 시정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이온호텔火災를 계기로 지난주 20명의 特別監査員을 구성, 약 2주간 예정으로 서울시 관제차, 화재전문가들의 지원 아래 消防本部 및 消防署 그리고 대형빌딩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인데, 특히 消防法에 의한 改修命令이 있은후 時限付 延期措置가 잦은데다 再改修 命令→点檢→未備된채 使用許可→火災發生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消防行政의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年代 아시아 競技, 90年代 올림픽 유치

11개 市都에 綜合競技場계획—政府

17일 정부가 발간한 行政白書에 따르면 市道마다 全國規模의 體育大會가 가능한 綜合競技場을 건립하고, 90年代 올림픽大會 誘致를 위한 기반 조성과 80年代 亞洲競技大會의 유치를 목표로 國際規模의 綜合競技場인 南서울 大運動場(서울 잠실)을 80年初까지 建立할 계획이라 한다. 亞洲競技大會는 82年「뉴델리」에서 개최되며 한국이 유치할 경우 86년에 실현될 전망이다. 또 올림픽은 80년에「모스크바」, 86년에「로스앤젤레스」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은 빠르면 80年代末인 88年 開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環境庁 新設 움직임, 一總理 직속

예산편성 등 준비 작업 年内 完了

정부는 19日 環境庁 만족에 따른 제반 준비를 금년 下半期中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초부터는 業務開出한다는 계획아래 이를 위한 본격적인 관련 法規補完 및 設置作業에 나섰다.

정부가 이처럼 環境庁 新設作業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公

害問題」를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있게 다룰 수 있는 環境庁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朴大統領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總務處·保健部·法制處·行政改革委員會 등 관계당국은 오는 8月末까지 機構新設의 전제조건인 關係法規 改正補完과 所要予算 編成作業등을 끝내고 이를 9月 定期國會를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중요建材 備蓄 확대 建設業界 促求

盛需期 資材波動에 방 위해

17日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도 전년 도와 마찬가지로 企業經營上의 가장 큰 臨路點은 資材求得難에 있었음을 감안, 이를 해소키 위해 鉄筋을 비롯한 主要建材의 備蓄擴大 및 流通構造의 改善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 하였다.

업계는 특히 금년의 경우, 建設工事의 規模가 大型化 되고 있고 公共建物の 着工이 下半期에 集中됨으로써 그 어느해 보다도 資材求得難이 加重될 것을 우려했다.

논·밭·林野, 垓地로 변경을 허용

25~35%는 公共用地로 제 공 등—서울

서울시는 19日 앞으로 논·밭·잡종지임야 등을 垓地로 바꾸는 土地形質變更은 都市整備委員會를 거쳐, 土地所有者에 한해 허용하되, 形質變更保記金으로 평당 5000원씩을 서울시에 預置, 이 가운데 50%는 竣工後, 50%는 竣工後 1년을 경과한 뒤 찾아가도록 했다.

또 開發者가 반드시 연결지와 도로를 연결하고, 어린이公園 등 公共用地 25~35% 부담토록 하는 한편 상하수도절까지 단장 등을 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날 土地形質變更에 따른 投機와 不法工事를 막기 위한 「土地形質變更許可指針」 일부를 변경, 종래 하던 土地使用寬限 등에 대한 形質變更은 일체 不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질서한 開發을 막기 위해 ▲ 開發制限區域 綠地地域과 이에 연속한 空地 ▲ 開發制限區域에 접한 風致地區 ▲ 나무가 있는 산지 ▲ 30% 이상의 急傾斜地와 高度 70m 이상의 高地帶에 대해서는 開發을 억제하기로 했다.

大·中小企業 都給領域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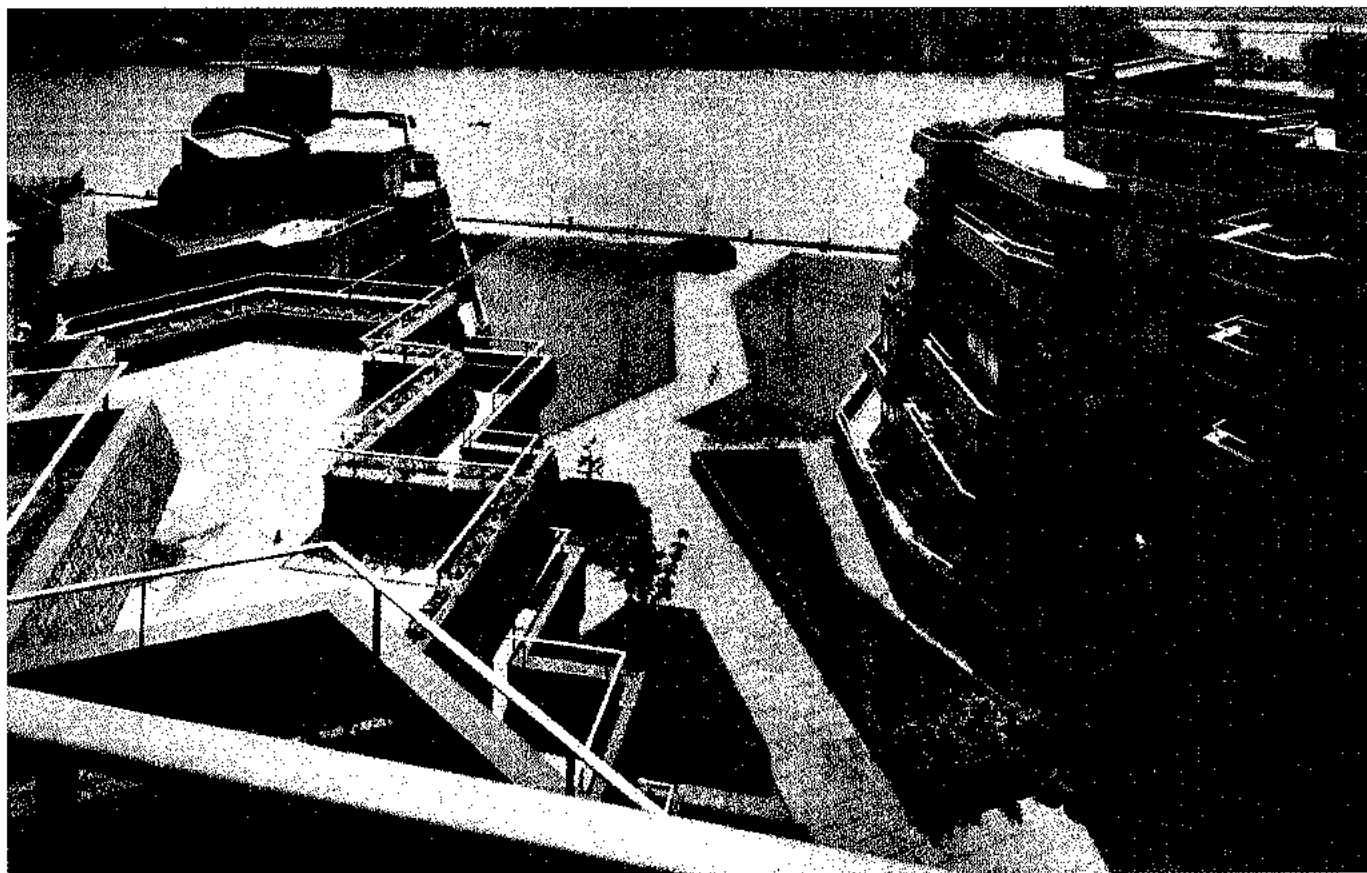
建設業法改正方針—전 설부

19일 건설부에 의하면 9月 定期國會上程을 목표로 마련중인 建設業法 改正法律案의 골자는, 中小企業 및 地方業体の 育成을 위해 地域과 都給下限線을 명시하여 市街의 大企業이 地方 또는 一定限度 이하의 工事に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그 都給領域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한다 이밖에도 大企業群과 中小企業群으로 구분, 企業內容(財務構造 등)을 중심으로한 誠實에 따라 支援施策을 펴나가기도 했다.

이같은 시책은 비단 國內業체뿐 아니라 海外建設業체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그 具體方案을 마련 중에 있다.

江辺集合住宅 영국 런던

設計 TED LEVY, BENJAMIN+PARTNERS



① 屋上에서 테-모스江을 바라봄 ② 테-모스江岸에서본다.

環境建築物로서의 外觀

背景이 있는것

이 建物에는, 런던의 集合住宅의 背景이 있는 것에해, 多少 說明하는 쪽이 理解하기 좋으리라 생각된다.

런던에는 G. L. C라고하는 總合的 行政機關이 있어, 거기서 런던의 都市를 만들어 내고 있는것은, 누구든 알고 있는 일이겠으나 企圖에서 디자인까지 一環된 成熟한 方策이 取해지고 있는것으로, 住宅의 供給計劃等도, 具體的인 方針이 定해져있어, 2~3年부터는 高層의 集合住宅에, 高層者, 旧家族, 新家族(世帯)에는 接地型의 住居를 供給하는 方策이 取해지고 있다.

公共이든 民間이든 G. L. C의 存在나 그影響은 런던에 있는 集合住宅을 생각할때, 한개의 指標를 賦與하고 있다.

또, 建築許可를 받는 地方自治區도 地區의 環境特性에 根據한 開發에 대한 指針을 갖고있어 企圖이나 設計에 있어 環境特性을 살려, 開發指針에 따를수있게 야수強力한 行政指導를 하고있다.

環境建築物으로서 視點

이 建物을 보는 方法으로는 몇가지 視點이 생각될 수 있다.

그하나를 環境建築物으로서의 視點이다 이 建物의 特徵의 하다는 不整形을한 外觀에 있다.

이것은, 設計者의 形態에 대한 즐거움으로 보는 것 보다는, 敷地의 情況, 말하자면 태임스江에 隣接하고 있는 것에서, 江이라는 環境特性을 充分히 活用할 것, 江의 흐름이나 風景과 建築을 어떻게 關係시키느냐는 일들이 하가지 테마로서 發生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住居에서, 江의 景觀이 보일수 있도록, 配置計劃이 되고 있으며, 江岸에서 멀어질수록, 建物의 높이를 增加시켜 屋上 테라스에서 江의 眺望을 考慮하고 있다.

江의 對岸에서의 全景으로서는 平面的인 江. 江에 가까운 部分으로 水面에 沼할것 같은 低層의 兩翼部分 江에서 멀어짐에 따라, 높이를 올려주는 中央部分과, 風景과 一體가 된 周刻的인 景觀을 만들어 내고 있다.

環境의 特性을 反映해서, 建物을 짓는 일이 充分히 檢討되고 있다는 것이다. 勿論, 이 建物이 다른 敷地, 市街地의 街區속에 세울경우, 다른 形態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建築이, 단지 形態로서, 거리의 風景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環境과 建築이 一體가되어 形態가 決定되어 진다는 것은, 英國或은 유럽地域의 伝統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都心型의 集合住宅의 存在를 생각할때에도, 充分히 檢討되어 저야 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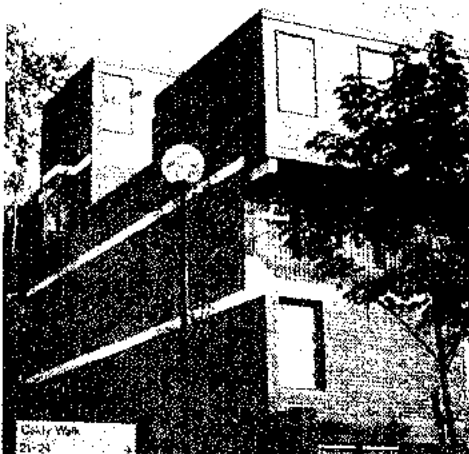
「HOUSE」의 積層에 의한 集合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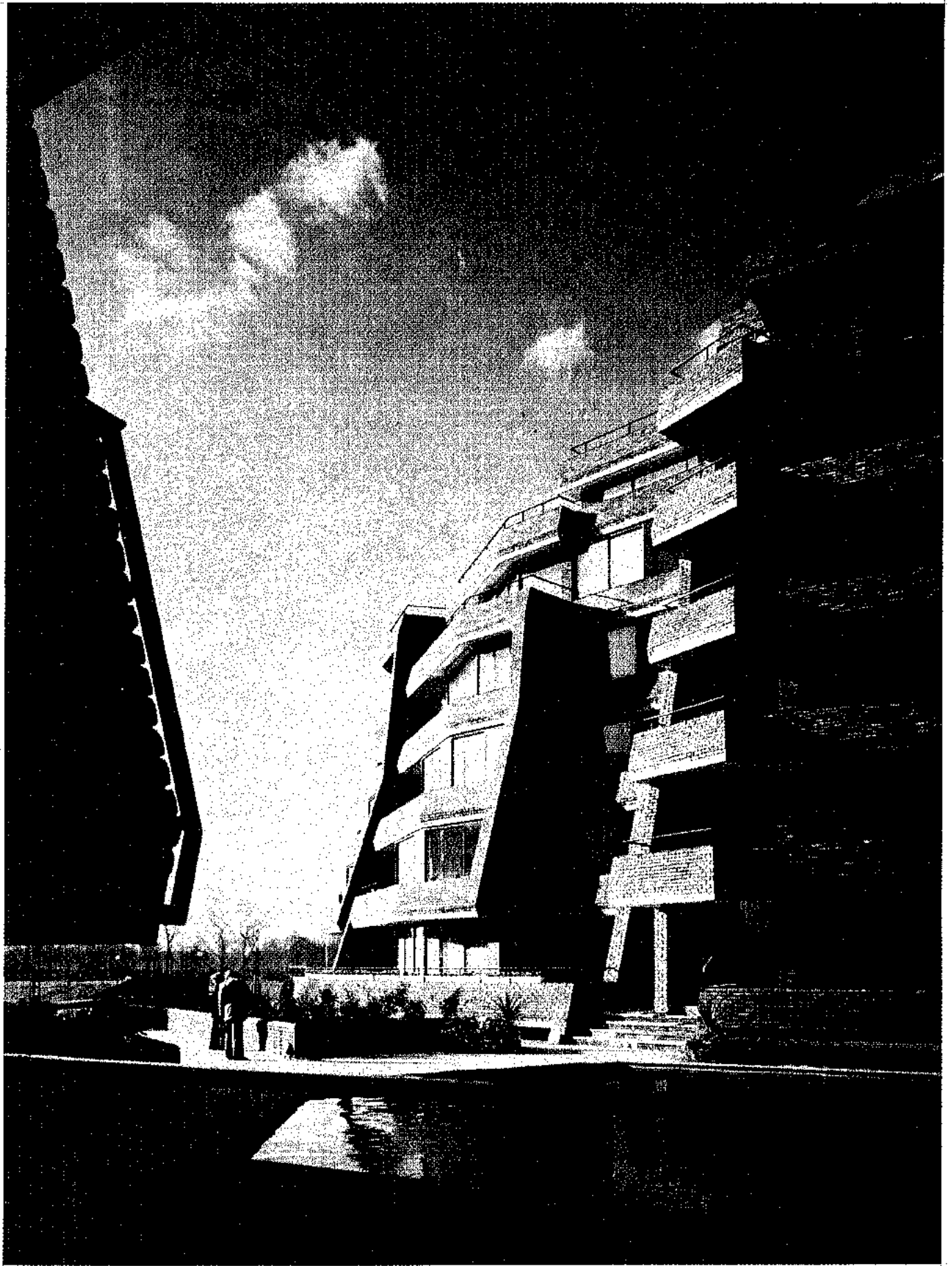
「후렛트」와「HOUSE」라는말을 이 곳사 람들은 흔히 쓴다. 「Flat」라는 뜻은, 單純히 쌓아올린 住居를 말하며「HOUSE」獨立住宅에 가까운 概念을 뜻하며, 庭園이 있고, 戶別의 去関이 分明히 있어 秋生活이 잘지켜지는 집이라는 것이다.

이 集合住宅의 平面을 보면, 各戶의 床面積이 넓은것에 接하게 된다. 또한 平面이 直交軸으로서 構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不整形이 되어있다.

住戶前面에 만들어진 테라스도, 1個層의 두戶口만이 使用하는 階段, 에레베이터·홀도 不整形으로 되어있다.

獨立住宅이, 敷地의 모양에 맞춰 不整形의 平面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가끔 있는 일로서, 「2戶1階段」이라는 集合住宅에서는 比較的 私生活이 保護를 받는 通路形式을 取하고 있는 것은, 各戶가「Flat」의 概念보다는「HOUSE」의 概念에 가까운 것을 눈여겨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못이 있는 中庭을 본다



모여서 산다는 즐거움을 演出

集合住宅은 單純이 住宅을 모아 올린 것이 아니고, 그곳에 모여 산다는 일에서 찾아내는 즐거움에 것들여 演出도 생각하는 일이 重要的 것이다.

여기에서는, 前面道路에 接해서 室内 풀, 사우나, 라운지, ㅍㅍ가 別棟에 設置되어져 居住者들이 이러한 共用施設을 共同所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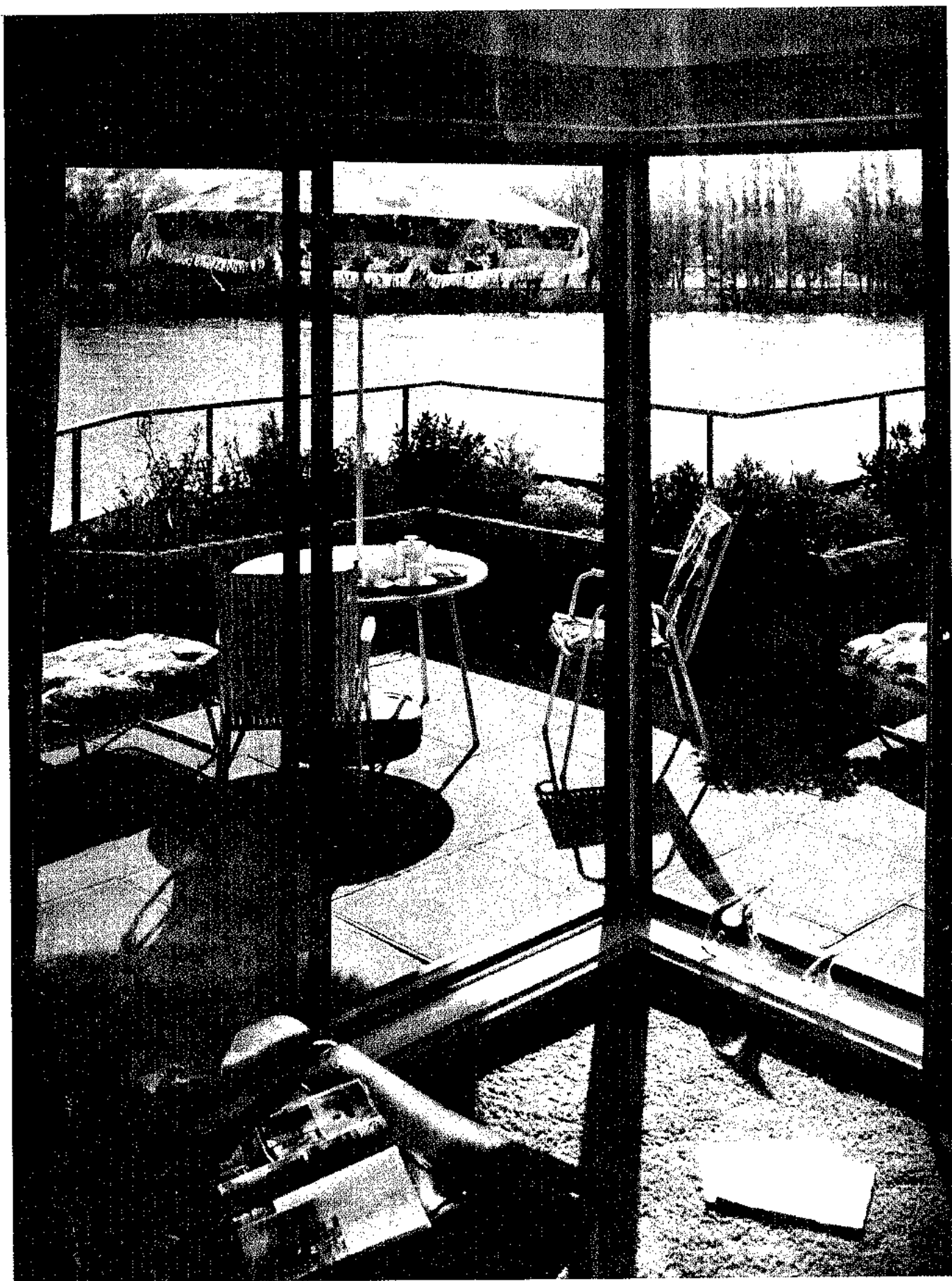
都市의 住居가 극히 콘크리트가 되어 社会的인 施設을 排除하여 버리고 있기에, 都市에 살고 있는것의 즐거움을 누릴수 있겠끔, 社会的인 施設과 住宅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演出은, 集合住宅의 計劃에서는 보다 重視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勿論 共用施設을 만드는데 따라, 個人 住戶의 私生活이 물란해지거나* 損害를 입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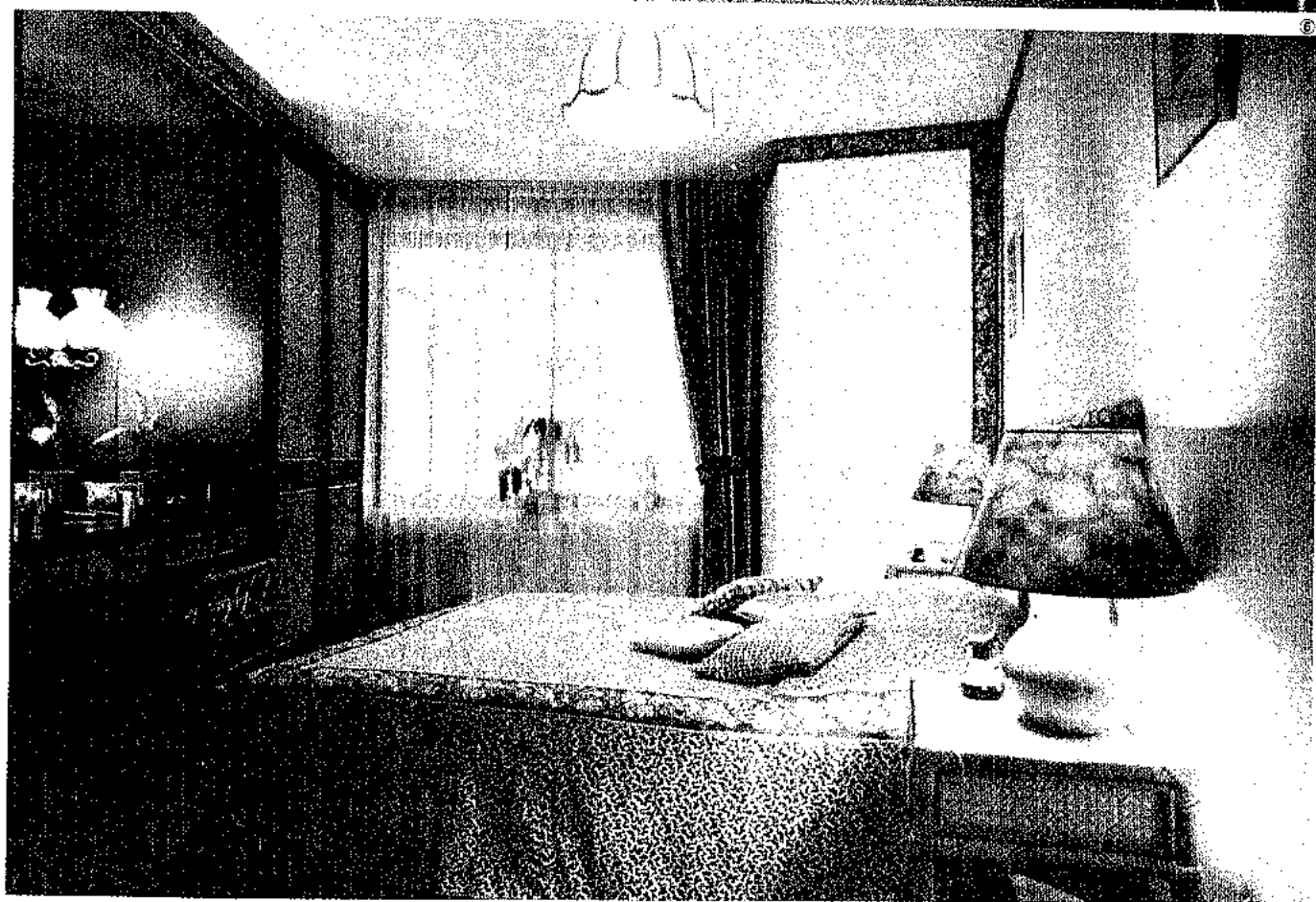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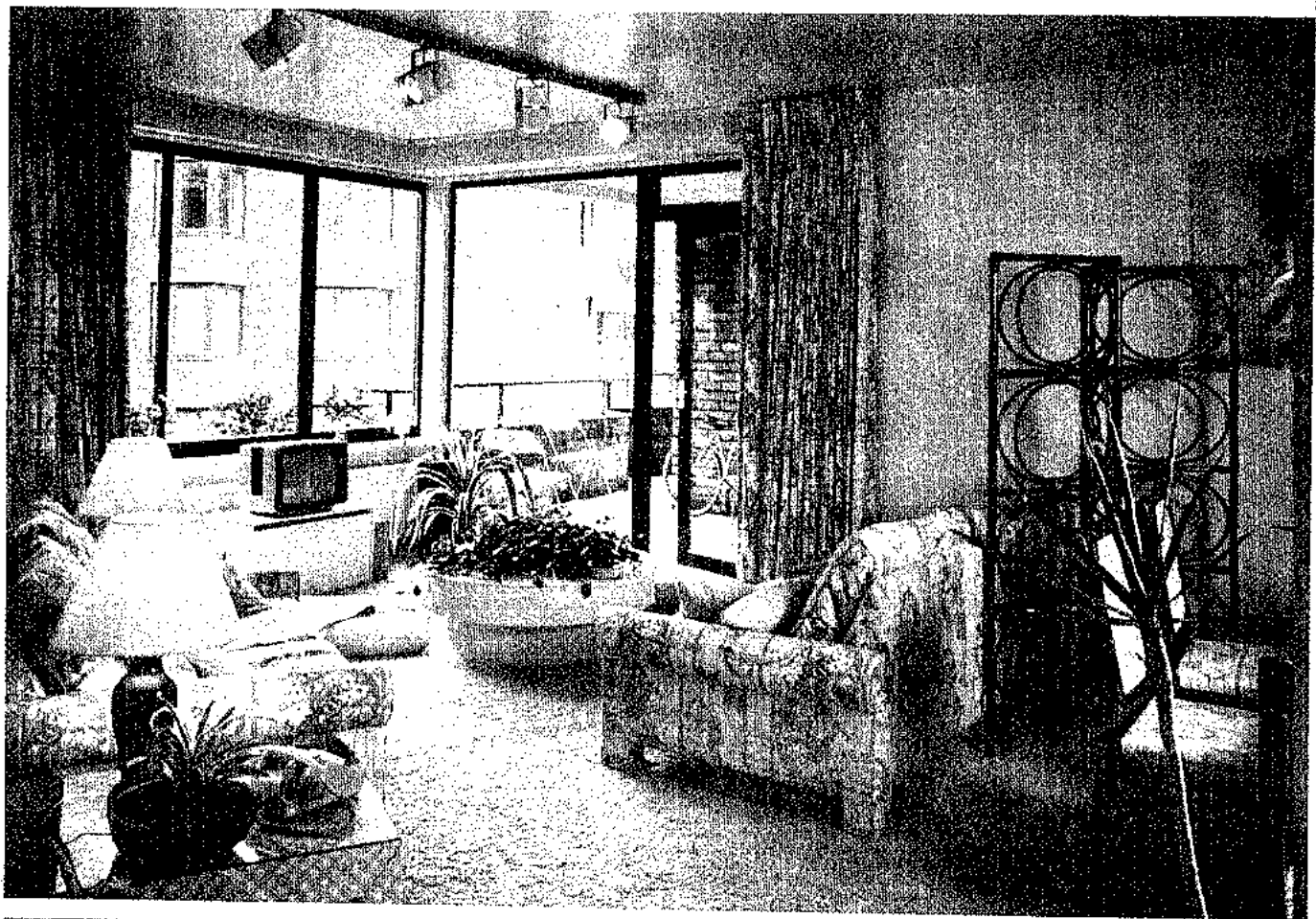
이 建物の 建設의 背景에는, 都市속의 江邊의 綠地의 活性化라는 目的도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最初에도 말했듯이, 社会施設로서 都市 環境에 기여할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建物에 대하여, 企圖에서 디자인까지, 一環된 計劃이 바람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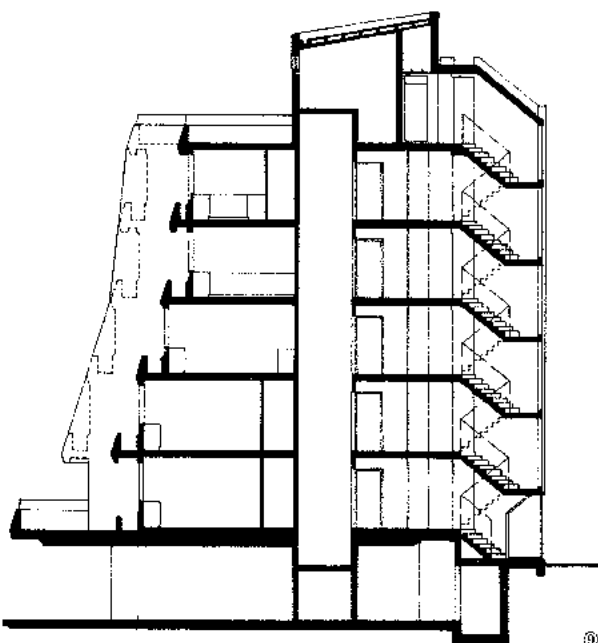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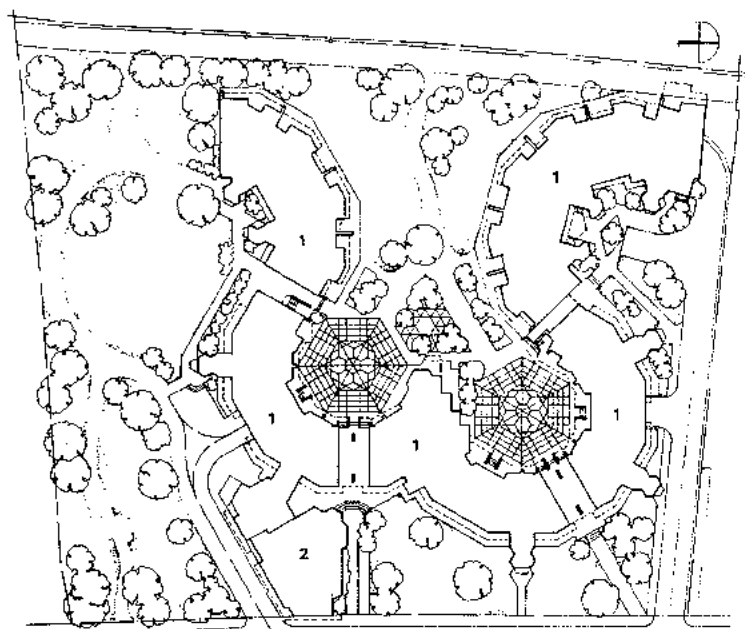


⑤ ~ ⑦ MODEL. ROOM ⑤ 테임스강을 바라봄



⑥ 居室 ⑦ 主寢室

⑦



⑧ - 配置図

- 1 - 住居ブロック
2 - 共同施設棟

⑨ - 断面図

- ⑩ - 8層 平面図
⑪ - 7層 平面図
⑫ - 6層 平面図

⑬ - 5層 平面図

⑭ - 4層 平面図

⑮ - 3層 平面図

⑯ - 2層 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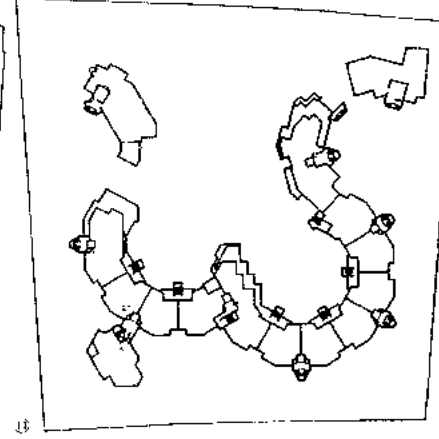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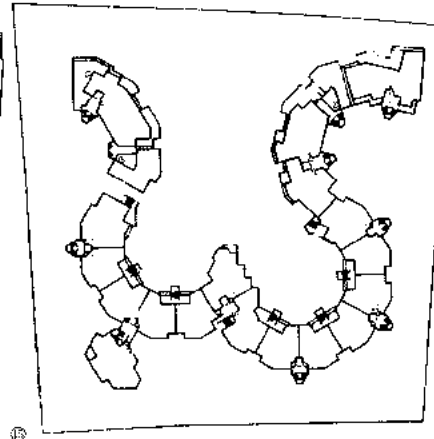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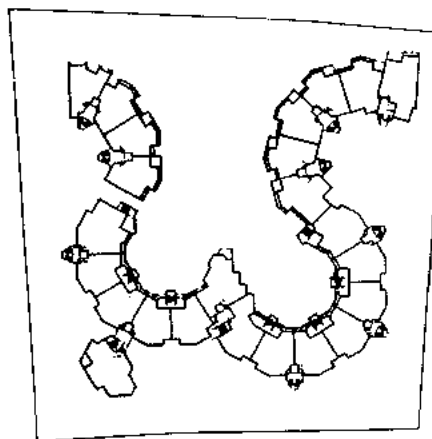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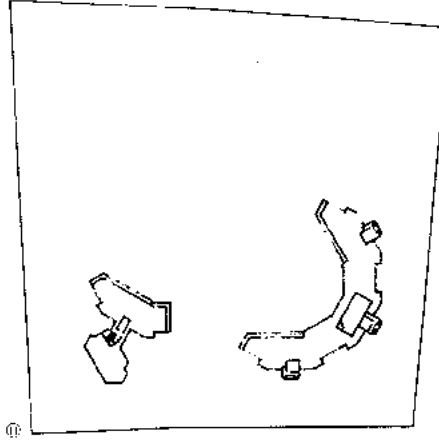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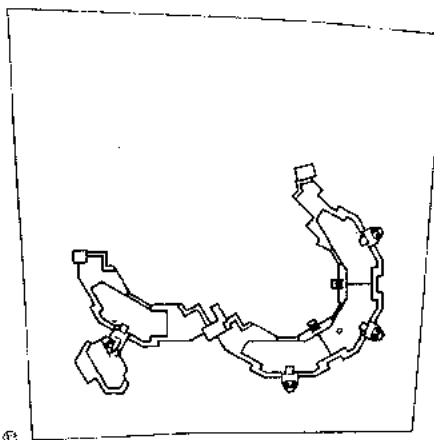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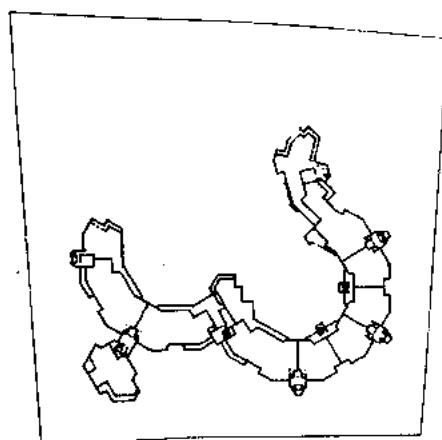
⑰ - 1層 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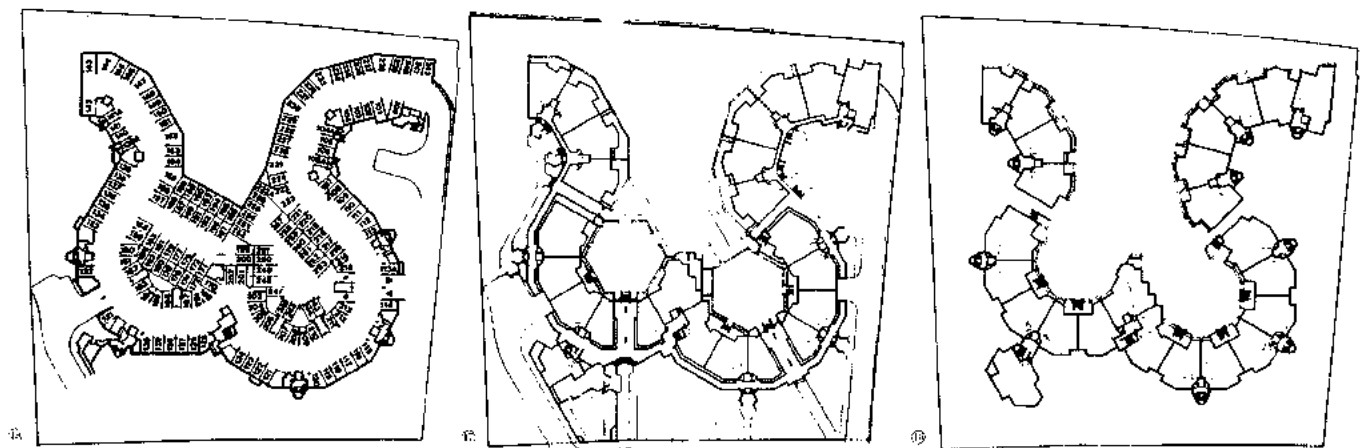
⑱ - 地層 平面図

⑲ - ⑳ 各戸 平面図

㉑ 共用施設棟 平面図

- 1 - 玄関 7 - 共用施設玄関
2 - ホール 8 - 管理室
3 - 居室 9 - ラウンジ
4 - 部屋 10 - 廊
5 - 洗面 11 - 更衣室
6 - 浴室 12 - 室内巻





江辺集合住宅

이計劃은, 1973年 1月 하-머스미스·런던 自治區에 의해 홀함·리치計劃으로서 發表되었다.

이것은 機會있을적마다 江岸의 商工業的利用을 徐徐히 廢止해 가자는 G.L.C.의 方針에 따른 것이다.

이 敷地의 南쪽에 있는 홀함·축구클럽에서 始作되는 홀함·리치는 長年 巨大한 倉庫群이나 重油의 貯藏庫의 用地로서 使用되고 있었다.

그 地域에 대해 言及된 홀함·리치計劃의 報告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a) 江岸의 遊歩道を 新設 또는 改良해서, 遊歩道가 있는 보다 나은 公共“악세스”의 設置.
- (b) 工業用으로 使用되고 있는 江岸前面의 再開發에 當해 새롭게 개방된 空間이나 眺望點을 갖출 可能性을 갖는다.
- (c) 植栽를 해서, 모든 江岸디자인이나 造園에 대해서 높은 質을 強調할것.

이 集合住宅이 建設되어진 敷地는 스티브네이지·와후라 불리워 그곳에 세워져 있는 대부분의 建物の 質, 構造等 아주 粗雜한 것이었다.

하머스미스 自治議會의 計劃指揮者나 이計劃의 議會分科會는 이 敷地에 대해서 滿足할 수 있는計劃의 協定을 체결할 것으로 그 地域의 計劃의 前例를 만드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 結果 G.L.C.에 後援을 받은 하머스미스 自治議會는 住宅開發에문에計劃을 認可했다.

任命되어진 開發業者에게는 하머스미스의 홀함·축구클럽에 隣接한 1에-카의 開放空間이 賦與되었다.

그곳은 造園하여 江쪽을 따라 15회-트의 遊歩道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開發業者는 慰樂施設로서 指定되어져 있던 煉瓦建物の 철거許可를 얻고, 또 慰樂센터의 建物を 開發 敷地 가운데 혹은 當時 施主가 이미 購入했던 隣接地의 에트니트·와체의 建設을 準備하도록 要求했다.

그 結果, 이 모든 要求가 完全히 받아들여져 慰樂施設은 에트니트·와체에 建設될 予定인 것이다.

우리는 이 開發이 興味있는 形態의 建物を 設計하여 또, 江岸의 建築的質을 向上시키는데 다시없는 機會라 생각했다. 우리는 멋진 江岸의 眺望이 可能한 住宅유닛트가 되도록 많이 할것을 決定지었다.

또한 視覺적으로 變化를 주기 위해 江을 面한 스라브의 配據를 엇갈려 가지런치않게 처리하도록 決定했다. G.L.C.는 高層, 高密度를 主張했다.

이와같은 決定事項을 解決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한쪽은 낮게 反對쪽은 높게(江쪽을 낮게)하면서 段狀으로 하고 마치 蛇形으로 꾸불꾸불한 建物로 했다.

各 APT의 屋上은 되도록 많은 발코니 혹은 테라스를 設置될 수 있게, 建物は 各層 各樣하게 段狀으로 했다.

이들 段狀의 많은 屋上테라스는 大部分 江을 面해 있다. 이 案은 各樣의 種類의 유닛트에 많은 햇빛이 들어간다는 특이한 價值가 있다.

地下는 大駐車場으로 設計되고, 1層에는 인터폰이 달린 入口홀이 있고, 그들은 各己의 APT에로의 階段이나 에레베이터에로의 出入口로서 設置되어있다.

入口홀은 11곳이 있고, 1個層마다 2家口의 APT의 專用에레베이터와 階段이 있다.

이와같이 最大限의 私生活이 保障되고 있다. 또한 많은 APT는 中庭으로 내려가는 非常階段을 통해 江岸으로 나아갈수 있다.

構造는 콘크리트의 크로스·월, 基礎는 杭基礎 窓은 靑銅色의 알루미늄의 미닫이窓, 테라스나 발코니의 大部分은 煉瓦製의 꽃상자가 만들어져 있다.

建物마다의 모서리는 모두 直角으로 마무리해 있다. 그것은 홀함·리치에 沿해서 開發이 進行되고, 將來 이 建物を 繼續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것이 意圖되고 있다. 各 單位의 暖房은 CAS 中央暖房, 모든 窓은 二重유리로 되어있다.

테드, 레비, 벤자민+PARTNERS는 1960年代初에 E.T.레비가 일을 시작하여 1964, 65年 연이고, I.O.홀비치와 I.벤자민이 加入했다.

세사람 共히 60年代初에 英國으로 건너간 것으로, 레비와 벤자민은 南아프리카의 “윌트모-다스랜드大學”에서 화스라-教授에게서 師事, 홀비치와 케이프타운大學에서 소온본·화이트教授에 師事했다.

建築家の 邸宅

設計：ANTE JOSIP VON KOSTELAC

：서부독일 쾰른(다름슈타트 近郊)

建築家の 経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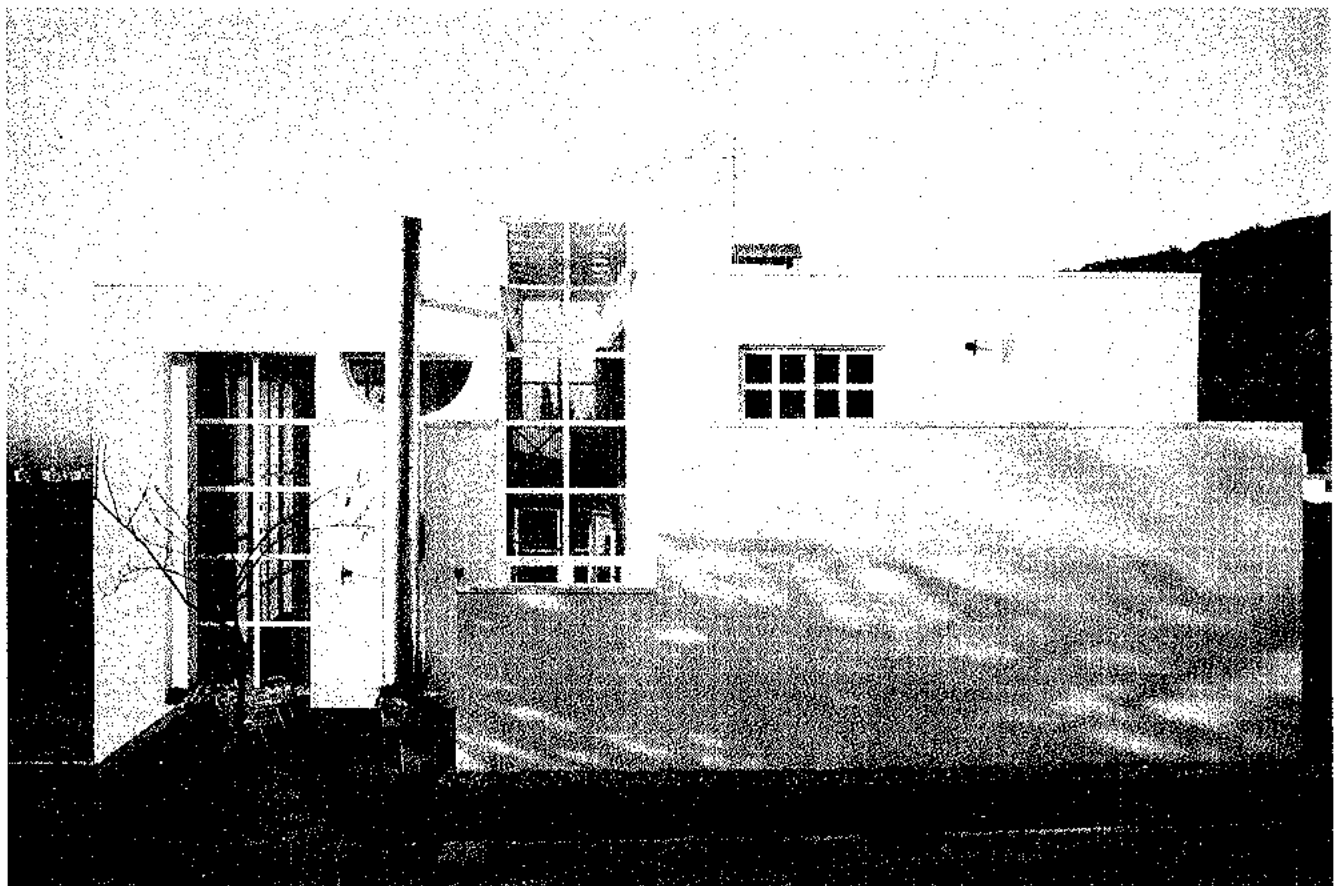
코스테락크는 1937년 유고슬라비아의 사구레브에서 출생 사구레브 大学에서 建築 美術 使를 修業 사구레브 시 아다 · 아카데미에서 舞台 디자인을 배웠다. 1962년 오스트리아의 구라-쓰에 옮겨, 設計活動을 된다.



그後 1968년에 西部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옮겨 다름슈타트 二料大学에 教鞭을 잡고 実作은 이 住宅이 처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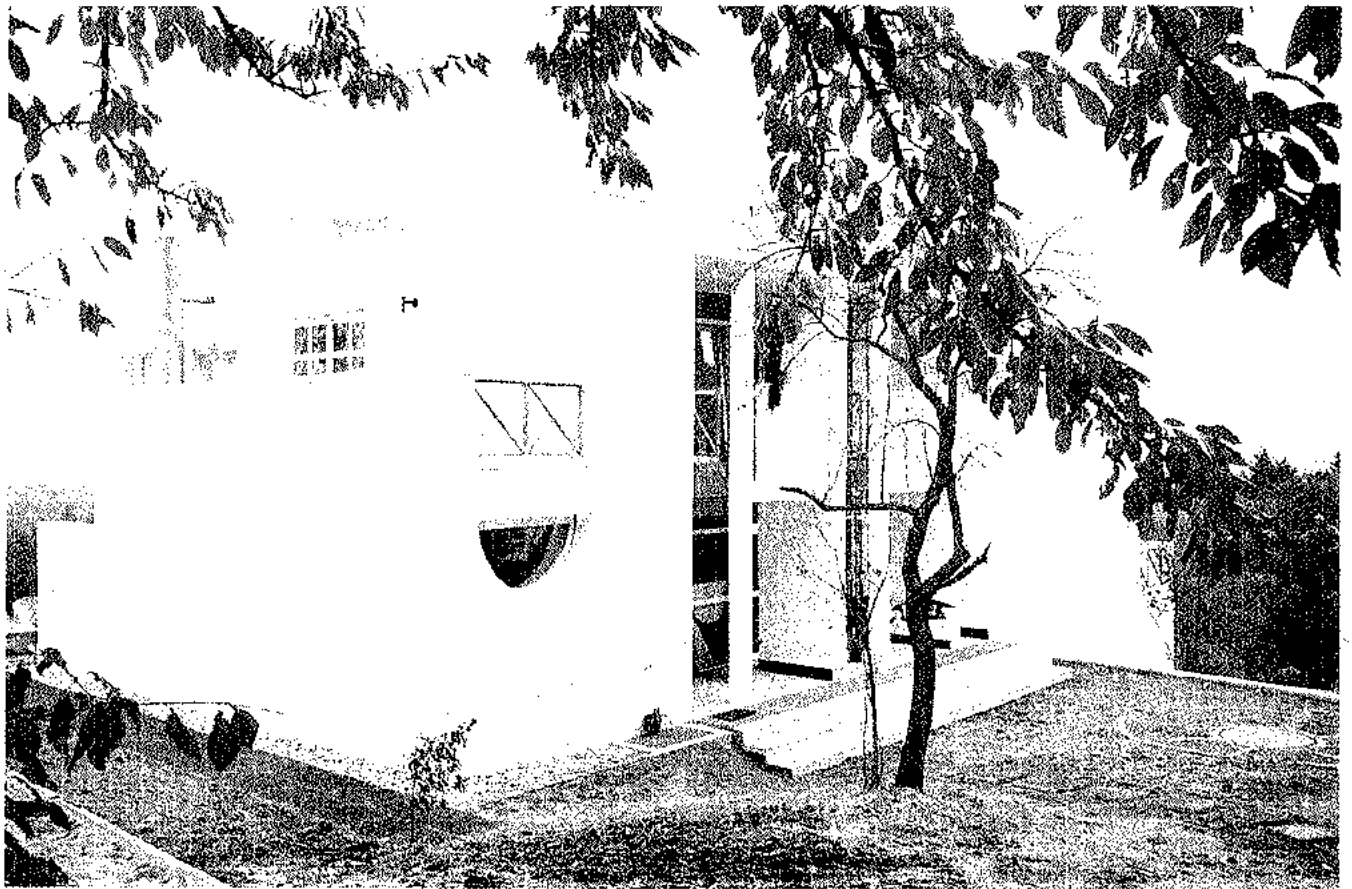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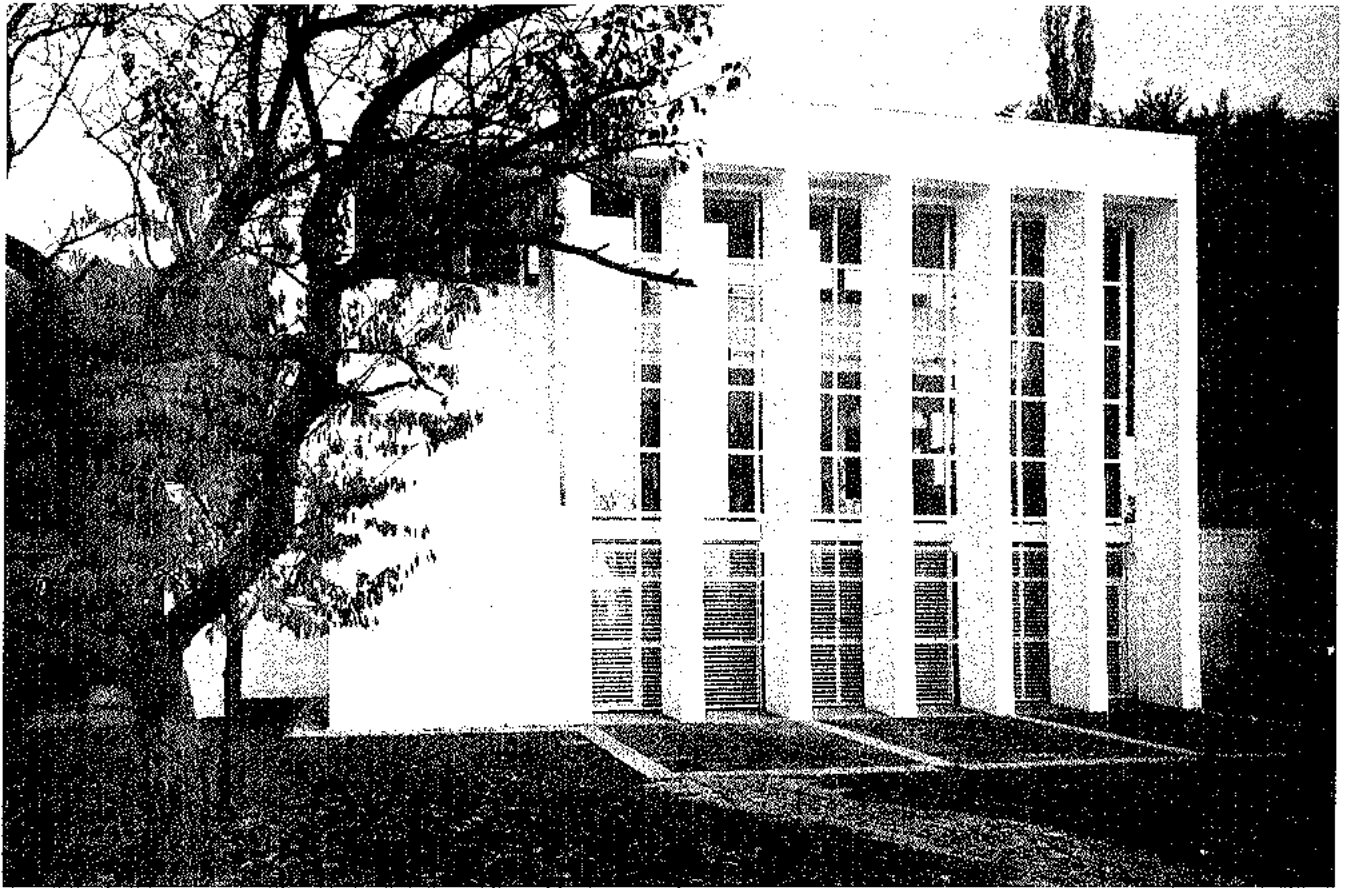
「오-스트리아建築1945~75」「Rational Architecture」「도르트문트建築展76」「로브·구리에展」等の 建築展을 다름슈타트에서 열기 위한 構成員으로서도 活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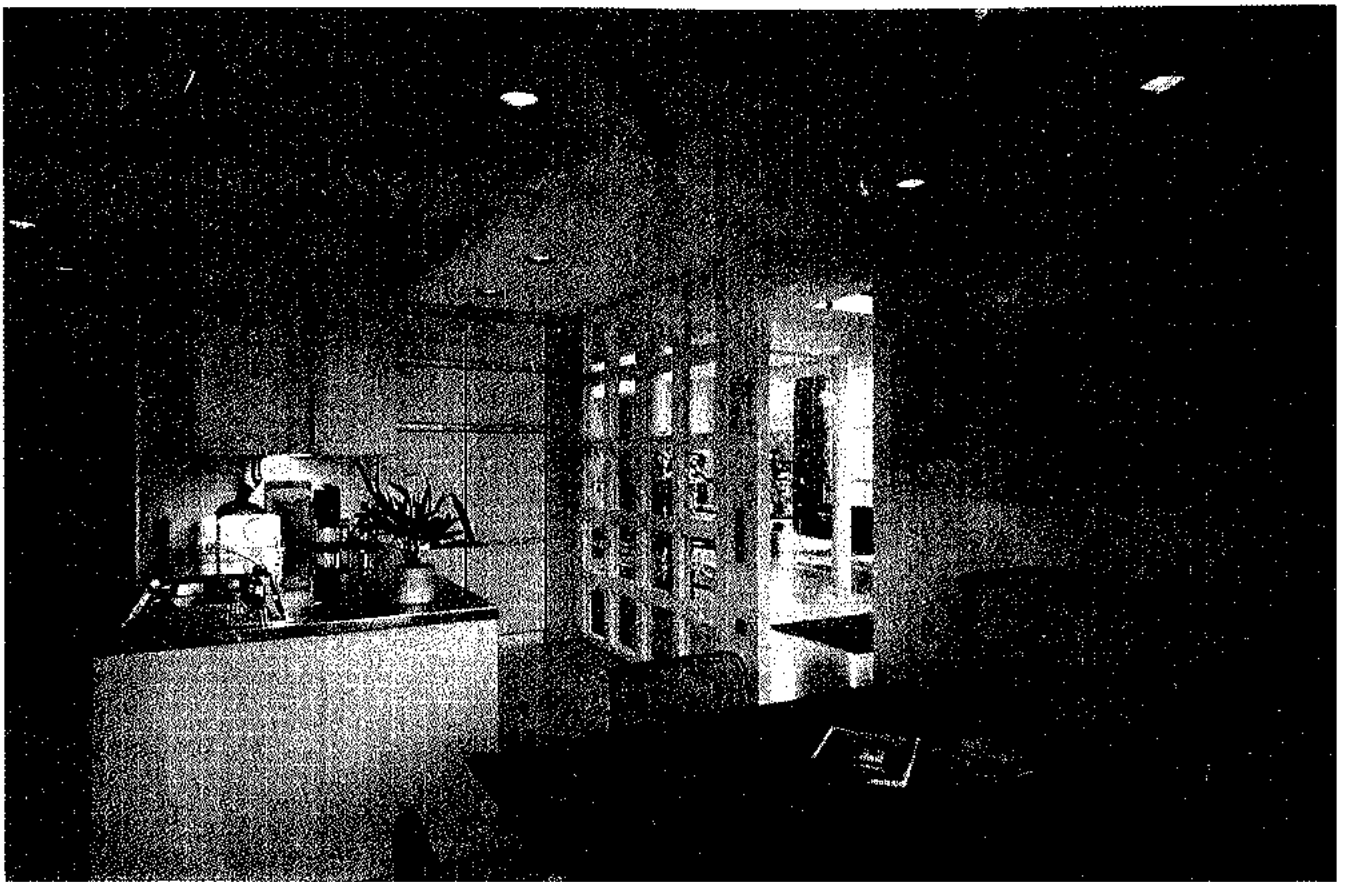




General view from northwest

South side facade





Living room

Dining

純眞한 合理主義者

이 住宅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독일에 있어서 最初의 合理主義의인 住宅이라는 것이다. 이 點에 대해서 設計者 自身도 強調하고 싶은 點인것 같다. 合理主義的建築은 이미 이태리에도 스위스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이지만, 독일에는 全然없었다. 때문에 이 住宅이 독일 最初의 合理主義的 建築으로서 實現된 것으로 된다.

合理主義的인 建築이라고 해도, 그 規定形式에 의하기도 하지만, 例를들어 아르도·루체를 合理主義的인 典型的의 하나로 한다면, 그 中에는 分明한 두 要素가 있다.

그 하나는 古典志向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形面上學的으로, 藝術的인 것에 대한 志向으로, 이 두 志向이 共存하여 루체의 경우는 그것이 獨特한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合理主義에는 内部的인 보다 자세한 區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住宅의 設計者 고스메락코는 그것을 확실하게 모두를 받아 드리고 있는것 같다.

全体的인 構成은 어떤가 허술하나, 깨달기가 便하고 空間이 오묘하게 처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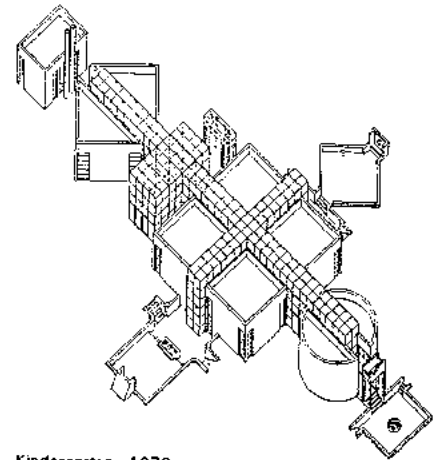
그리고 좀, 복잡한듯하나, 그런점이 좋다는 것이다. 어떤 특수 方式이나 形式을 편중시켜 처리되질 않고 臨機応變으로 手法를 쓰고있다.

이 住宅에서 가장좋은점은, 그스케일 感인 것이다. 東洋的인 小住宅의 空間의 感覺과는 全然달리, 유럽에서의 빌라나 파레스에서 볼수 있는 스케일感이 이 住宅에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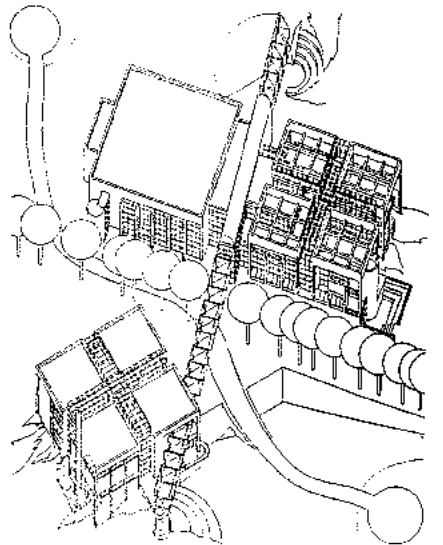
코르비제의 住宅도 빌라라고 부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스케일感을 느끼게한다. 때문에 이 住宅에서는 3層 높이의 줄것게하여 建物の 스케일을 크게 올리려는 노력이 역역한 것이다.

施工은 잘됐다고만 할수 없겠지만, 콘크리트 부목, 木造의 組合方式으로 짓시는 既製品를 쓰고 있다. 作家는 유고슬라비아 貴族出身으로 착실하고 낭만적이고 온화한 품격의 소유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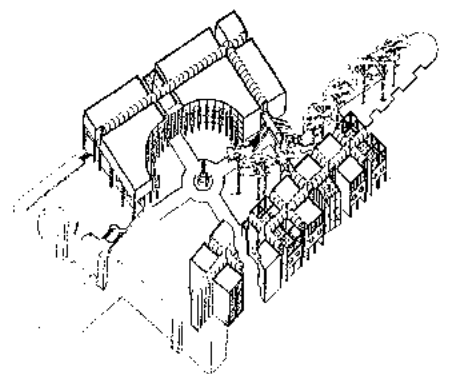
그는 쪽 一貫해서, 合理主義에 基準을 두고 計畫案을 마련하여 왔지만, 이 住宅은, 말하자면 그렇게하여온 그의 研究와 經歷의 集約된 그에 있어서는 처음의 또한 독일에 있어서도 最初의 合理主義的 作品인 것이다.



Kindergarten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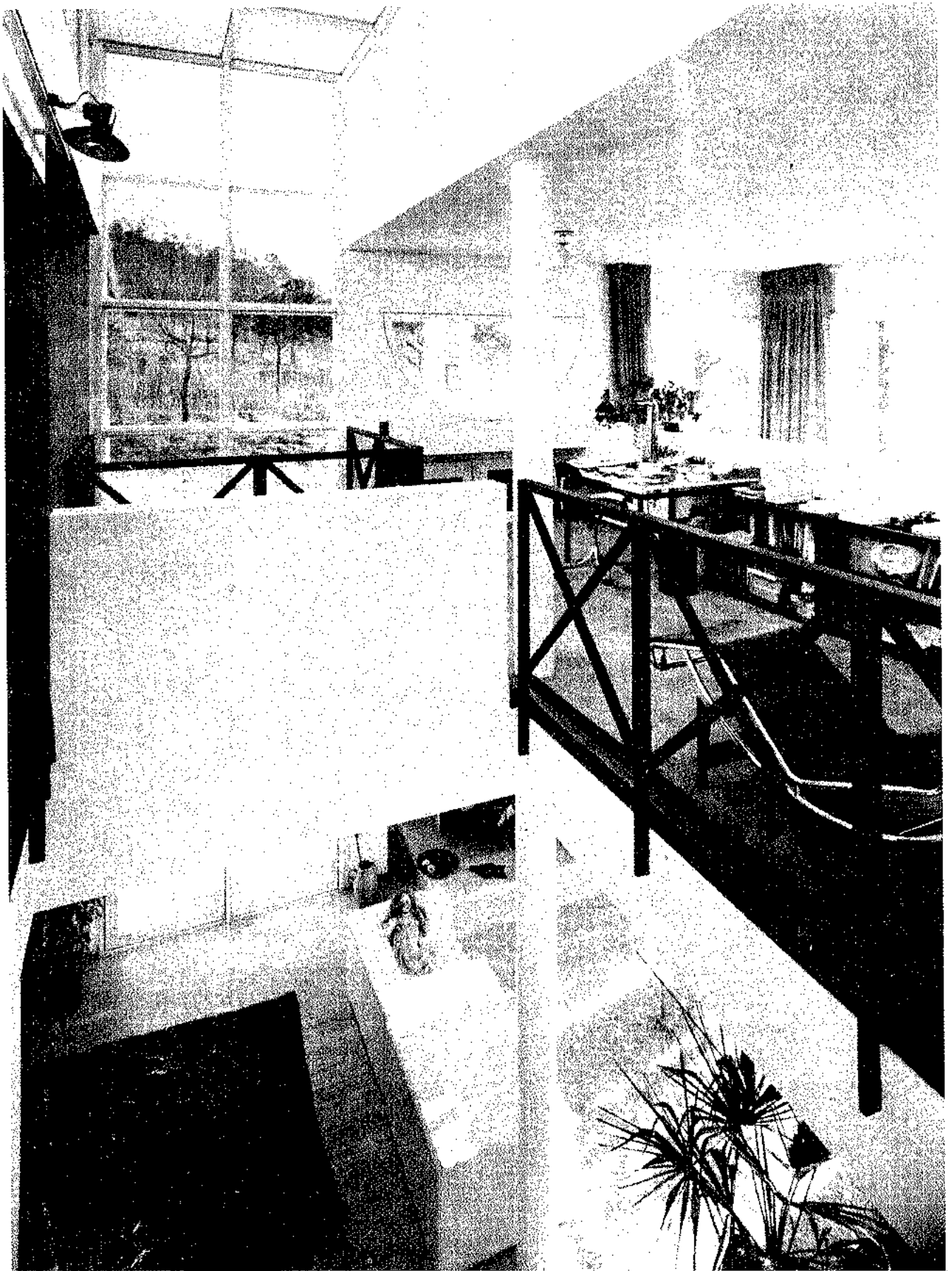


Kurhaus Gladenbach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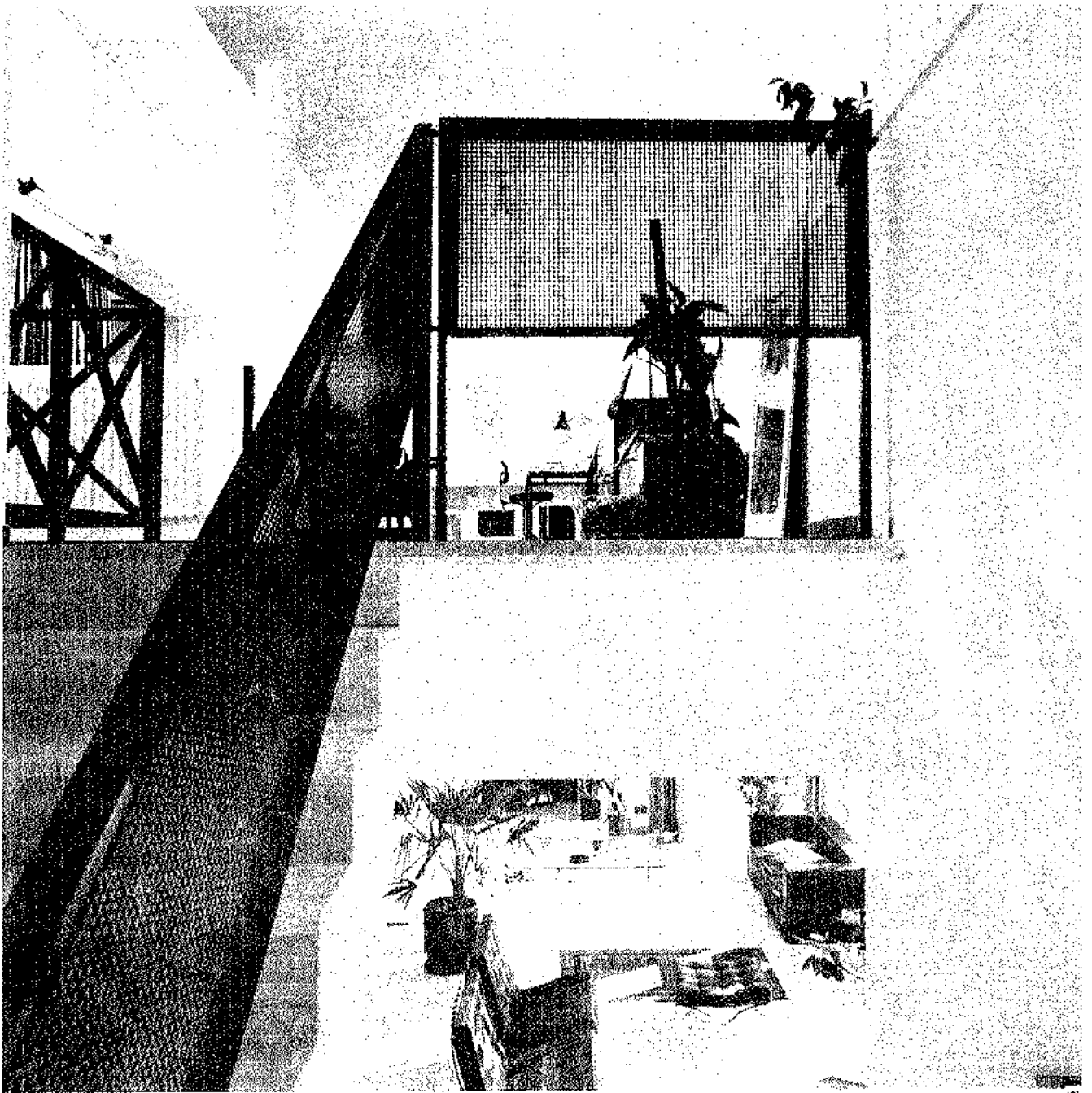


Schuldorf Bergstrasse 1977





Lounge view from the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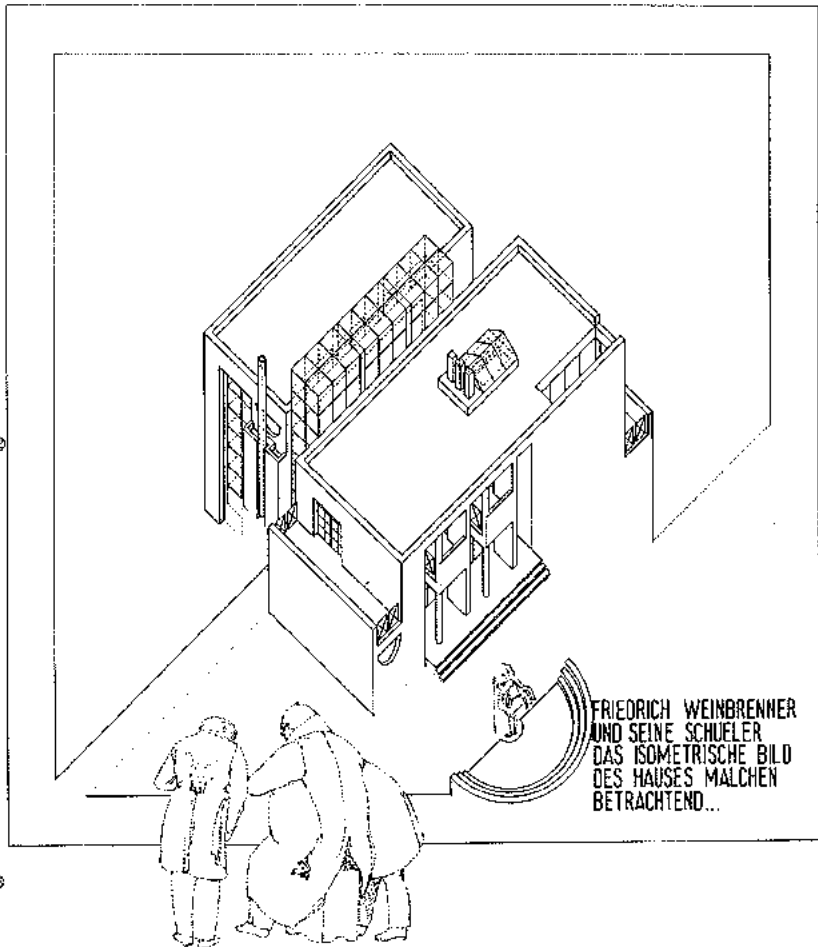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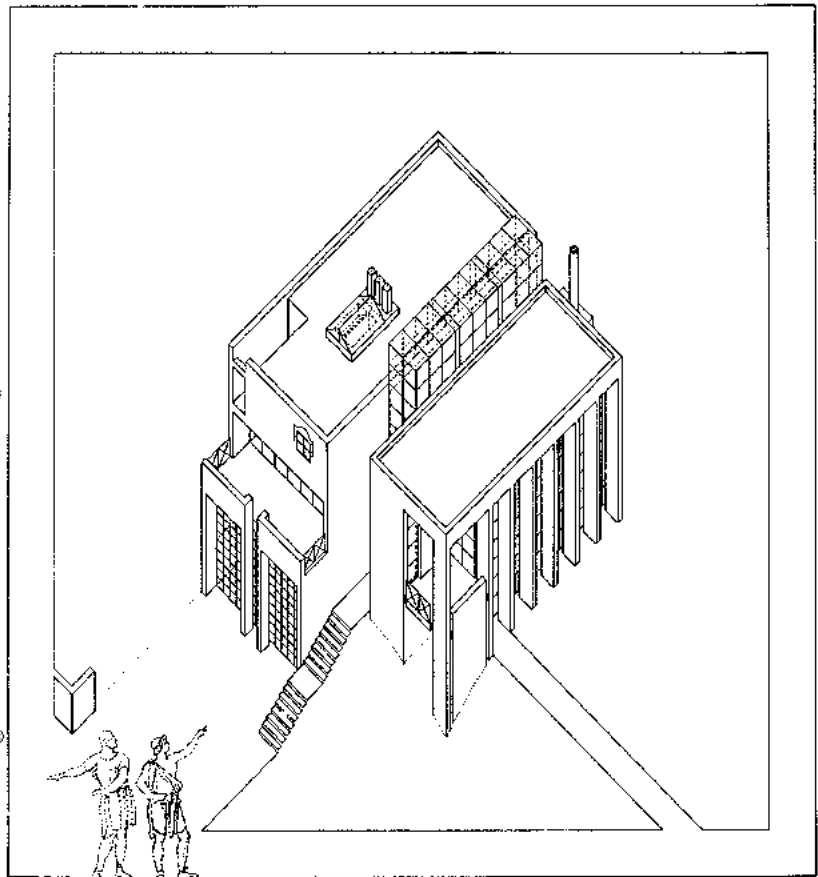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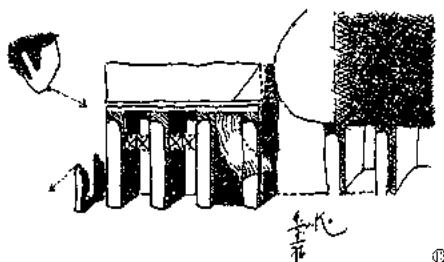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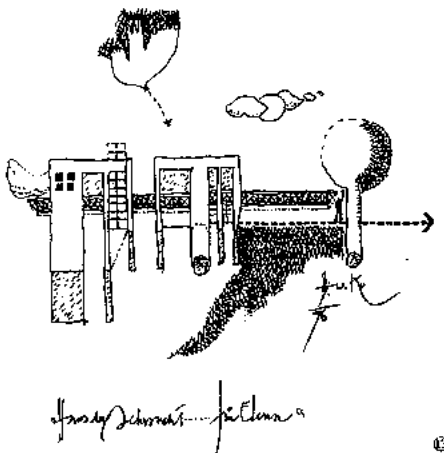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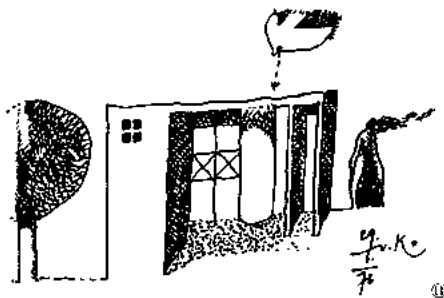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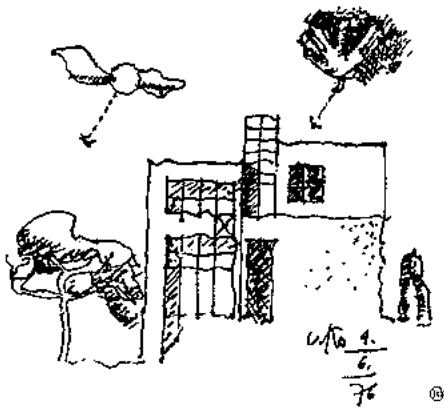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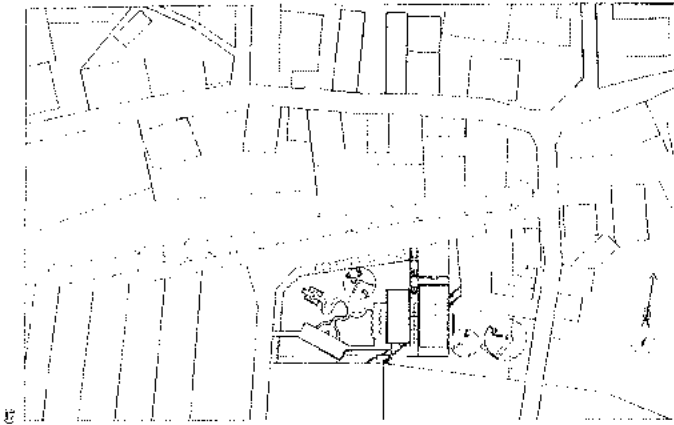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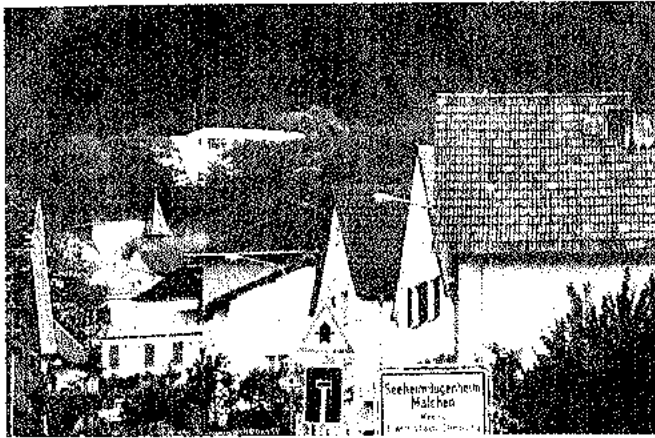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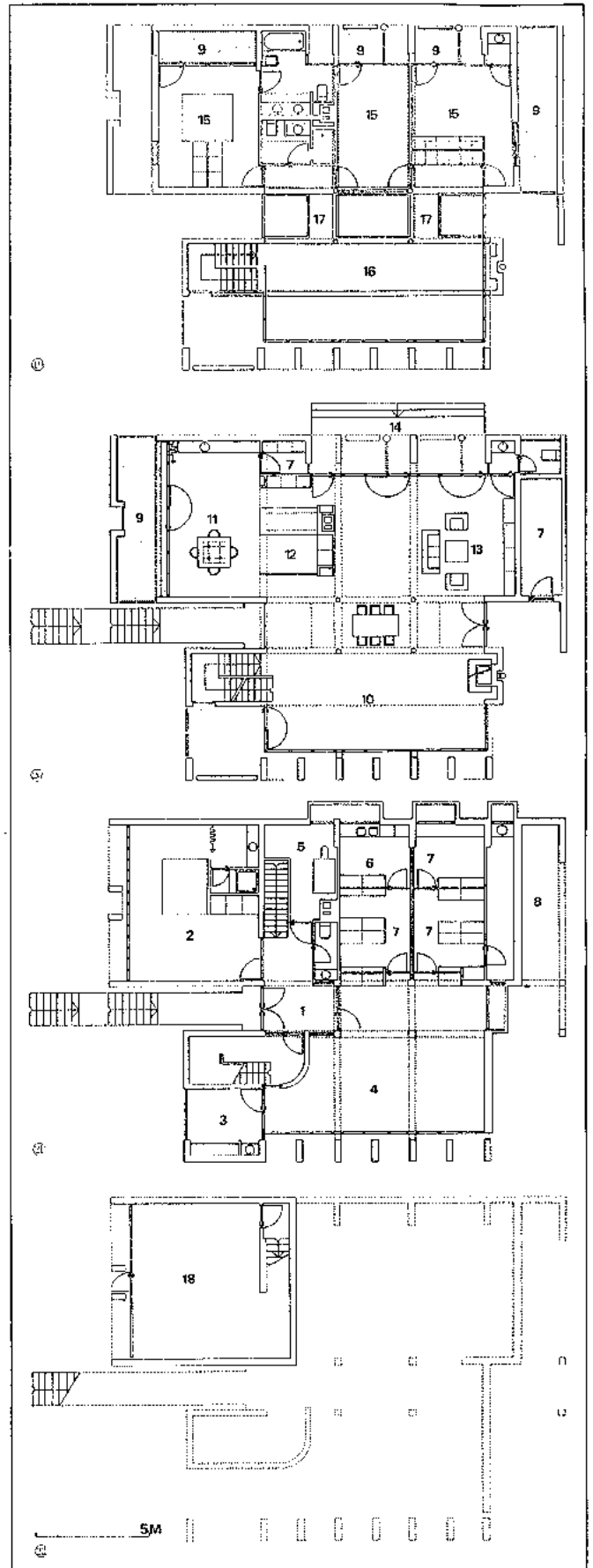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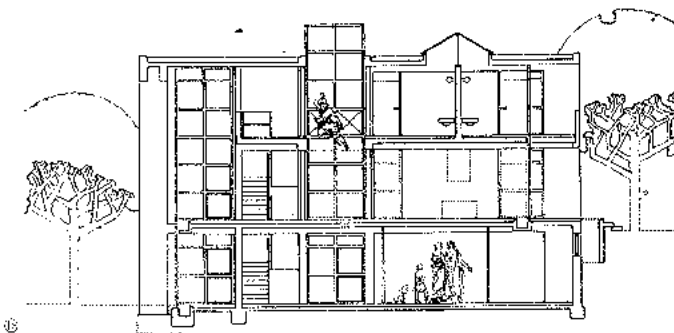
(11)





- 1—Entrance
- 2—Guest room
- 3—Office
- 4—Architecture studio
- 5—Heating
- 6—Laundry
- 7—Storage
- 8—Wine cellar
- 9—Balcony
- 10—Living room
- 11—Dining room
- 12—Kitchen
- 13—TV/Music
- 14—Terrace
- 15—Bed room
- 16—Gallery
- 17—Bridge
- 18—Garage

- ⑩—⑪—Sketches.
- ⑫—Axonometric drawing.
- ⑬—Situation of its surrounding.
- ⑭—Site plan.
- ⑮—Section.
- ⑯—Third floor plan.
- ⑰—Second floor plan.
- ⑱—First floor plan.
- ⑳—Basement floor plan.





建物は 自然景視과의 対照를, 그의 外視에 의해 나타낼 뿐 아니라 建物自件容量感과 透明性과의 사이의 対照에 의해 表現하고있다. 이 住宅에 있어 房은 各層을 垂直方向에 貫通하는 이음으로서 表現하고 있다.

室内에서 무엇보다도 重要な 要素는 光線으로, 화사아드의 넓직한 窓과 天井登에서 받아, 모든房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또한가치 큰 要素는 建物の 内部와의 透明性이라는 것이다. 住宅의 中心은 넓직한 벨·에터지層的의 居室, 食堂, 부엌이 一体로 된 大空間에 있다.

밤이되면 居室에 設置된 暖爐를 둘러 大端히 開放的인 室内에서 親密하고 아늑한 家族의 雰圍氣를 자아내게 하곤한다.

테라스와 발코니는 住宅 4 方に 各樣의 形態로 設置되어 있다. 이때문에 그들 발코니와 테라스는, 場所, 時間, 秀節에 의해, 시원함과 따듯함, 太陽光線과 그늘, 펼쳐진 眺望과 푸르른 숲의 풍치 등 많은 樣相을 提供하고 있다.

풍요한 陽光과 보기에도 시원한 이 住宅은 特殊한 처리로 대단히 人間的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刺戟的인 面도 아끼지 않은 맛도 나타내고있다. 여쭙든 이 住宅은 오늘날 우리들 周圍에 흔히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즐거운 나의 집)과 같은 兪想에 의해서 세워진 이邸宅은 普通의 住宅과는 分明히 다른 뜻의 것이다.

그것은 城과 같이 보여, 오늘날 독일에서 建築되고 있는 一般的인 住宅과는 수려 다른 特別한 內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住宅은 音樂과 美術을 愛好하는 家族을 위해 지어진 집이다.

이하얀 빌리는, 다루슈타트와 하이델베르크를 잇는 오랜 商業用道路 벨크슈트라세에 面

하여, 自然景視속에 있어 (마치)城과 같이 둘러쌓여 保護되어, 언덕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住宅은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있어 익숙한 것이다. 한가지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人間의 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人間의 精神에 의해서도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 이테리의 人道主義와 르네상스의 傳統은 粗野에서 原始的인 狀況에 있는 것과, 洗練되어 獨創的인 作品과의 対照를 뜨는 손이 닿지 않는 것과 完結된 것과의 対照를 이루고 있다.

이 住宅은 芸術에 있어 實際的인 것과 經濟的必要性和 対応關係가 있다는 것을 試圖하고 있다.

使의 遺産은 모든近代運動의 時期와 같이 否定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同化되고있다. 그것은 絶對로 아닌 것이어서,

構造, 材料, 設備에 대해서

建物の 構造는 石造로서, 天井은 鋼材와 콘크리트, 壁은 内·外側 모두·푸라스틱으로서 한결 같이 白色으로 塗裝되어 있다.

窓과 前面은 白色 푸라스틱으로 表面이 알미늄의 窓틀과 遮斷유리로 되어 있다.

内部의 문 및 칸막이 壁은 하얗게 칠해진 木材와, 검게 着色되어진 베니아板이 使用되고 있다.

暖房은 石油에 의한 溫水方式으로, 室内의 放熱器와 床暖房이 併用되고 있다.

여기서 重要視해야 할 점은 여기에 쓰여지고있는 材料는 技術者에게는 日常的인 것이겠으나, 精密에 있어 周到한 作品을 만들어내는 可能性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即 房의 建築的質 혹은 建物の 文化的 価値에는 세 가지 側面材料의 選擇, 技術者를 위한 動機, 創造의 인스피레이션이 各已 重要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築地: 1,500m²

床面積: 48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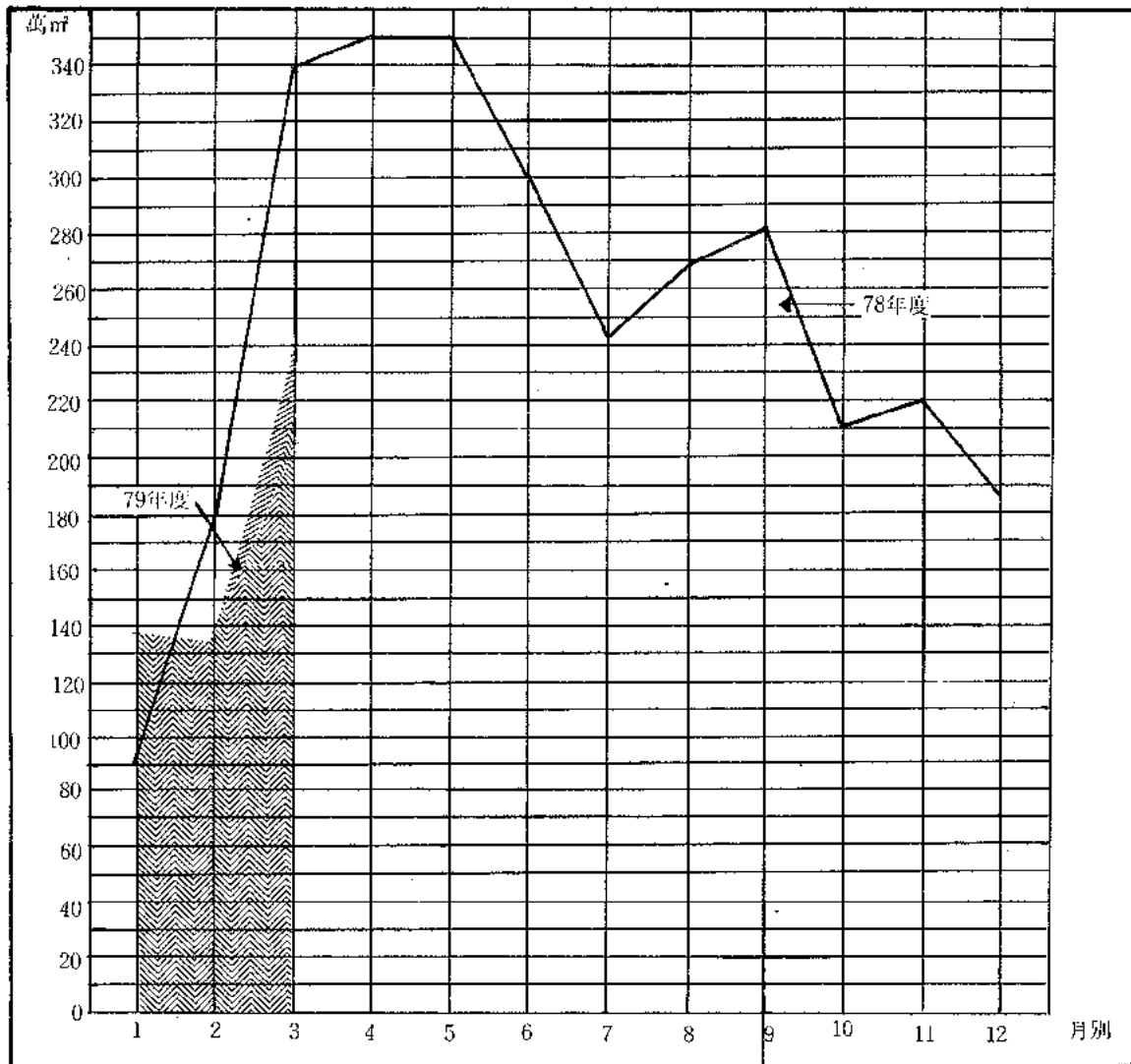
工費: 695,000 독일·달크

工期: 1976. 12~7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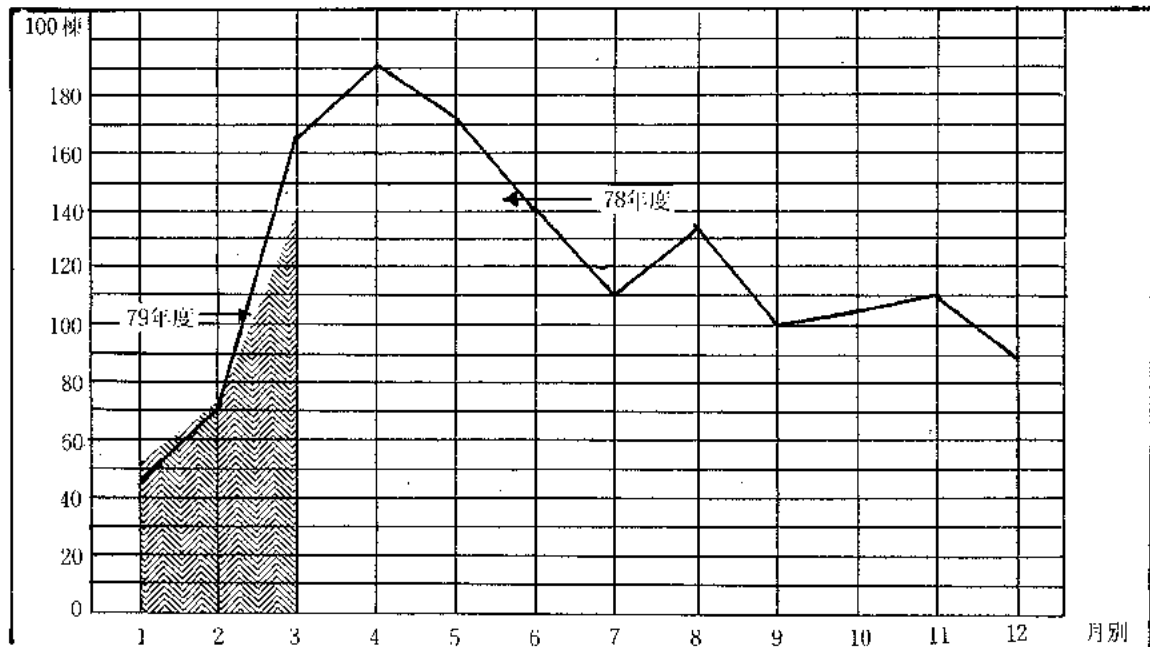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1979年(1월~3월)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棟数(千棟)

(面积单位 : m^2)

棟數(千棟)

(证明面积: 7m^2)

棟數(千棟)

(延面积: km^2)(株数 萬株)

(延面積：萬萬㎡)

										延面积：方公里									
9	8	7	6	5	4	3	2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6,770		84.6%					3,416,055					
							14,099							2,379,498					



Rocket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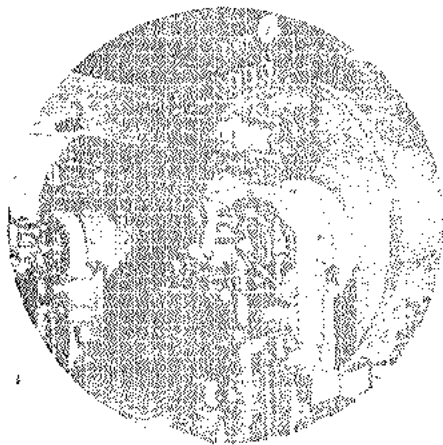
연료비 40% 절약!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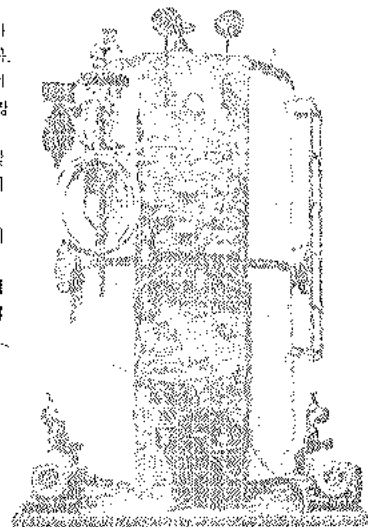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고압연관식보일러 (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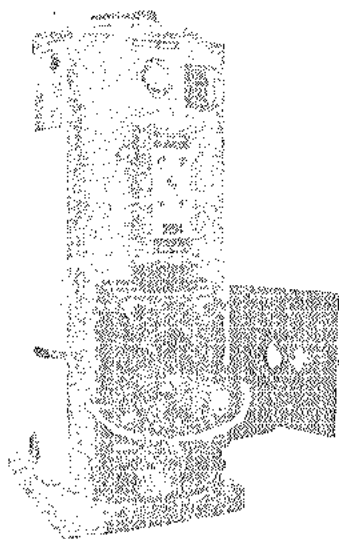
- 1ton에서 16ton까지 용량이 폭넓습니다.
- 설계에 있어서 구조를 합리화 해놓은 보일러로 긴 수명과 높은 열효율을 자랑합니다.
- 연관식 보일러와 설계기술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 (KRS)



- 1000방 미만 저속사 회전은 20분내에 해결합니다.
- 작동공간 적조 세팅 승기 나미용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화력발전기 실온 난방 및 급탕용 식음기공·공정에 적합합니다.
- 미연소물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압력 0.2에서 0.5ton의 전자동 소형 스팀 보일러로 인기에 편입하고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목적온수보일러 (KRZ)



- 난방용 급탕용 목욕탕 전용.
- 집전사 또는 오일버너나 고압식 연탄히터 및 펌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폭넓습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 touch입니다.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급탕용과 농도열이 상업용 급탕 난방겸용이 있습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 (KRQ)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혁신.
- 전세계 KRQ는 몇개의 원조 기술로써 주로 완성된 것입니다.
- 본제품의 개면폭은 15cm이상 30cm이하 40cm이상 60cm이하 두께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습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맞먹는 가용연료비 1/10소형 오일 버너나 전기소비가 되고 설치면적이 작은 저하설 부일 청동관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기체화로 본품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보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6) 5131-4

여의도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새우회관 6층)

전화: (782) 7373, 7387, 8757

發明 電子열쇠 (도어록) 新発売 特許品

열쇠계의 혁신! 電子열쇠로
여러분의 財産을 保護합니다

電子열쇠는...

1. 電子열쇠는 다른 열쇠나 어떠한 方法으로도 열수 없음.
2. 電子열쇠는 故障이 全然없음.
3. 電子열쇠는 使用操作이 부드럽다.
4. 電子열쇠는 特殊磁石을 使用하여 永久的임.
5. 電子열쇠는 複製 (合鍵) 가 않됨.
(439, 296個가 生産될때 同一한 열쇠 한개가 나옴)

使用處 : 아파트, 住宅, 事務室, 병원
保管倉庫, 金庫, 호텔 등
販賣處 : 有名鐵物商이나 本社營業部

※ 열쇠가 더 必要하거나 紛失時는
本사로 注文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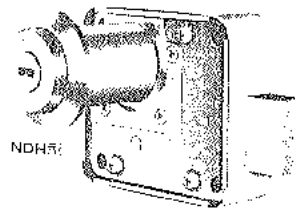
“쫓는 초음파기 판매”
(日本 完製品輸入)

世林貿易株式會社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 街 60-3
TEL. 776-7040 · 7041
공장 TEL. 260-1623 부산지사 : 26 0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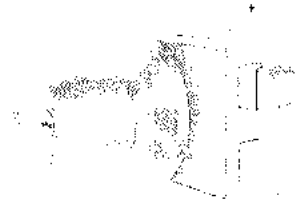
日本美和LOCK 株式会社

補助錠 (ECNDH型) 電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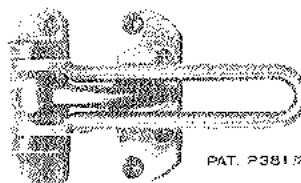
附着하기 쉬우며
堅固하고 耐久性이 좋고
防犯上 安全합니다.

도어록 (ECHMU型) 電子式



한가지편으로 左右
內外, 開門自由로 하
使用할수 있고, 重
要保管用途使用,
補助錠이 必要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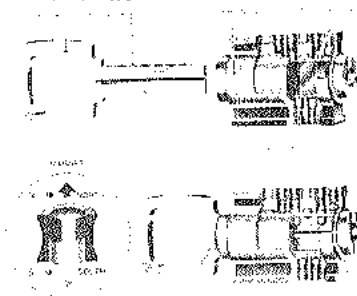
安全문고리 (SL-1型)



外部에서 門을 열때
10cm 程度만
열리고 확인후 門을
열어주는 安全고리

※ 金庫用, 家具什器用, 카비넷트用,
私書函, 其他 電子열쇠가 있음.

電子열쇠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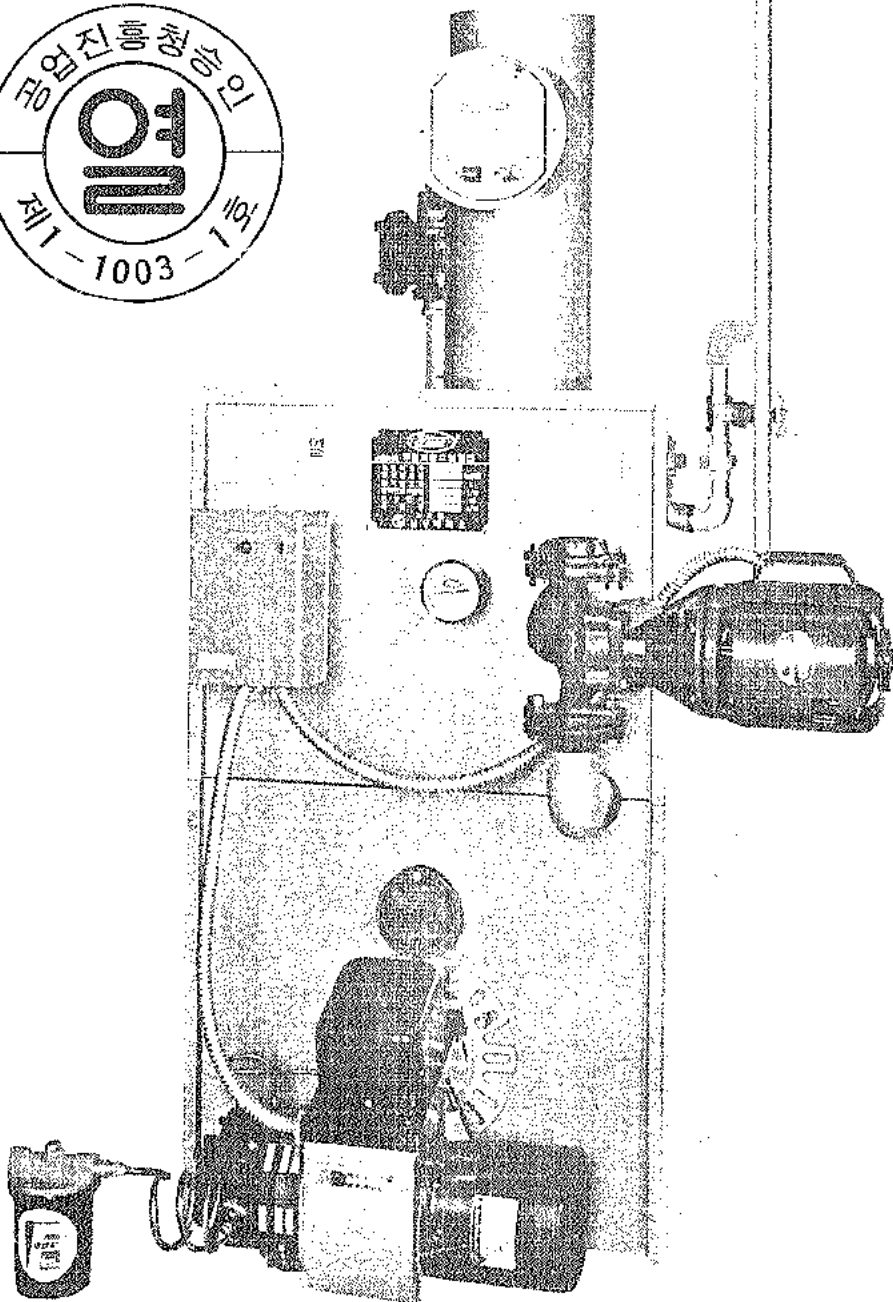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유틀카 **보일러** **자통** **신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상 사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 2동 나일 109호

TEL: 266-2807, 266-8015

韓國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國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為해 끊임없이 研究
努力하고 있습니다.

◎生産製品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安全強化유리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 (mm)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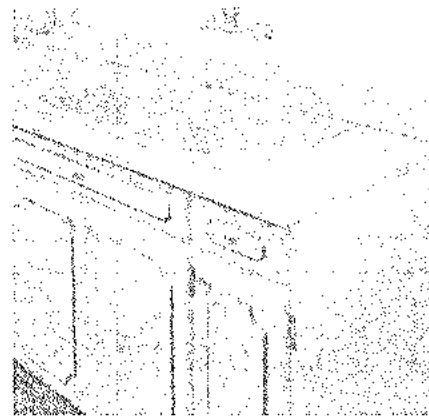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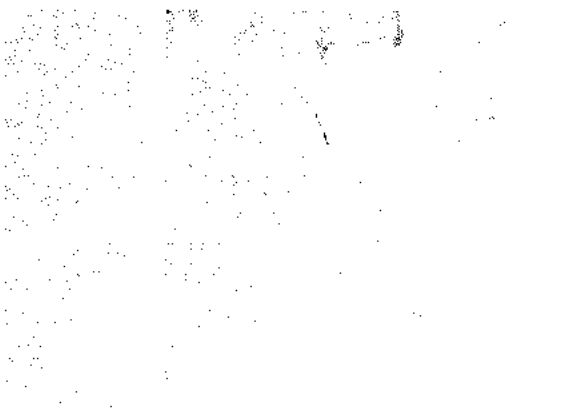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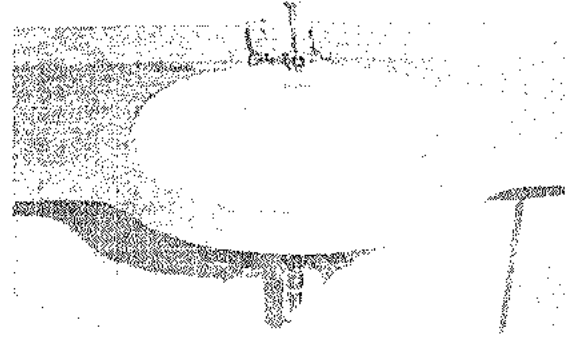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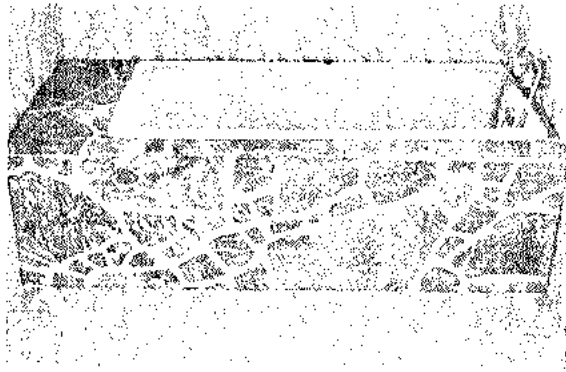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②3 7141~5 ⑦⑦ 8022~6
仁川工場：京畿道 仁川市 東区 万石洞2 仁川 ⑦ 0111~0119
釜山工場：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⑤2 4066~4070

人造代理石의 專門製造業体

永林마-블은 自然環境美의 神秘를 創造한다.



用途

호텔, 아파트, 빌딩, 銀行, 病院, 接客業所, 住宅등의 内部, 室内의 美埋容室, 싸우나湯, 野外室内플장, 各種 用途의 所要된다.

特 徵

- ① 自然石보다 훨씬 美麗한 色相과 무늬光澤을 創出한다.
- ② 需要者の 趣向에 맞도록 各種用途에 따른 注文生産할 수 있다.
- ③ 自然石으론 不可能한 複雜한 모양을 變型 製造할 수 있다.

優越性 : 自然石보다 強度, 磨耗力, 吸收率, 耐酸性이 優秀하며 永久的, 衛生的, 施設物로서 優雅한 品位를 保存한다.

永
林
産
業

本 社 : 서울特別市 龍山区 靑坡洞 1 가 154~32번지 (凡陽빌딩301号)

電話 : 794-9950, 792-3554

工 場 : 京畿道 城南市 야탑동 702 電話 : 2-5328

營業所 : 서울特別市 冠岳区 奉天洞 4 洞 399-6 電話 : 877-1032

建設実務者の 豫算編成을 위한
物價構造의 指針書

1979年度 増補版

建築工事一位代價表

絶讚裡 販賣中

(株) 韓國技術用役 編

65-4587-8

韓國技術研究社 發行

261-7488, 265-7913

建設役軍의 必須指針書

1979年度 増補版

綜合 積算資料

建設実務者の 能率을 倍加시키기 위하여
増面, 補完을 断行한 最新版

絶讚裡 販賣中

(株) 韓國技術用役 編

65-4587-8

韓國技術研究社 發行

261-7488, 265-7913